

2

기출 독해 훈련

정답과 해설

BOOK 1 / 지문 독해

 BOOK 1 / 지문 독해	1
● 지문 구조 유형	2
I 인문·예술	3
II 사회·문화	11
III 과학·기술	18
IV 융합·복합	26
 BOOK 2 / 문제 유형	33



수능에 잘 나오는

지문 구조 유형

01 일반-특수 구조

11쪽

[기출로 연습하기] 1 (1) 미성년자 (2) 취소권 (3) 무효

2 (1) ○ (2) ×

- 1 (1) ②-3에 민법에서 규정한 제한능력자의 유형이 제시되어 있다.
 (2) ②-4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②-5~6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1) ②-1에서 제한능력자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②-2~7에서 제한능력자제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2) ③-1에서 제한능력자제도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지만, 제한능력자제도의 변화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02 나열 구조

13쪽

[기출로 연습하기] 1 (1) 최고 (2) 헌법재판제도 (3) 권력제한성

2 (1) ○ (2) ×

- 1 (1) ①-1,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②-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③-4~5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1) ①~③에서 헌법의 특징인 '최고규범성', '자기보장성', '권력제한성'을 병렬적으로 제시하여 헌법의 다양한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2) 헌법의 세 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을 뿐, 서로 다른 견해를 종합하여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03 비교·대조 구조

15쪽

[기출로 연습하기] 1 (1) 발전 (2) 중화 (3) 객관적 (4) 평등권

2 (1) × (2) ○

- 1 (1), (2) 박제가의 견해는 ②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4) 이덕무의 견해는 ③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1)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지는 18세기 북학론 중 박제가와 이덕무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을 뿐, 각 관점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서로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2) ②에서 박제가의 견해, ③에서 이덕무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두 학자의 견해 차이를 설명하고 있으며, ①-2~3에서 그러한 견해가 형성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04 원인-결과 구조

17쪽

[기출로 연습하기] 1 (1) 변동폭 (2) 이유 (3) 왜곡

2 (1) ○ (2) ×

- 1 (1) ②-2에서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2) ③-1을 통해 ③~④에서 채찍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③-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1) ①에서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인기 티셔츠의 정품을 생산하여 판매했던 업체가 수익을 내지 못한 현상을 언급하고, 그 원인을 ②에서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2) ③~④에서 ①의 현상이 일어난 원인인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의 발생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대립적 의견들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05 문제-해결 구조

19쪽

[기출로 연습하기] 1 (1) 상대적 (2) 해결 (3) 반감기

2 (1) ○ (2) ×

- 1 (1) ①-3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동위원소 연대측정법은 지층이 형성된 연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었던 지질학적 시간 척도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3) ④-1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1) ①-3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③-3에서 첫 반감기 때 모원소의 개수는 처음의 반으로 줄어든다고 했다.

06 과정 구조

21쪽

[기출로 연습하기] 1 (1) H^+ (2) H_2O 2 (1) ○ (2) ○ (3) ×

- 1 (1) ③-2에 따르면 수소 양이온(H^+)은 고분자전해질막을 통과하여 +극으로 이동한다.
 (2) ③-4에 따르면 +극에서는 산소가 전자(e^-)와 결합해 산소 음이온(O^-)이 된 후, 수소 양이온(H^+)과 만나 물(H_2O)이 되어 외부로 배출된다.
- 2 (1) ②-2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②-3, ③-2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3) ③-2~3에 따르면, -극에 공급된 수소에서 분리된 전자가 외부 회로로 흐르면서 전기에너지가 발생한다.

[기출로 연습하기] 1 (1) 간세포 (2) 간정맥 (3) 산소

2 (1) ○ (2) ○ (3) ×

- 1 (1) ①-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①-2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②-3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1) ②-3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②-5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②-5~6에 따르면 노폐물은 간세포의 대사 활동의 결과물이며, 시누소이드를 흐르는 혈액은 이러한 노폐물을 흡수하여 중심 정맥으로 보낸다.

[기출로 연습하기] 1 (1) 위임명령 (2) 고시 (3) 지방 의회

2 (1) × (2) ○ (3) ×

- 1 (1) ②에서 국회로부터의 위임이 필요하며, 제정 주체는 행정부이고, 입법예고와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하는 행정입법은 위임명령임을 알 수 있다.
 (2) ③-3~4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④-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1)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되는 행정입법은 조례(④-1)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2) ③-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②-3에서 위임명령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예고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제 영역별 실전 독해의
정답과 해설을 확인해 볼까?

01 에피쿠로스 사상

28~29쪽

1 ② 2 ⑤ 3 ⑤

1 중심 내용 파악하기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② 에피쿠로스 사상의 목적과 의의 - 신, 인간, 우주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이 글은 ①-2에서 인간이 결정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에피쿠로스 사상을 소개하고, ②~④에서 이신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신, 인간, 우주에 대한 에피쿠로스 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에피쿠로스 사상의 의의를 ⑤-2~3에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에피쿠로스 사상의 성립 배경 -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 에피쿠로스 사상의 성립 배경은 ①에만 언급되어 있으므로 이 글의 표제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 글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보다는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신의 관여 여부를 중심으로 에피쿠로스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에피쿠로스 사상에 대한 비판과 옹호 - 사상의 한계와 발전적 계승을 중심으로
 → 에피쿠로스 사상에 대한 비판과 옹호나, 에피쿠로스 사상의 한계와 발전적 계승에 대한 내용은 이 글에 언급되지 않았다.
- ④ 에피쿠로스 사상을 둘러싼 논쟁과 이견 - 당대 세계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①에 에피쿠로스 사상과 당대 결정론적 세계관과의 차이점이 언급되었지만, 에피쿠로스 사상을 둘러싼 논쟁과 이견은 이 글에 언급되지 않았다.
- ⑤ 에피쿠로스 사상의 현대적 수용과 효용성 - 행복과 쾌락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⑤-2~3에 제시된 에피쿠로스 사상의 의의를 효용성으로 볼 수는 있지만, 에피쿠로스 사상의 현대적 수용이나 행복과 쾌락의 상관성은 이 글에 언급되지 않았다.

2 글의 내용 비판하기

윗글을 읽은 학생이 '에피쿠로스'에 대해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기 /

- ㄱ. 신이 분노와 호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면 인간의 세계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왜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삶 × →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삶에서 신의 섭리를 찾을 수 없다고 함(④-⑤).을 이해하려고 하는가?
- ㄴ. 원자가 법칙에서 벗어나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인과 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움직인다는 뜻일 텐데, 그것이 자유 의지의 단초가 될 수 있는가?
- ㄷ. 인간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면 죽음에 이르는 고통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사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만으로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가?
- ㄹ. 인간이 자연재해를 무서워한다면 자연재해 그 자체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신이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정답인 이유

- ㄴ. ④-3~4의 에피쿠로스 주장처럼 원자가 우연적인 운동을 하고 이러한 원자들로 이루어진 우주 역시 우연의 산물이듯이, 인간의 삶 또한 우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이 자유 의지나 의도와 달리 흘러가 인간이 주체적으로 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ㄴ은 적절한 비판이다.
- ㄷ. ③-3에서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사후에 신의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사후에 있을 신의 심판 외의 요소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ㄷ은 적절한 비판이다.
- ㄹ. ①-1에서 사람들은 신이 야기한다고 여겨지는 자연재해를 두려워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ㄹ의 비판처럼 사람들이 자연재해 자체를 두려워한다면, 신이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에피쿠로스의 사상(②-1)만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답 피하기

- ㄱ. ④-5에서 에피쿠로스는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신의 관여는 없으며, 인간의 삶에서도 신의 섭리를 찾을 수 없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비판으로 볼 수 없다.

3 글의 관점 비교하기

윗글의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보기>에 나타난 생각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신은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는 않으나,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 <보기>와 에피쿠로스의 공통점: 신의 존재를 인정함. 라네, 하늘과 땅,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며, 홀륭함에서도 탁월한 존재이지. 언제나 신은 필연성을 따르는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성장과 쇠퇴, 분리와 결합에 있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이르도록 이끈다네.) () : 에피쿠로스와 다른 <보기>의 관점

정답인 이유

- ⑤ 신이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중간 세계'에 있다고 본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신의 영향력이 인간 세계의 외부에서 온다고 보는 공통점이 있군.
- <보기>는 신이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지만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로 이끈다고 하였다. 이는 신이 인간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신의 영향력이 인간 세계의 외부에서 온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②-1에서 에피쿠로스는 신은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며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에피쿠로스는 인간 세계에 대한 신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신을 '모든 것들의 원인'으로 보는 <보기>의 생각은, 신이 '인간사에 개입'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 하늘과 땅,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된다는 <보기>의 생각과 달리 ②-1, ④-5에서 에피쿠로스는 신이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② 신이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모든 것들을 이끈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은, 우주를 '우연의 산물'로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 <보기>에서 신은 '필연성'을 따르는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모든 것들을 이끈다고 하였다. 이와 달리 ④-4에서 에피쿠로스는 우주 역시 '우연'의 산물로 보았다.
- ③ 신을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로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불사하는 존재'라고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공통점이 있군.
- <보기>에서 신을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로 보는 것은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관점이다. 에피쿠로스로도 마찬가지로 ②-1~2에서 불사하는 존재로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 ④ 신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는 <보기>의 생각은, 행복이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 <보기>는 신에 의해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는 관점이다. 이와 달리 ②-3에서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세계가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인간의 행복도 자율적 존재인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보았다.

1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인 이유

⑤ 니체는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철저한 망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④-5에서 니체는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⑤-2에서 철저한 망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플라톤은 가치론적 이분법을 통해 기억을 설명하였다.

→ ①-2~3에서 플라톤이 기억과 망각 사이에 가치론적 이분법을 설정하고 이데아가 기억을 통해 인식된다고 설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하이데거는 기억이 지배하는 상태를 진리로 인식하였다.

→ ①-4에서 하이데거가 진리를 '망각이 없는 상태, 즉 기억이 지배하는 상태'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③ 니체는 망각을 긍정적인 능력이라고 판단하며 서양 철학의 전통적 사유를 비판하였다.

→ ③-1~2에 따르면 니체는 플라톤, 하이데거, 피히테로 대표되는 서양 철학의 전통적 사유를 비판하면서 기억 능력을 비판하고, 망각을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이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④ 니체는 음식물이 위에 가득 남아 있는 상황과 정신이 기억으로 가득 찬 상태가 유사하다고 생각하였다.

→ ③-4~5에서 니체가 망각을 긍정하기 위해 제시한 신체와 관련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니체는 '소화·배설 - 섭취'의 원리를 '망각 - 기억'의 관계에 빗대어 설명했다.

2 정보 간의 관계 파악하기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② ㉠이 가능해야만 ㉢도 가능하다.

→ ②-7~8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기억(㉠)의 능력을 통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같음을 인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가능해야만 ㉢도 가능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 ㉠이 없어도 ㉢에 의거한 주장이 가능하다.

→ ②-5~6에 따르면 ㉠이 전제되어야 ㉢에 의거한 주장이 가능하다.

③ ㉡이 성립해야만 ㉠이 성립한다.

→ ②-5~6에 따르면 ㉠이 전제되어야 ㉢에 의거한 주장이 가능하므로, ㉠이 성립해야만 ㉢이 성립한다.

④ ㉢은 ㉠을 위해 존재한다.

→ ②-7에 따르면 ㉢은 기억(㉠)의 능력을 통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같음을 의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 ㉠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⑤ ㉢은 ㉡이 전제되어야 한다.

→ ②-7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A는 A이다'(㉢)라는 명제가 아닌 기억(㉠)이 전제되어야 한다.

3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갑: 지갑이 많이 낡았네. 하나 새로 사줄까?

을: 아직은 새로 사기 싫어요. 아빠가 생일 선물로 처음 사 주신 거라서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 익숙해서 좋아요.

기억의 능력으로 인식한 사실

갑: 그렇구나. 근데 지난번에는 평소와 달리 국어 시험 못 봤다고 했잖아. 이번 시험 준비는 잘하고 있니?

을: 지난 시험은 지난 시험일 뿐이죠. 잊을 건 잊고 이번 국어 시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 시험의 결과를 망각함.

정답인 이유

② 피히테는 을의 '지난 시험은 지난 시험이다.'라는 주장은 '시험은 시험이다'라는 명제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 ②-5에서 피히테는 'A는 A이다'라는 명제는 '과거의 A가 현재의 A이다'라는 주장으로 현실화된다고 했다. 이를 참고할 때 피히테는 '시험은 시험이다'라는 명제가 '과거의 시험이 현재의 시험이다'라는 주장으로 현실화된다고 볼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피히테는 을이 선물을 받았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같음을 기억의 능력을 통해 의식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 <보기>의 을이 지갑을 '아빠가 생일 선물로 처음 사 주신' 물건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 을이 과거의 지갑을 기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②-6~7의 피히테 관점에 따르면 을이 과거에 그 지갑을 받았던 자신을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을이 기억의 능력을 통해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같음을 의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니체는 을이 지갑에 대한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여 지갑을 새로 사는 것을 긍정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 ③-6에 따르면 니체는 기억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변화와 차이를 긍정하지 못해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고 했다. <보기>의 을은 낡은 지갑이 자신에게 의미가 있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새 지갑을 거절하고 있다. 니체는 이러한 을의 행동이 과거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여길 것이다.

④ 니체는 을이 국어 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것을 보고 기억을 뛰어넘어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것이다.

㉠ 〈보기〉의 을은 지난 국어 시험의 결과를 잊고 새로운 국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에서 니체는 망각을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능력으로 여겼으므로, 을이 기억을 뛰어넘어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 ㉣ 니체는 을이 지난 시험 결과에 대해 좌절하지 않는 것은 다음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을 직감하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다.
- ㉤ ㉡-㉢에서 니체는 건강한 망각의 역량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순진무구한 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아이는 자신이 만든 모래성이 부서지더라도 그 자리에 새로운 모래성을 만들 수 있음을 직감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우울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를 고려할 때 니체는 〈보기〉에서 을이 지난 시험 결과에 대해 좌절하지 않는 것은 다음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라고 여길 것이다.

03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

36~37쪽

1 ㉡ 2 ㉢ 3 ㉢

1 전개 방식 파악하기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면서 그 한계와 의의를 밝히고 있다.
- ㉢ 이 글은 ㉡에서 도덕적 갈등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화제를 제시하고, 도덕적 원칙주의자의 관점(㉢~㉣), 도덕적 자유주의자의 관점(㉤~㉥), 도덕적 다원주의자의 관점(㉦~㉧)을 비교하면서 각 관점의 한계와 의의를 밝히고 있다.

오답 피하기

- ㉠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제시하고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 ㉡~㉢에서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관점들의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는 않다.
- ㉣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관점을 유형별로 나누면서 크 분류 기준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 ㉤ 이 글은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관점을 도덕적 원칙주의자의 관점(㉢~㉣), 도덕적 자유주의자의 관점(㉤~㉥), 도덕적 다원주의자의 관점(㉦~㉧)으로 나누어 각 관점의 특징과 한계,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 기준의 문제점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 ㉥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관점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과정을 서술하고 새로운 관점이 나타날 것을 전망하고 있다.
- ㉦ 이 글에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관점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과정이나 새로운 관점의 등장에 대한 전망은 나타나지 않는다.
- ㉧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관점이 분화된 배경을 제시하고 관점들이 혼재하게 될 경우 나타날 문제점을 서술하고 있다.
- ㉨ 이 글에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관점이 분화된 배경이나, 이 관점들이 혼재하게 될 경우 나타날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세부 내용 파악하기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 ㉠은 ㉡과 달리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 ㉣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선형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상위 원리를 통해 만든 규범이나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4). 이를 통해 도덕적 가치 중에서 ㉠은 선형적 도덕 법칙을, ㉡은 상위 원리에 해당하는 가치를 우선순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 ㉠은 어느 사회에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도덕 법칙이 있다고 본다.
- ㉢ ㉡-㉢과 ㉢-㉣를 참고할 때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어느 사회에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선형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 ㉣ ㉡은 상위 원리를 통해 현실적인 규범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 ㉤ ㉣-㉤에서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상위 원리를 통해 법과 같은 현실적인 규범이나 지침을 만들 수 있다고 여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은 ㉠과 달리 선형적인 도덕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 ㉦ ㉣-㉤에서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도덕적 원칙주의자(㉢)와 달리 선형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과 ㉡ 모두 도덕적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 ㉨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선형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도덕적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상위 원리를 통해 만든 현실적인 규범이나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적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웃에 살고 있는 갑과 을은 공공장소에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하는가^{갈등 이유}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갑은 CCTV가 없는 곳에서 범죄를 당한 적이 있다며, 공공의 안전이라는 가치^{갑이 중시하는 가치}를 위해 CCTV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을은 CCTV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적이 있다며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을이 중시하는 가치}를 위해 CCTV 수를 늘리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정답인 이유

- ㉢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CCTV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적이 있는 을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갑이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겠군.

➡ ④-2에 따르면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개인들이 합의를 통해 만든 상위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덕적 자유주의자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오답 피하기

- ①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CCTV 설치 확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데 감이 범죄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겠군.
➡ ②-3에 따르면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갈등 상황에서 주관적 욕구나 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보기>의 상황에서 감의 개인적인 상황(범죄를 당한 사실)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여길 것이다.
- ②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공정한 절차에 따른 합의에 의해 CCTV 설치 확대가 결정된다면 옳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겠군.
➡ ④-2, 4에 따르면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개인들이 합의를 통해 만든 상위 원리와 그에 따른 현실적인 규범이나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적 갈등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다. 따라서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공정한 절차에 따른 합의에 의해 CCTV 설치 확대가 결정된다면 옳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 ④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감과 올이 CCTV 설치 확대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겠군.
➡ ⑦-1에 따르면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도덕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재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따라서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CCTV 설치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과 올 사이의 중재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 ⑤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감과 올이 CCTV 설치 확대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둘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군.
➡ ⑦-4에 따르면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갈등 당사자 간의 인간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것을 중시한다. 따라서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보기>의 상황에서 갈등 당사자인 감과 올의 사이가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04 교류 분석 이론

40~41쪽

1 ③ 2 ② 3 ④

1 전개 방식 파악하기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③ 이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을 설명하고, 이론이 지니는 의의를 밝히고 있다.

➡ ②~⑥에서 교류 분석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개념인 '자아 상태'와 '스트로크'를 설명하고 있으며, ⑦에서 교류 분석 이론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이론이 정립된 과정을 소개하고, 각 단계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 교류 분석 이론이 정립된 과정과 각 단계의 차이점은 소개되지 않았다.
- ② 이론이 가지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는 다른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 교류 분석 이론의 한계점이나 이를 보완하는 다른 이론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 ④ 이론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제시하고, 이론의 타당성을 사례를 들어 검증하고 있다.
➡ 교류 분석 이론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나, 교류 분석 이론의 타당성을 사례를 들어 검증하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 ⑤ 이론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나열하고, 요소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
➡ '자아상태'와 '스트로크'를 교류 분석 이론을 구성하는 요소로 볼 수 있으나, 이 두 개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2~3]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 자료	
상황 1	아버지: ①(차가운 말투로) 너 할머니께 아까 보인 태도가 뭐냐? 좀 더 예의를 갖추 수 없어? 철호(10대): (머리를 떨구며) 죄송해요.
상황 2	철호(30대): (냉담하게) 너 아까 부장님께 너무 버릇없이 굴었어. 앞으로는 더 예의를 갖추도록 해. 직장 후배: (당황하면서) 그런가요? 제 나름대로는 예의를 보인 것인데 앞으로는 더 주의하겠습니다.
상황 3	상담사: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 엄격한 것 같아 고민이시군요.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을 찾고, 어떻게 할지 함께 생각해 보죠. 우선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혹시 당신의 부모님은 엄격한 편이셨나요? 철호(30대): 예. 제 아버지는 어릴 때 제가 조금이라도 버릇없이 굴면 늘 질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상담사: 많이 힘들었겠군요. 그런데 어릴 때 당신은 아버지 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아이였죠? 철호(30대): 그럴 수밖에요. 늘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른들께 예의바르게 인사를 할 때면 얼굴이 환해지셨죠.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인사를 잘하기 위해 애를 썼었습니다.

2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② 언어적, 부정적, 조건적 스트로크이다.

➔ ㉠은 아버지의 말이므로 언어적 스트로크(㉤-㉥)이며, 차가운 말투이면서 철평이 '그때 많이 힘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 부정적 스트로크(㉤-㉥)이다. 또 철평이 할머니께 보인 태도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이므로 조건적 스트로크(㉤-㉥)로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비언어적 스트로크'는 몸짓, 표정 등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긍정적 스트로크'는 상대방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비조건적 스트로크'는 아무 조건 없이 존재 그 자체에 반응하는 것(㉤-㉥)이다.

3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윗글을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④ <상황 3>에서 상담사의 두 번째 질문은 철평의 FC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

➔ 상담사는 두 번째 질문에서 철평이 부모의 요구에 순응하는 아이였는지를 묻고 있으므로, 해당 질문은 철평의 AC(순응하는 어린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과거를 탐색하는 질문으로 볼 수 있다. 'FC(자유로운 어린이)' 상태는 부모의 요구나 압력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행동했던 어린 시절 방식으로 행동할 경우를 이른다.

오답 피하기

① <상황 1>과 관련지어 볼 때 <상황 2>의 철평은 CP 상태에서 후배에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

➔ <상황 2>에서 철평은 <상황 1>에서 가르치고 통제했던 아버지와 유사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아버지의 역할을 따라하는 CP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상황 2>에서 철평의 자아상태와 후배의 자아상태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

➔ <상황 2>에서 철평의 자아상태는 CP 상태(㉢-㉣)이다. 하지만 후배의 자아상태가 CP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③ <상황 3>에서 상담사는 현재의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A 자아상태라고 할 수 있.

➔ 상담사는 문제의 원인을 찾고 어떻게 할지 해결 방안을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하고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을 찾는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자아상태인 A 자아상태(㉡-㉢)라고 볼 수 있다.

⑤ <상황 3>에서 철평의 말을 통해 그가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인사하는 행동을 강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

➔ 철평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누구보다 인사를 잘하기 위해 애를 썼다고 했으므로, 철평이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인사하는 행동을 강화했음(㉡-㉢)을 알 수 있다.

05 범종의 조형 양식

44~45쪽

1 ① 2 ③ 3 ④

1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인 이유

① 고려 시대까지 우리나라의 범종은 ~~외국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신라 종의 조형 양식을 계승하였다.

➔ ㉣-㉢~㉣에 따르면 우리나라 범종은 고려 후기 원나라의 침입 이후 전래된 라마교의 영향을 받아 범자(梵字) 문양 등의 장식이 나타나고, 범종이 소형화되어 신라 종의 조형 양식이 계승되면서도 대형 종의 주요 공법은 사라지게 되었다.

오답 피하기

② 신라 종의 상부와 하부에는 불교적 상징물이 장식되어 있는 동일한 크기의 문양 띠가 있다.

➔ ㉢-㉣에서 신라 종의 상부와 하부에 있는 상대와 하대라는 동일한 크기의 문양 띠에 덩굴무늬와 연꽃무늬 등의 불교적 장식물이 장식되어 있다고 했다.

③ 신라 시대부터 범종에 장식되어 있었던 당좌는 조선 시대에 들어와 사라지기도 하였다.

➔ ㉢-㉣에서 신라 종의 정점부에 당좌가 있었으며, ㉤-㉢에서 이러한 당좌는 조선 시대에 들어와 사라지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④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범종이 만들어진 것은 중국에서 불교가 전파된 것과 관련이 있다.

➔ ㉠-㉡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신라에서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주요 공법으로 대형 종을 주조하였다.

➔ ㉠-㉣에서 신라 종은 중국이나 일본의 주요 공법으로 만들기 어려운 조형 양식을 지녔다고 했음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2 생략된 정보 추론하기

㉠이 나타나게 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③ 중국 종의 주요 공법으로 대형 종을 만들면서 중국 종의 조형 양식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 조선 초기에 일어난 큰 변화는 신라의 대형 종 주조 공법을 대신하여 중국 종의 주조 공법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용뉴나 장식 면에서 기존의 신라 종의 조형 양식과는 다른 중국 종의 조형 양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① 조선 시대에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면서 범종 제작이 통제되었기 때문이다.
→ 조선 시대에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에 따라 범종 제작을 통제한 것은 ① 이후의 상황이다(㉠-2~4).
- ② 고려 시대에 종이 소형화되면서 신라 종의 조형 양식이 전승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 ㉠-4에 따르면 고려 시대에 범종이 소형화된 것은 맞지만, 신라 종의 조형 양식은 계속 계승되었다.
- ④ 16세기에 사찰 주도로 범종을 주조할 때 신라 종의 조형 양식을 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 16세기에 사찰 주도로 소형 종이 주조되면서 신라 종의 조형 양식이 다시 나타났다고 한 것을 고려할 때(㉠-4), 신라 종의 조형 양식의 복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⑤ 조선 초기에 사찰 주도로 대형 종을 주조하면서 섬세한 조형 양식을 지닌 신라 종을 따르고자 했기 때문이다.
→ ㉠-4에 따르면 조선 초기가 아닌 16세기에 사찰 주도로 대형 종이 아닌 소형 종이 주조되었으며, 이때 섬세한 조형 양식을 지닌 신라 종(㉠-4)의 조형 양식이 다시 나타났다.

3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는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범종의 그림이다. 이 범종의 ㉠~㉤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④ 일본 종은 신라 종과 달리 ㉠의 주변에 가로 세로의 띠가 있다.
→ ㉠-3~4에 따르면 신라의 종은 당좌 사이에 천인상(㉠)이 장식되어 있지만, 일본 종에는 천인상(㉠)이 장식되어 있지 않고 가로 세로의 띠만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용이 한 마리인 형태의 ㉠은 쌍용 형태인 중국 종과 일본 종과 차이가 있다.

- ㉠-3에 따르면 신라 종의 용뉴(㉠)는 쌍용 형태인 중국 종과 일본 종과는 달리 한 마리 용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했다.
- ② ㉠은 중국 종이나 일본 종에는 존재하지 않는 신라 종의 독특한 조형 양식에 해당한다.
→ ㉠-4에서 음통(㉡)은 우리나라의 범종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 ③ 중국 종에는 ㉢가 존재하지 않고, 일본 종에 존재하는 것은 ㉢와 형상이 다르다.
→ ㉠-3에서 연꽃 봉우리 형상이 장식된 유두(㉢)가 있는 신라 종과 달리 일본 종은 단순한 꼭지 형상의 유두(㉢)가 있다고 했고, 중국 종은 유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 ⑤ 신라 종은 중국 종이나 일본 종과 달리 몸체의 정점부가 ㉤ 부분보다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다.
→ ㉠은 하대(㉤-2)이다. ㉠-1에서 신라 종의 몸체는 항아리를 거꾸로 세워 놓은 것과 비슷하게 가운데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모습이라고 했으므로 몸체의 정점부는 ㉤보다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다고 할 수 있다. ㉠-2에서 이와 달리 중국 종은 몸체의 하부가 팔(八)자로 벌어져 있고, 일본 종은 몸체가 수직 원통형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06 지휘자의 음악 해석

48~49쪽

1 ㉠ 2 ㉢ 3 ㉣

1 전개 방식 파악하기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④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화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이 글은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을 자신의 음악적 관점에 따라 해석하고 연주한 지휘자 토스카니니(㉣)와 푸르트벵글러(㉤)의 사례를 통해 화제인 ‘음악 해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화제의 변천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 이 글에 화제의 변천 과정은 언급되지 않는다.
- ② 낯선 개념을 익숙한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 이 글에 낯선 개념을 익숙한 대상에 빗댄 부분은 나오지 않는다.
- ③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면서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⑤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베토벤 〈교향곡 5번〉을 다르게 해석한 토스카니니(㉣)와 푸르트벵글러(㉤)의 관점이 나오기는 하지만, 두 관점의 절충안을 모색하거나 장·단점을 비교하지는 않았다.

2 중심 내용 파악하기

‘음악 해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③ 작곡가가 악보에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담았다면 음악 해석은 불필요하다.
- ➡ ②-5~6에서 작곡가는 아무리 악보를 정교하게 그린다 해도 연주자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고, 이 ‘악보의 불완전성’이 다양한 음악 해석을 가능케 한다고 했다. 또한 ③~⑤에서 베토벤이 〈교향곡 5번〉의 악보에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적었지만, 이를 각자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다르게 연주한 토스카니니와 푸르트벵글러의 사례를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동일한 곡이라도 지휘자마다 연주자에게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다.
- ➡ 베토벤 〈교향곡 5번〉을 다르게 해석하고 연주한 토스카니니(④)와 푸르트벵글러(⑤)의 사례를 볼 때 적절하다.
- ② 악보를 통해 작곡가의 의도를 연주자에게 완벽하게 전달하기는 어렵다.
- ➡ ②-5에서 작곡가가 아무리 악보를 정교하게 그린다 해도 연주자들에게 자신이 의도한 음악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고 했다.
- ④ 음악 해석은 지휘자나 연주자가 작곡가의 악보를 소리로 재현할 때 이루어진다.
- ➡ ①-2에서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작곡가의 악보를 소리로 바꾸는 과정에서 ‘음악 해석’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 ⑤ 지휘자는 동작이나 표정을 통해 연주자들에게 자신이 해석한 음악의 느낌을 전달한다.
- ➡ ①-3에서 지휘자는 여러 가지 손동작과 표정, 몸짓 등으로 음악의 느낌을 단원들에게 전달한다고 했다.

3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¹베토벤 당시의 호른으로는 재현부에서 C장조로 낮아진 제2주제의 팡파르를 연주할 수 없었다. ²그래서 베토벤은 자신의 〈교향곡 5번〉 1악장 재현부에서 제2주제 팡파르를 호른과 음색이 가장 유사한 목관 악기인 바순으로 연주하도록 했다. ³그러나 19세기에 관악기의 개량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음이든 연주할 수 있는 호른이 널리 보급되었다. ⁴그러자 어떤 지휘자들은 베토벤 〈교향곡 5번〉 1악장의 재현부에서 제2주제 팡파르를 호른으로 연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⁵하지만 어떤 지휘자들은 베토벤이 악보에 적어 놓은 그대로 바순의 연주를 고집했다.

음악 해석 ①: 주관적으로 음악을 해석함.
음악 해석 ②: 악보에 적힌 것을 따름.

정답인 이유

- ④ 호른으로 연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지휘자들은 악보에 충실한 음악 해석을 중요시했겠군.
- ➡ 〈보기〉-5에 따르면 악보에 충실한 음악 해석을 중요시한 지휘자들은 베토벤이 악보에 적어 놓은 것에 따라, 호른이 아닌 바순으로 연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답 피하기

- ① 베토벤은 당시 악기의 한계 때문에 자신이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구현하지 못했겠군.
- ➡ 〈보기〉-1~2에 따르면 당시의 호른으로는 제2주제의 팡파르를 연주할 수 없어서 베토벤은 팡파르를 바순으로 연주하도록 했다.
- ② 토스카니니는 베토벤이 악보에 적어 놓은 그대로 바순으로 연주하는 데 동조했겠군.
- ➡ 베토벤의 악보에 충실하여 운명의 동기를 연주한 토스카니니의 사례(④)를 고려할 때, 토스카니니는 베토벤이 악보에 적어 놓은 그대로 바순으로 연주하는 데 동조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 ③ 자신의 음악 해석에 따라 호른이나 바순 이외의 악기로 연주하는 지휘자도 있을 수 있겠군.
- ➡ ②-6에서 악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다양한 음악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따라서 자신의 음악 해석에 따라 호른이나 바순 이외의 악기로 연주하는 지휘자도 있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 ⑤ 윗글의 글쓴이는 바순과 호른 중 어떤 악기로 연주해도 그 지휘자의 연주가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겠군.
- ➡ ⑥-1~2를 고려할 때 이 글의 글쓴이는 바순과 호른 중 어떤 악기로 연주하더라도 틀린 연주가 아니라 음악 해석이 ‘다름’ 연주라고 생각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필수 어휘 ZIP

52쪽

- 1 (1) 여운 (2) 조형 (3) 필연성 2 (1) ㉠ (2) ㉡ (3) ㉢ 3 ④ 4 (1) 순응했다 (2) 준수해야 (3) 야기한다 (4) 병립하고 5 (1) 기지 (2) 섭리 (3) 재연하다 (4) 창시하다 6 (1) × (2) ○ (3) × (4) ○

3 문장의 의미를 고려할 때 공통적으로 ‘맞지 아니하고 서로 어긋나게 되다.’를 뜻하는 ‘상충되다’가 쓰여야 한다.

- 6 (1) ‘강화하다’의 뜻풀이다.
(3) ‘부조되다’의 뜻풀이다.

01 조세의 효율성과 공정성

54~55쪽

1 ② 2 ③ 3 ②

1 전개 방식 파악하기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② 대상을 기준에 따라 구분한 뒤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이 글은 크게 ②에서 조세의 효율성의 특징을 설명하고 ③~⑤에서 조세의 공정성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③-②에서 조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으로 구분하고, ④-②에서 능력 원칙을 다시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으로 구분한 뒤 각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상반된 두 입장을 비교, 분석한 후 이를 절충하고 있다.
 ➔ 두 입장에 대한 절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대상의 개념을 그와 유사한 대상에 빗대어 소개하고 있다.
 ➔ 대상을 유사한 대상에 빗대어 소개하고 있지 않다.
 ④ 통념을 반박하며 대상이 가진 속성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 통념을 반박하고 있지도 않고, 속성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지도 않다.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이 발달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이 발달하는 과정은 서술되어 있지 않다.

2 정보 간의 관계 파악하기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③ ㉠은 ㉡과 달리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 ㉡-④에 따르면 조세의 효율성(㉠)은 조세 부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①에 따르면 조세의 공정성(㉡) 가운데 능력 원칙은 조세 부과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즉, ㉠(조세의 효율성)이 아닌 ㉡(조세의 공정성)이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은 조세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되어 있다.
 ➔ ㉡-③~④에 따르면 조세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 생기면 경기가 둔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도록 조세를 부과해야 조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조세의 효율성(㉠)은 조세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은 납세자의 조세 저항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③-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은 ㉠과 달리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 ➔ ㉡-③~④에 따르면 조세의 효율성(㉠)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경기가 둔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③-①에 따르면 조세의 공정성(㉡)은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⑤ ㉠과 ㉡은 모두 조세를 부과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건이다.
 ➔ ㉠-③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는 경제 수업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선생님의 질문에 적절하게 답한 학생을 모두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여러분, 아래 표는 소득을 기준으로, A, B, C의 세금 공제 내역을 가정한 것입니다. 표를 보고 조세의 공정성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각자 분석해 볼까요?

구분	소득 (만 원)	세율 (%)	공제액 (만 원)	납부액 (만 원)	공제 항목
A	3,000	5	0	150	공제 없음
B	3,000	5	100	50	부양가족 2인
C	4,000	10	100	300	부양가족 2인

성근: A와 달리 B에게 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조세의 공정성이 약화되고 있어요. ㄱ

수지: B가 A와 달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것은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한 것이네요. ㄴ

현욱: B와 C의 납부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편익 원칙을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이에요. ㄷ

유미: B의 세율이 5%이고, C의 세율이 10%인 것은 수직적 공평을 위한 누진세가 적용된 결과겠네요. ㄹ

정답인 이유

- ➔ ㄴ. 소득이 동일한 A와 B 중 B만 세금 공제를 받은 이유는 A와 달리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②~④에서 설명한, 조세의 공정성 중 수평적 공평을 실현하기 위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실제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세금을 감면해 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ㄷ. B보다 소득이 높은 C에게 높은 세율이 적용된 것은 ㉡-③~④에서 설명한 것처럼 조세의 공정성 중 수직적 공평을 실현하기 위해 누진세를 시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 ㄱ. ㉡에 따르면 A와 B의 소득이 동일하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B에게만 공제 혜택을 준 것은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이를 통해 조세의 공정성(수평적 공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ㄷ. ㉡-③에 따르면 편익 원칙은 공공재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보기〉에서 B와 C의 납부액이 다른 것은 B와 C의 소득 차이를 고려하여 누진세를 적용했기 때문이며, 이는 편익 원칙이 아닌 ㉡에서 설명한 능력 원칙(수직적 공평)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1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관계
- ②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 세 가지 (대체재의 존재 여부, 필요성의 정도, 소득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 요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 개념
- ①-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 산출 방법
- ③-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상품 판매자의 판매 수입 산출 방법
- ④-2에서 총수입은 상품 판매자의 판매 수입이며, 이는 상품의 가격에 거래량을 곱한 수치로 산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 ④ 대체재의 유무가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 ②-3에서 어떤 상품에 밀접한 대체재가 있으면 그 상품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이라고 하였다.

2 생략된 정보 추론하기

㉔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판매자의 총수입 증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 ④-3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도 증가하지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은 감소한다. 이처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판매자의 총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파악하는 것이 판매자에게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으로 소비자의 소득 규모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 ④-2~3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통해 소비자의 지출액 (총수입)의 증감을 파악할 수 있지만, 소비자의 소득 규모를 판단할 수는 없다.
-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으로 판매 상품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통해 판매 상품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판매 상품의 생산 단가를 예측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통해 판매 상품의 생산 단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으로 판매자의 판매 수입과 소비자의 지출액 차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 ④-2~3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통해 상품의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와 이에 따른 총수입의 증감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요의 가격탄력성만 가지고 판매자의 판매 수입이자 소비자의 지출액인 총수입을 파악할 수는 없으며, 둘의 차이를 파악할 수도 없다.

3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는 김밥과 영화 관람권의 가격 인상 이후 하루 동안의 수요량 감소를 나타낸 표이다. [A]를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구분	김밥	영화 관람권
기존 가격	2,000원	10,000원
가격 변화분	500원 인상	2,000원 인상
기존 수요량	100개	2,500장
수요량 변화분	20개 감소	1,000장 감소

※ 단, 김밥과 영화 관람권의 가격과 수요량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요인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정답인 이유

- ⑤ 김밥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고, 영화 관람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이다.
- ③-3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보기〉에 적용하면 아래 표와 같다.

$$\text{수요의 가격탄력성} = \left| \frac{\text{수요량의 변화율}}{\text{가격의 변화율}} \right| = \left| \frac{\text{수요량의 변화분} / \text{기존 수요량}}{\text{가격의 변화분} / \text{기존 가격}} \right|$$

구분	김밥	영화 관람권
수요량의 변화율	$\left \frac{-20}{100} \right = \left \frac{1}{5} \right = 0.2$	$\left \frac{-1,000}{2,500} \right = \left \frac{2}{5} \right = 0.4$
가격의 변화율	$\left \frac{500}{2,000} \right = \left \frac{1}{4} \right = 0.25$	$\left \frac{2,000}{10,000} \right = \left \frac{1}{5} \right = 0.2$
수요의 가격탄력성	$\left \frac{1}{5} \div \frac{1}{4} \right = \left \frac{4}{5} \right = 0.8$	$\left \frac{2}{5} \div \frac{1}{5} \right = 2$

- ③-6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 한다. 김밥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frac{4}{5}(=0.8)$ 이고, 1보다 작으므로 비탄력적이다. 영화 관람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이고, 1보다 크므로 탄력적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김밥은 가격의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작다.
→ 김밥은 가격의 변화율이 $\frac{1}{4}(=0.25)$ 이고 수요량의 변화율이 $\frac{1}{5}(=0.2)$ 이므로, 가격의 변화율이 수요의 변화율보다 크다.
- ② 영화 관람권은 가격의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크다.
→ 영화 관람권은 가격의 변화율이 $\frac{1}{5}(=0.2)$ 이고 수요량의 변화율이 $\frac{2}{5}(=0.4)$ 이므로, 가격의 변화율이 수요의 변화율보다 작다.
- ③ 김밥과 영화 관람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모두 1보다 작다.
→ 김밥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frac{4}{5}(=0.8)$ 이므로 1보다 작지만, 영화 관람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이므로 1보다 크다.
- ④ 김밥과 영화 관람권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
→ ③-3에 따르면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은 곧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의미한다. 김밥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frac{4}{5}(=0.8)$ 이고, 영화 관람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이므로, 이 둘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서로 다르다.

03 경제학에서의 실업

62-63쪽

1 ③ 2 ⑤ 3 ⑤

1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윗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정답인 이유

- ③ 화폐환상현상의 유형
→ ④-4에서 화폐환상현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만, 화폐환상현상의 유형을 설명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실업의 정의
→ ①-1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를 실업이라고 정의한다고 언급하였다.
- ② 실업의 발생 원인
→ ②-1에서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의 선택으로 직업이나 직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②-3에서 구조적 실업은 노동자가 공급하는 기술 수준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준 간의 불합치 때문에 발생하며, ②-5에서 경기적 실업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고용량이 줄어들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 ④ 실업의 종류에 따른 정부의 역할
→ ②-2에서 마찰적 실업은 정부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지 않음을, ②-4에서 구조적 실업은 노동자의 재교육과 같은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의 역할이 요구됨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경기적 실업에 따른 정부의 역할에 대해 ③-8에서 고전학파의 의견을, ④-7에서 케인즈학파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⑤ 명목임금의 탄력적 작용에 대한 관점 차이

→ ③-1, 5에서 고전학파는 명목임금이 탄력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고, ④-2에서 케인즈학파는 명목임금이 탄력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2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 ㄱ. 20년 가까이 카메라 필름 제조 회사에서 필름 제조 전문가로 근무하던 갑은 새로운 필름 제조 기술의 등장으로 회사의 생산 갑이 공급하는 기술 수준과 회사가 요구하는 기술 수준 간의 불합치가 일어남. 시설이 교체됨에 따라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 새로운 필름 제조 기술의 등장으로 갑이 지닌 필름 제조 기술과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술이 일치하지 않아 실업에 놓인 것이므로 구조적 실업에 해당한다(②-3).
- ㄴ. A 의류업체 직원인 을은 평소 근무하고 싶었던 B 의류업체에 직장을 바꾸기 위해 스스로 실업을 택함.서 경력 사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
→ 을이 직장을 바꾸기 위해 스스로의 선택으로 현재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둔 것이므로 마찰적 실업에 해당한다(②-1).

정답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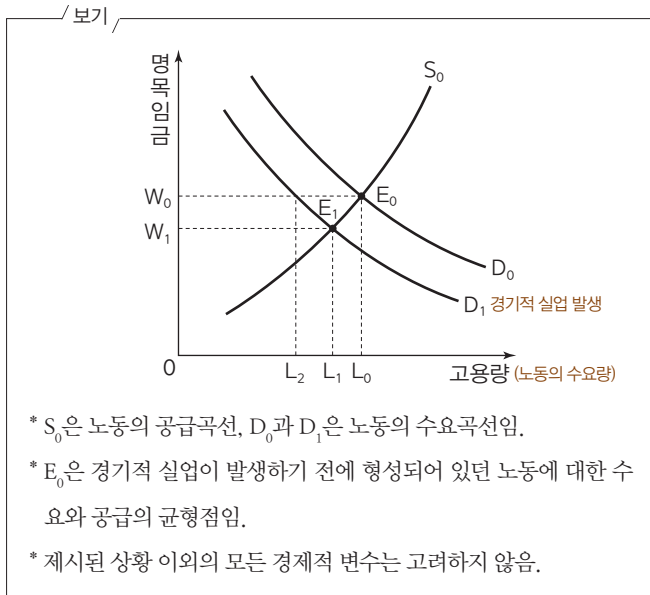
- ⑤ ㄴ과 달리 ㄱ은 노동자의 기술과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술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이겠군.
→ ㄱ(구조적 실업)은 노동자가 공급하는 기술 수준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준 간의 불합치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므로, ⑤는 적절한 진술이다(②-3).

오답 피하기

- ① ㄴ과 달리 ㄴ은 경기 침체의 영향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이겠군.
→ ㄱ은 구조적 실업, ㄴ은 마찰적 실업에 해당한다. 경기 침체의 영향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은 경기적 실업이다(②-5).
- ② ㄱ과 달리 ㄴ은 사회 전체 생산량 측면에서 큰 손실을 발생시키는 실업이겠군.
→ ㄱ은 구조적 실업, ㄴ은 마찰적 실업에 해당한다. 사회 전체 생산량 측면에서 큰 손실을 발생시키는 실업은 경기적 실업이다(②-6).
- ③ ㄱ과 달리 ㄱ은 일자리를 스스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겠군.
→ ㄱ(구조적 실업)이 아닌 ㄴ(마찰적 실업)에 대한 설명이다(②-1).
- ④ ㄴ과 달리 ㄱ은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이겠군.
→ ㄱ(구조적 실업)이 아닌 ㄴ(마찰적 실업)에 대한 설명이다(②-1).

3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는 경기적 실업을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⑤ D_0 이 D_1 로 이동하더라도 명목임금이 W_0 수준으로 유지되었다면, 케인즈학파에서는 L_0 에서 L_2 의 차이만큼 노동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겠군.
- ④-5~6에 따르면 케인즈학파에서는 화폐환상현상으로 명목임금이 하락하지 않고 경기적 실업이 발생하기 이전의 수준(W_0)과 비슷하게 유지된다면, 기업에서 노동의 수요량(고용량)을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이 지속된다고 주장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D_0 이 D_1 로 이동하여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했다면, 고전학파에서는 이를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하겠군.
- ③-1에 따르면 고전학파에서는 경기적 실업으로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일시적 현상으로 본다.
- ② D_0 이 D_1 로 이동하여 W_0 이 W_1 수준으로 하락했다면, 고전학파에서는 그 원인을 노동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경쟁 때문이라고 생각하겠군.
- ③-4~5에 따르면 고전학파에서는 경기적 실업으로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하면 노동자들이 경쟁하게 되며, 그 결과 명목임금이 탄력적으로 하락한다고 주장하였다.
- ③ D_0 이 D_1 로 이동하더라도 W_0 이 W_1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았다면, 케인즈학파에서는 그 원인을 화폐환상현상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하겠군.
- ④-2~3에 따르면 케인즈학파에서는 명목임금이 탄력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원인 중의 하나가 화폐환상현상이라고 보았다.
- ④ D_0 이 D_1 로 이동하여 실업이 발생했다면, 케인즈학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의 수요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군.

→ ④-7에 따르면 케인즈학파에서는 경기적 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가 정책을 통해 노동의 수요를 늘리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04 법률 행위로서의 계약

66~67쪽

1 ③ 2 ① 3 ③

1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인 이유

- ③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②-1에 따르면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⑥-1~2에 따르면 의사 표시의 작용이 아닌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채무 이행 불능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법률 행위가 없더라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실체법에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 ②-3에서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라 하였다. 그리고 ④-1에서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② 절차법에 강제 집행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④에 따르면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법원을 통하여 물리적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 ④-2~3에 따르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함으로써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권이 실현되도록 할 수 있다.
- ⑤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 ⑤-4에 따르면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계약은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2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① '을'의 과실로 이행 불능이 되어 '갑'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
- ㉠은 을의 과실로 그림 A가 소실됨에 따라 을이 그림 A를 갑에게 인도하여야 할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⑥-3에서 이때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고 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② ‘갑’은 소를 제기하여야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 ⑤-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매매 목적물인 그림 A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그림 A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
- ③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그림 A’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 ⑦에 따르면 원상회복 청구권은 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이미 이행된 것이 있는 경우에 계약 체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①의 상황으로 매매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 을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A가 소실되어서 갑이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그림 A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는 없다.
- ④ ‘갑’과 ‘을’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행 불능이 되었다.
 ➔ ⑤-1을 통해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매매 목적물인 그림 A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그림 A가 소실되기 전이므로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⑤ ‘을’이 ‘갑’에게 ‘그림 A’를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을’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차지 않는다~~.
 ➔ ⑤-5에서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을은 그림 A의 소실에 따른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1.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증여는 양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서로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 행위임.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2.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3. ‘유언’은 유언자 일반적인 계약(매매)과 차이점: 증여자에게만 변제 의무가 있음. 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유언은 법률 행위의 성격을 지님. 하는데,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의사 표시의 의사 표시의 합치가 필요 없음. ‘증여와 차이점’ 상대방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증여와 차이가 있다.

정답인 이유

- ③ ‘증여’는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다.
 ➔ ②-5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하였다. ①에 따르면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매매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채무와 채권을 갖게 되며, 양 당사자는 각자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변제 의무를 지게 된다. 한편 <보기>-2에 따르면 ‘증여’는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지므로, 증여자에게 변제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증여’, ‘유언’, ‘매매’는 모두 법률 행위로서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한다.
 ➔ <보기>-1에 따르면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며, 이러한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이다(②-2). 또 <보기>-3에 따르면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되며,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이다. 그리고 ①에 따르면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되며, 이는 양 당사자가 서로 채권과 채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법률 행위이다.
- ② ‘증여’와 ‘유언’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점이 공통된다.
 ➔ <보기>-2~3에 따르면 ‘증여’는 증여자가 상대방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어야 한다는 이행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다. 또한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④ ‘증여’는 당사자 일방만이 이행한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하는 관계를 갖는 ‘매매’와 차이가 있다.
 ➔ <보기>-2에 따르면 ‘증여’는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①-4에 따르면 ‘매매’는 양 당사자가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한다.
- ⑤ ‘증여’는 양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서로 합치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의사 표시의 합치가 필요 없는 ‘유언’과 차이가 있다.
 ➔ <보기>-1에 따르면 ‘증여’는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나 <보기>-3에 따르면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하고 의사 표시의 상대방이 필요 없다.

05 개인정보보호법

70~71쪽

1 ② 2 ③ 3 ④

1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②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는 과정
 ➔ ⑤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를 익명 정보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그 과정을 설명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
 ➔ ①-3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임을 설명하였다.

③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게 된 목적

➔ ②-1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을 설명하였다.

④ 개인정보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

➔ ⑥-1~2에서 개인정보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를 익명 정보가 아닌 가명 정보로 가공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음을 설명하였다.

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배경

➔ ①-1~2에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2 세부 내용 파악하기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① ㉠은 ㉡과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 ②-4~5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고, 주어진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⑤-2에 따르면 익명 정보(㉠)는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므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반면에 ⑥-3에 따르면 가명 정보(㉡)는 추가 정보와 비교적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오답 피하기

① ㉠은 익명 처리되기 전의 개인정보와 일대일로 대응한다.

➔ ⑥-5에서 가명 정보(㉡)는 익명 정보(㉠)와 달리 개인정보와 일대일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② ㉠은 이용 목적에 상관없이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 ⑥-4에 따르면 가명 정보(㉡)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될 수 있다.

④ ㉠은 ㉡과 달리 수집 목적 이외의 분야에서 활용되기 어렵다.

➔ ⑤-3에 따르면 익명 정보(㉠)는 원래의 개인정보로 복원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수집 목적 이외의 분야에서 활용되기 어렵다. 반면에 ⑥-3~4에 따르면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 또는 대체한 것이므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⑤ ㉠과 ㉡은 모두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⑥-4에 따르면 가명 정보(㉡)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또한 ⑤-2에 따르면 익명 정보(㉠)는 더 이상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윗글을 바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시 제공하는 다음 동의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주식회사 ○○(이하 '회사')는 ○○ 서비스 회원(이하 '회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의 주체

1. 수집 항목: 아이디, 비밀번호

: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

4-1. 회원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4-2.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나. 건강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수집 항목: 건강 정보

민감 정보 → 밑줄이나 큰 글씨로 강조함.

:

☐ 건강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답인 이유

④ '나'의 1은 개인의 건강 정보가 고유·식별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집 항목을 강조하여 표시한 것이겠군.

➔ ④-2에 따르면 건강 정보는 민감 정보에 해당한다. 그리고 ④-3에 따르면 민감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는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수집 항목을 밑줄이나 큰 글씨로 강조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가'에서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자, '회원'은 개인정보의 주체에 해당하겠군.

➔ ③-1~2에 따르면 '회사'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단체이므로 개인정보 처리자, '회원'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이므로 개인정보의 주체에 해당한다.

② '가'의 4-2는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보 주체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해당하겠군.

➔ '가'의 ④-2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 정보 주체인 '회원'이 받게 될 불이익 내용(서비스 이용 제한)을 고지한 것이다.

③ '가'에서 '회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회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겠군.

➔ ③-1에 따르면 사전 동의 제도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⑤ '나'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이 현저히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가'와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것이겠군.

➔ ④-1~2에 따르면 건강 정보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 정보이므로, 이를 수집할 때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배경지식 +

개인정보, 익명 정보, 가명 정보 비교

	
성명	홍길동
나이	32세
연락처	010-1234-5678
주소	서울 종로구 한글길 12

▲ 개인정보

	
성명	(삭제)
나이	30대
연락처	(삭제)
주소	대한민국

▲ 익명 정보

	
성명	홍○○
나이	30대 초반
연락처	010-****-****
주소	서울특별시

▲ 가명 정보

06 내용증명 제도

74~75쪽

1 ① 2 ⑤ 3 ④

1 전개 방식 파악하기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① 특정 제도의 특징과 기능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 ②에서 내용증명 제도가 사용되는 경우(특징)와 그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④에서 내용증명 제도의 기능과 그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특정 제도의 형성 배경과 발달 과정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내용증명 제도의 형성 배경과 발달 과정을 설명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③ 특정 제도가 지닌 문제점과 한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 내용증명 제도가 지닌 문제점과 한계를 설명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④ 특정 제도가 실시되었을 때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이 글은 이미 실시되고 있는 내용증명 제도의 특징과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 ⑤ 특정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크 속성을 유사한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 ①-1에서 상대방이 사실을 반복하거나 그런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용증명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증명의 특성을 유사한 대상에 빗대어 설명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2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인 이유

- 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 발송한 내용증명도 법적 대응 과정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②-2~3에서 내용증명은 계약을 철회 기간 내에 취소하고 싶을 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⑤-2에서 채권은 제때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그 권리가 소멸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계약 철회 기간 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내용증명을 받은 수신인은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 ④-4에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그 내용의 이행을 실현하게 한다고 하였다.
- ② 방문판매의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의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발생한다.
 ➔ ⑥-2에서 방문판매의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은 수신인의 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발송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 ③ 내용증명 발송 직후 발신인이 이를 분실한 경우 발송 우체국에서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⑥-3~4에 따르면 내용증명은 발송 후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므로, 내용증명 발송 직후에 발신인이 이를 분실한 경우에는 본인임을 입증한 다음에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내용증명을 위해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를 3부 제출하여 발신인도 그중 하나를 갖는다.
 ➔ ③-1~2에서 내용증명은 같은 내용의 문서 3부를 발신인, 수신인, 우체국이 각각 소지한다고 하였다. 즉, 발신인이 1부를 갖고, 수신인에게 1부를 보내고, 우체국에서 1부를 보관한다.

3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을은 갑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며, 해당 채무 관계의 소멸시효는 3
년으로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그런데 갑은 만료일이 다가
오도록 을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을은 주변의 조언
을 받아 2020년 10월 31일에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내어 갑에게 도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정답인 이유

- ④ 을이 이후 법적 대응을 할 뜻이 없다면 을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된다.
→ ⑤-5에 따르면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과 같은 법적 대응을 해야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따라서 을이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만료일인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을의 권리가 유지된다.

오답 피하기

- ① 을이 갑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궁극적인 목적은 소멸시효 만료를 알리기 위함이다.
→ ②-1에 따르면 내용증명은 채권·채무 관계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데 이용된다. 을이 내용증명을 보낸 궁극적인 목적은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여 갑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② 을이 보낸 내용증명으로 인해 소멸시효 만료일인 2020년 12월 31일로부터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 ⑤-5~6에 따르면 을이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6개월 이내에 법적 대응을 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인 2020년 10월 31일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③ 을이 내용증명을 소멸시효 만료 2개월 전에 보냈으므로 중단 사유 종료 후 소멸시효가 2개월 연장된다.
→ ⑤-7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일단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소멸시효 기간은 무효가 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시작된다.
⑤ 을이 2021년 6월 30일까지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하면 소멸시효는 2020년 10월 31일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
→ ⑤-5에 따르면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6개월 이내인 2021년 4월 30일까지 법적 대응을 해야만 소멸시효가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인 2020년 10월 31일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

필수 어휘 ZIP

78쪽

- 1 (1) ㉠ (2) ㉡ (3) ㉢ 2 (1) 예견된 (2) 지표 (3) 고지하였다 (4) 합치했다 3 ㉠ 4 (1) ○ (2) × (3) × (4) ○ 5 (1) 매수인 (2) 공공재 (3) 최고하다 (4) 철회 6 ㉣

III

영역별 실전 독해

과학·기술

01 푸리에의 열전도 법칙

80~81쪽

1 ㉠ 2 ㉡ 3 ㉢

1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⑤ 열의 전도는 서로 다른 물질들이 접촉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며 한 물질 안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①-4에서 열의 전도는 온도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일어나는데, 한 물질 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물질들이 접촉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고 했다.

오답 피하기

- ①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전도가 일어난다.
→ ①-3에서 전도란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열이 전달되는 현상이라고 했다.
② 음식의 조리 과정에서는 전도에 의한 열전달이 많이 일어난다.
→ ①-2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물질이 전도에 의해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물질마다 다르다.
→ ②-6에서 물질이 전도에 의해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인 열전도도는 물질마다 다르다고 했다.
④ 음식의 조리에서 단위 시간 동안 열이 전달되는 비율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 ②-1에서 열전달 과정에서 단위 시간 동안 열이 전달되는 비율인 열전달률은 음식의 조리에서 고려할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2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다음은 윗글을 읽은 건축 동아리 학생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 설계'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이다. ㉠을 활용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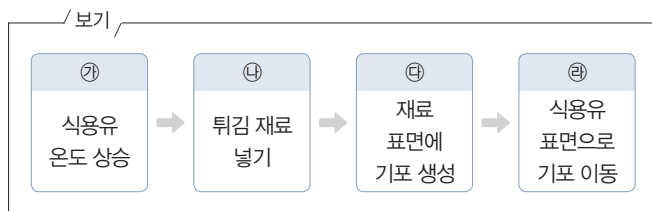
- ⑤ 부원 5: 여름철 현관문을 통한 실외 온도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현관문을 통한 열전달률을 낮춰야 하니 같은 두께라도 열전도도가 더 높은 재질의 현관문을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해야겠어.
→ ②-7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같더라도 열전도도가 높은 경우 열전달률도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열전달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같은 두께라도 열전도도가 더 낮은 재질의 현관문을 사용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부원 1: 겨울철 열손실을 줄여야 하니까 지붕을 통한 열전달률을 낮추기 위해 건물의 지붕을 일반적인 지붕의 재료보다 열전도도가 낮은 재료를 사용하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 ➡ ②-7에 따르면 열전달률은 열전도도에 비례한다. 따라서 열전달률을 낮추기 위해 일반적인 지붕의 재료보다 열전도도가 낮은 재료를 사용하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적절하다.
- ② 부원 2: 일반적으로 벽보다 창문의 열전도도가 높으니 여름철 실내 냉방 효율을 높이고 싶다면 창문을 통한 열전달률을 낮추기 위해 건물 외벽에 설치된 창문의 면적을 줄이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 ➡ ②-2~3에 따르면 전도에 의한 열전달률은 열이 전달되는 면적에 비례한다. 따라서 창문을 통한 열전달률을 낮추기 위해 창문의 면적을 줄이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적절하다.
- ③ 부원 3: 여름철 외부 온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건물 외벽을 통한 열전달률을 낮추기 위해 외벽은 일반적인 것보다 두껍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해.
- ➡ ②-2~3에 따르면 전도에 의한 열전달률은 전도가 일어나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낮아진다. 이때 외벽을 두껍게 설계한다는 것은 전도가 일어나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멀게 설계한다는 뜻이므로, 열전달률을 낮추기 위해 외벽을 일반적인 것보다 두껍게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은 적절하다.
- ④ 부원 4: 차가운 방바닥에 빠른 난방을 하려면 난방용 온수 배관에서 방바닥으로의 열전달률을 높여야 하니 난방용 온수 배관과 방바닥이 닿는 접촉 면적을 넓게 설계해야겠어.
- ➡ ②-2~3에 따르면 전도에 의한 열전달률은 열이 전달되는 면적에 비례한다. 따라서 열전달률을 높이기 위해 난방용 온수 배관과 방바닥이 닿는 접촉 면적을 넓게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은 적절하다.

3 세부 내용 파악하기

〈보기〉는 [A]의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③ ㉣에서는 열이 전달됨에 따라 튀김 재료 표면의 수분이 튀김 재료 안쪽으로 이동하겠군.

➡ ㉣에서는 식용유에서 튀김 재료로 많은 열이 순간적으로 전달되면서 재료 표면의 수분이 수증기로 변해 기포의 형태가 된다(㉢-5). 이처럼 튀김 재료에서 수분이 빠져나감에 따라 재료 안쪽의 수분들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표면 쪽으로 이동한다(㉣-2).

오답 피하기

- ① ㉠에서는 서로 다른 물질인 냄비와 식용유 사이에서 열전달이 일어나겠군.
- ➡ 열전달은 열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2). 이를 고려할 때 냄비를 가열하면 냄비에서 식용유로 열이 이동하는 열전달이 일어나 식용유의 온도가 상승할 것이다.
- ② ㉡의 결과로 ㉢가 진행되는 것은 튀김 재료에 순간적으로 많은 열이 전달되었기 때문이겠군.
- ➡ 튀김 재료를 식용유에 넣으면 재료 표면에 수많은 기포들이 형성되는데, 이는 식용유에서 튀김 재료로 순간적으로 많은 열이 전달되어 생겨난 것이다(㉢-5).
- ④ ㉣에서 ㉢로의 과정이 반복되면 튀김 재료의 수분량이 점차 줄어들겠군.
- ➡ 튀김 재료를 식용유에 넣어 재료 표면에 수많은 기포들이 생성되면, 이 기포들은 식용유 표면으로 올라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지속적으로 재료의 수분은 기포로 변하고, 이로 인해 재료의 수분량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3).
- ⑤ ㉣에서는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겠군.
- ➡ ㉢-6에서 재료 표면에 형성된 기포들은 식용유 표면으로 올라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고 이때 지글지글 소리가 난다고 했다.

02 우리 몸속의 효소 작용

84~85쪽

1 ⑤ 2 ① 3 ③

1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⑤ 효소·기질 복합체에서 분리된 효소는 다른 종류의 기질에 맞는 입체구조로 변형되어 다음 반응을 준비한다.
- ➡ ②-7~8에서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기질에만 작용(효소의 기질 특이성)한다고 했으며, 효소·기질 복합체로부터 분리된 효소는 처음과 동일한 화학적 상태로 복귀하여 다음 반응을 준비한다고 했으므로 ⑤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효소는 생체 내의 화학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 ①-5~6에서 촉매가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거나 낮추는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②-1~2에서 우리 몸의 촉매가 효소이며, 효소는 생체 내에서 화학 반응을 빠르고 쉽게 일어나게 한다고 했다.
- ② 촉매는 몸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화학 반응에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 ①-1~2에서 몸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이 촉매라고 했다.
- ③ 기질의 구조와 효소의 활성 부위의 구조가 다르면 효소 촉매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 ②-7에서 효소의 활성 부위와 기질의 3차원적 입체 구조가 맞으면 효소·기질 복합체가 형성된다고 했다. 즉, 기질의 구조와 효소의 활성 부위의 구조가 다르면 효소 촉매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 ④ 촉매 과정에서 반응물과 일시적으로 결합하는 효소는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 ②-4~5에서 각 효소는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가지며 촉매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반응물과 일시적으로 결합한다고 했다.

2 세부 내용 파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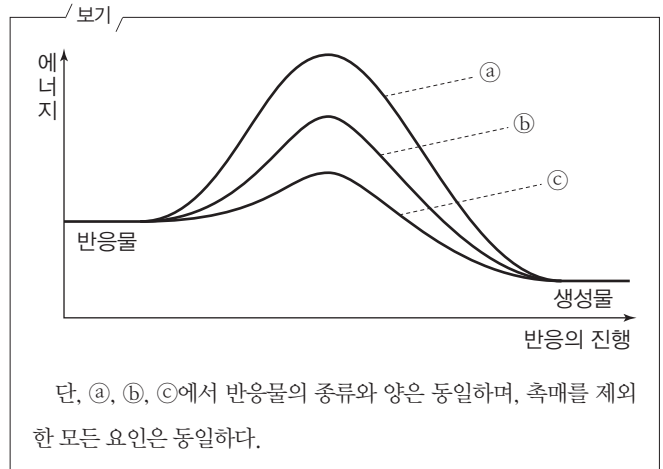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① ㉠과 달리 ㉡은 효소의 입체 구조를 변형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③-3에서 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활성 부위에 기질 대신에 결합하지만, ③-5에서 비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효소의 다른 부위에 결합하여 효소의 입체 구조를 변형시킨다고 했다.
- ② ㉠과 달리 ㉡은 효소·기질 복합체의 형성을 방해한다.
 → ③-3, 6에 따르면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 모두 효소·기질 복합체의 형성을 방해한다.
- ③ ㉠과 ㉡은 모두 기질과 유사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 ③-3에서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과 유사한 3차원적 입체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비경쟁적 저해제(㉡)는 기질과 유사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 ④ ㉠과 ㉡은 모두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곳에 결합한다.
 → ③-5에 따르면 비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효소의 다른 부위에 결합하지만, ③-3에 따르면 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활성 부위에 기질 대신에 결합한다.
- ⑤ ㉠과 ㉡은 모두 기질의 농도 증가가 저해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 ③-4에 따르면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저해 효과가 감소하지만, ③-7에 따르면 비경쟁적 저해제(㉡)는 기질의 농도가 증가해도 저해 효과가 감소하지 않는다.

3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다음은 촉매 반응을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이다.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③ 생성물을 만들어 내는 화학 반응 속도는 ㉡이 ㉠보다 빠르겠군.
 → ①-5에 따르면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 속도는 반비례한다. ㉡의 활성화 에너지가 ㉠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낮으므로, 화학 반응 속도는 ㉡이 ㉠보다 더 빠름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을 촉매가 없는 그래프라고 가정할 때, ㉡은 반응물에 부촉매를 넣은 그래프이겠군.
 → ①-6에 따르면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고, 부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을 촉매가 없는 그래프로 가정했을 때, ㉡의 활성화 에너지가 ㉠보다 낮으므로 ㉡은 반응물에 정촉매를 넣은 그래프로 볼 수 있다.
- ② ㉡을 촉매가 없는 그래프라고 가정할 때, ㉠은 반응물에 정촉매를 넣은 그래프이겠군.
 → ①-6에 따르면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고, 부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을 촉매가 없는 그래프로 가정했을 때, ㉠의 활성화 에너지가 ㉡보다 높으므로 ㉠은 반응물에 부촉매를 넣은 그래프로 볼 수 있다.
- ④ a, b, c에서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는 동일하겠군.
 →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는 a > b > c로 각기 다르다.
- ⑤ a, b, c에서 동일한 양의 생성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모두 동일하겠군.
 → ①-5에 따르면 어떤 생성물을 만드는 화학 반응의 속도는 활성화 에너지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활성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의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르고, ㉡, ㉠ 순으로 반응 속도가 느리다. 즉 동일한 양의 생성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이 가장 적게 걸리고 ㉠이 가장 오래 걸림을 알 수 있다.

1 전개 방식 파악하기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② 면역계 과민 반응의 원인을 설명하여 면역 반응에 대한 통념에 변화를 주고 있다.
- ③에서 위생가설에 따르면 바이러스를 접할 기회가 줄어든 깨끗한 환경이 오히려 면역계 과민 반응의 원인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⑥~⑦에서 장내미생물이 면역계에 미치는 긍정적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부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상태가 건강하다'라는 통념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분석하여 가설의 수정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 ⑤-④~⑤에서 면역세포들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가설의 수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 ③ 면역 반응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소개하고 각각의 관점이 지닌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 ①-③에 면역 반응이 활발하여 외부 물질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상태가 건강한 것이라는 관점이 제시되어 있고, 이와 반대로 ②-①에 면역 반응이 과도해지면 오히려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관점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각각의 관점이 지닌 한계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 ④ 면역계 과민 반응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하면서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⑦-③에 조절T세포가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인해 발생한 염증을 억제하여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만,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거나 이를 반박하지는 않았다.
- ⑤ 면역 반응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를 생성 위치에 따라 분류한 뒤 각각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있다.
- 면역 반응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인 수지상세포와 T세포를 제시했으나(⑤-②), 이를 생성 위치에 따라 분류하지는 않았다.

2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① 인체의 면역계는 과도한 면역 반응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
- ④-①~②에서 인체는 외부 물질과의 공존 속에서 면역 반응의 균형을 찾으며, 모든 외부 물질이 배척되면 면역 반응의 균형이 깨어진다는 위생가설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또 ⑥~⑦에서 외부 물질이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인체는 과도한 면역 반응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물질의 도움을 받아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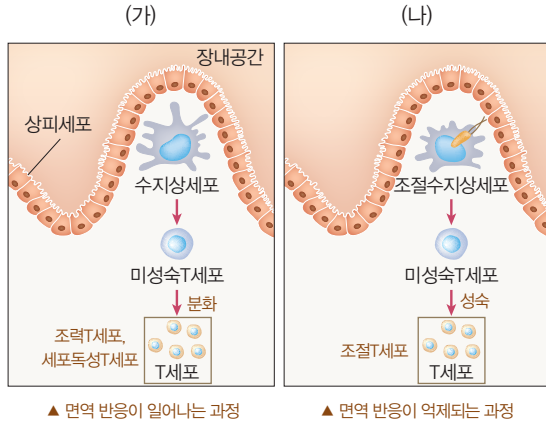
- ② 인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면역 반응의 강약이 조절되는 것을 의미한다.
- 면역 반응이 외부 물질의 침입에 저항하고 방어하는 작용을 한다는 내용(①)과 이러한 면역 반응이 과도하면 인체에 해가 된다는 내용(②), 인체가 외부 물질과의 공존 속에서 면역 반응의 강약을 조절하여 균형을 찾는다는 내용(④, ⑦)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 ③ 외부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경우도 있지만 유해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과 같은 외부 물질은 감염이나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지만(①-①~②), 면역 반응의 강약을 조절하여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장내미생물(⑦-①~②)과 같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외부 물질도 있다.
- ④ 현대 의학의 발달과 환경 개선은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된 원인에 해당한다.
- ③-④에서 위생가설에 따르면 현대 의학의 발달과 환경 개선으로 바이러스가 줄어들자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되었다고 하였다.
- ⑤ 장내미생물은 자신을 공격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면역계에 영향을 미친다.
- ⑤-④~⑤에 따르면 수지상세포는 인체에 침입한 외부 물질을 인지하여 미성숙T세포를 몸 안에 침입한 이물질을 없애는 조절T세포와 세포독성T세포로 분화시킨다. 그런데 ⑥-①~②에 따르면 장내미생물은 분화된 T세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수지상세포의 성격을 바꾸어 수지상세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든다.

3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다음은 윗글에서 설명한 면역계의 작용을 도식화한 것이다.



정답인 이유

- ⑤ (가)와 (나)의 작용은 모두 외부 물질의 유입을 막음으로써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난다.
 → (가)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⑤)을, (나)는 면역 반응이 억제되는 과정(⑥)을 도식화한 것이다. 즉 (가)의 작용만 외부 물질의 유입을 막음으로써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난다.

오답 피하기

- ① (가)의 수지상세포는 (나)의 조절수지상세포와 달리 외부 물질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인지한다.
 → 수지상세포는 인체에 침입한 외부 물질을 인지하고 미성숙T세포를 분화시켜 이물질을 없애는 역할을 하며(⑤-4~5), 조절수지상세포는 미성숙T세포를 성숙시켜 면역 반응을 억제한다(⑥-4).
- ② (가)의 T세포는 (나)의 T세포와 달리 몸 안에 침입한 이물질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
 → (가)의 T세포는 몸 안에 침입한 이물질을 없애는 조력T세포와 세포독성T세포이며(⑤-4~5), (나)의 T세포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조절T세포이다(⑥-4).
- ③ (나)의 미성숙T세포는 (가)의 미성숙T세포와 달리 두 종류의 면역세포로 분화되지 않는다.
 → (가)의 미성숙T세포는 조력T세포와 세포독성T세포로 분화되는 반면(⑤-4), (나)의 미성숙T세포는 조절T세포로 성숙된다(⑥-4).
- ④ (나)의 T세포는 (가)의 T세포와 달리 과민 면역 반응으로 발생한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 (나)의 조절T세포는 과민 면역 반응으로 발생한 염증을 억제한다고 했다(⑦-3). (가)의 조력T세포와 세포독성T세포는 몸 안에 침입한 이물질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⑤-5).

04 타워 크레인

92~93쪽

1 ⑤ 2 ① 3 ①

1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정답인 이유

- ⑤ 타워 크레인의 높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텔레스코핑 케이지의 유압 장치를 이용해 마스트를 들어 올려야 한다.
 → 타워 크레인의 높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텔레스코핑 케이지의 유압 장치를 통해 마스트가 아닌 운전실을 들어 올린 다음, 마스트와 운전실 사이의 빈 공간에 단위 마스트를 끼워 넣어야 한다(②-3).

오답 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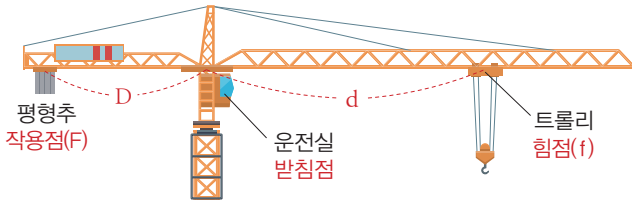
- ① 타이바는 길이가 다른 두 개의 지브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 타워 헤드에 연결된 타이바는 지브의 인장력을 보강하면서 평형 유지를 돕는다(③-1). 그리고 지브는 길이가 서로 다른 카운터 지브와 메인 지브로 구성되어 있다(③-2).
- ② 타워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중량물의 수평 이동은 트롤리와 선회 장치에 의해 이루어진다.
 → 선회 장치는 중량물을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하며(③-1), 트롤리는 메인 지브의 레일을 통해 중량물을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③-3).
- ③ 후크 블록에 여러 개의 움직도르래가 사용되면 와이어로프가 꼬여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후크 블록의 움직도르래는 와이어로프를 통해 권상 장치와 연결되어 있는데(⑤-2), 후크 블록에 움직도르래를 여러 개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닥의 와이어로프가 바람에 의해 꼬여 손상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움직도르래의 개수가 제한된다고 했다(⑤-8).
- ④ 타워 크레인이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와 내릴 때에 권상 장치에 있는 전동기의 회전 방향은 반대가 된다.
 → 권상 장치는 전동기의 회전 방향에 따라 와이어로프를 원통 모양의 드럼에 감거나 풀어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내린다(⑥-3). 따라서 타워 크레인이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와 내릴 때 전동기의 회전 방향은 반대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 생략된 정보 추론하기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① 평형추와 운전실 사이의 거리와 평형추의 무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 ④-3~4에 따르면 타워 크레인 지레의 원리에 따라 $FD = fd$ 일 때 즉, 'F(평형추의 무게) × D(평형추에서 운전실까지의 거리) = f(트롤리가 들어 올리는 중량물의 무게) × d(트롤리에서 운전실까지의 거리)'일 때 평형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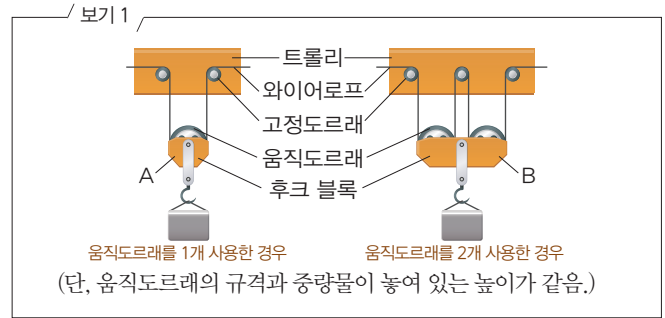
타워 크레인에서 평형추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F와 D는 일정하고 FD의 값도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메인 지브의 안쪽에서 들어 올린 중량물을 메인 지브 바깥쪽으로 이동시키면, f는 일정하지만 d가 늘어나서 fd가 FD보다 커지게 된다. 따라서 타워 크레인 메인 지브 쪽으로 기울어져 평형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② 평형추와 운전실 사이의 거리에 비해 트롤리와 운전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 평형추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평형추와 운전실 사이의 거리(D) 또한 달라지지 않는다. 이때 메인 지브의 안쪽에서 들어 올린 중량물을 메인 지브 바깥쪽으로 이동시키면, 트롤리에서 운전실까지의 거리(d)는 멀어진다.
- ③ 트롤리와 운전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점과 받침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 타워 크레인의 트롤리는 힘점, 운전실 지점은 받침점이다(④-4). 따라서 트롤리와 운전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힘점과 받침점 사이의 거리도 멀어진다는 뜻이다.
- ④ 카운터 지브에 설치된 평형추의 무게와 권상 장치에 있는 중량물의 무게의 비가 달라져서
- 카운터 지브에 설치된 평형추의 무게(F)는 고정되어 있다. 또한 메인 지브의 안쪽에서 들어 올린 중량물을 메인 지브 바깥쪽으로 이동시킨다고 해서 중량물의 무게(f)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평형추의 무게와 중량물의 무게의 비는 달라지지 않는다.
- ⑤ 트롤리가 메인 지브의 바깥쪽으로 이동할수록 평형추가 있는 카운터 지브 쪽으로 타워 크레인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 타워 크레인의 FD가 고정되어 있고, 트롤리가 메인 지브의 바깥쪽으로 이동할수록 트롤리와 운전실까지의 거리(d)가 늘어나므로 fd가 FD보다 커진다. 따라서 타워 크레인 메인 지브 쪽으로 기울어진다.

3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 생략된 정보 추론하기

[A]를 바탕으로 <보기 1>을 이해한 내용을 <보기 2>와 같이 정리할 때, (ㄱ), (ㄴ)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2

(A, B를 이용해 같은 무게의 중량물을 각각 들어 올릴 때, 권상 장치가 감아올린 와이어로프의 길이가 같다면) 권상 장치가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 사용한 힘의 크기는 (ㄱ), 들어 올린 중량물의 높이는 (ㄴ).

(S가 같다)

(: 조건)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 한 일의 양임.)

정답인 이유

- ① (ㄱ) (ㄴ)
- A가 B보다 크고 A가 B보다 높다
- ⑤-7에서 움직도르래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때마다 동일한 무게의 중량물을 같은 높이로 들어 올릴 때 권상 장치가 사용하는 힘의 크기가 감소하고, 권상 장치가 감아올리는 와이어로프의 길이는 더 길어진다고 했다. 따라서 동일한 무게의 중량물을 같은 높이로 들어 올린다면, 움직도르래를 1개 사용한 A보다 움직도르래를 2개 사용한 B가 사용한 힘의 크기가 더 작고, 감아올린 와이어로프의 길이는 더 길 것이다.
- A가 사용한 힘의 크기가 B보다 크고, <보기 2>의 조건처럼 권상 장치가 감아올린 와이어로프의 길이가 같으므로 '일의 양(W) = 줄을 당긴 힘(F) × 감아올린 줄의 길이(S)'에 의해 A가 한 일의 양이 B보다 더 많다. 따라서 동일한 중량물을 들어 올릴 경우 A가 B보다 중량물을 더 높이 들어 올렸을 것임을 알 수 있다.

05 자연어 처리 기술

96~97쪽

1 ③ 2 ④ 3 ⑤

1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③ 철차 오류 보정 방식은 각 단계마다 입력된 문장을 음절 단위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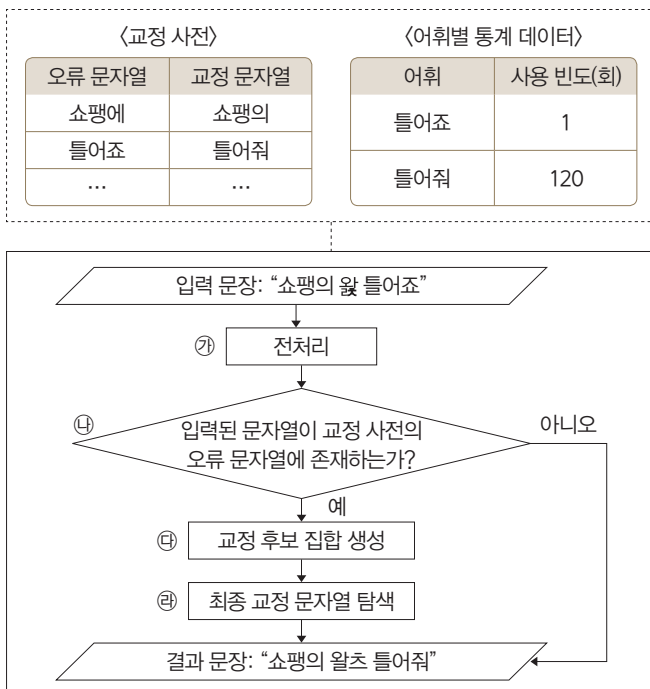
➡ ②-4~5에 따르면 철자 오류 보정 방식의 첫 번째 '전처리' 단계에서는 국어에 쓰이지 않는 음절, 즉 시스템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문자열을 처리가 가능한 문자열로 바꿔 준다. 그러나 ②-7, ③에 따르면 두 번째 '오류 문자열 판단' 단계부터는 입력된 문장을 어절 단위의 문자열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오답 피하기

- ① 잘못 입력된 문장이 보정되지 않으면 음성 언어 비서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 ①-2에 따르면 인공지능 음성 언어 비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용자의 음성이 올바르게 인식되어야 하므로, 잘못 입력된 문장이 보정되지 않으면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 ② 음성 인식 오류를 보정할 때는 사용자의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변환하는 과정이 선행된다.
➡ ①-4에 따르면 입력된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변환한 다음에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단어나 문장의 오류를 보정하게 된다.
- ④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에서 입력된 문장의 처음과 끝은 공백이 있는 것으로 처리된다.
➡ ④-6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은 통계 데이터에서 빈도수가 높은 띄어쓰기 결과에 맞춰 오류를 보정한다.
➡ ④-7~8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A]를 참고로 하여 다음의 ㉠~㉢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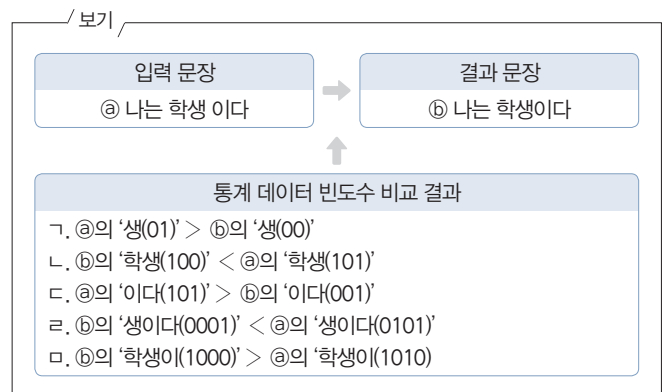


정답인 이유

- ④ ㉠: '틀어쥬'가 교정 사전의 오류 문자열에 있으므로 '틀어쥬'만으로 교정 후보 집합을 생성한다.
➡ ③-2에 따르면 '교정 후보 집합 생성' 단계에서는 오류 문자열과 교정 문자열 모두를 교정 후보로 하는 교정 후보 집합을 생성한다. 따라서 '틀어쥬'와 '틀어쥬' 모두를 교정 후보로 하는 교정 후보 집합을 생성할 것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 '왈츠'를 '왈츠'로 교정하여 처리가 가능한 문자열로 바꿔 준다.
➡ '왈츠'가 국어에 쓰이지 않는 음절이므로 '전처리' 단계에서 시스템에서 처리가 가능한 '왈츠'로 바꿔 준다(②-4~5).
 - ② ㉡: '쇼팽의'는 교정 사전의 오류 문자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과 문장으로 바로 보낸다.
➡ ②-7, ③-1에 따르면 '오류 문자열 판단' 단계에서 어절 단위의 문자열이 교정 사전의 오류 문자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바로 결과 문장으로 도출된다. 이를 고려할 때 '쇼팽의'는 교정 사전의 오류 문자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바로 결과 문장으로 도출될 것이다.
 - ③ ㉢: '틀어쥬'는 교정 사전의 오류 문자열에 해당하므로 '교정 후보 집합 생성' 단계로 보낸다.
➡ ②-7, ③-1에 따르면 '오류 문자열 판단' 단계에서 어절 단위의 문자열이 교정 사전의 오류 문자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존재할 경우에 '교정 후보 집합 생성' 단계로 넘어간다. 이를 고려할 때 '틀어쥬'는 교정 사전의 오류 문자열에 존재하므로, '교정 후보 집합 생성' 단계로 보내야 한다.
 - ⑤ ㉣: 어휘별 통계 데이터를 적용하여 사용 빈도가 높은 '틀어쥬'를 최종 교정 문자열로 선택한다.
➡ ③-5에 따르면 '최종 교정 문자열 탐색' 단계에서는 어휘별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정 후보 중 사용 빈도가 높은 문자열을 최종 교정 문자열로 선택하여 결과 문장을 도출한다. 이를 고려할 때 교정 후보 '틀어쥬'와 '틀어쥬' 가운데 어휘별 통계 데이터에서 사용 빈도가 더 높은 '틀어쥬'가 최종 문자열로 선택될 것이다.

3 생략된 정보 추론하기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ㄱ~ㄴ에서 띄어쓰기 오류 보정이 일어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⑤ ㄹ

→ ④-7~8에 따르면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에서는 입력 문장의 띄어쓰기를 이진법으로 변환한 다음, 통계 데이터와 비교하여 빈도수가 높은 띄어쓰기 결과에 맞춰 오류를 보정한다. 따라서 <보기>에서 ⑥로 띄어쓰기 오류 보정이 된 것은 ㄹ과 같이 ⑥의 '학생이(1000)'이 ⑥의 '학생이(1010)'보다 통계 데이터 빈도수가 더 높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ㄱ

→ ⑥의 '생(01)'이 ⑥의 '생(00)'보다 통계 데이터 빈도수가 높으므로, 이 경우에는 띄어쓰기 오류 보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② ㄴ

→ ⑥의 '학생(100)'이 ⑥의 '학생(101)'이 보다 통계 데이터 빈도수가 낮으므로, 이 경우에는 띄어쓰기 오류 보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③ ㄷ

→ ⑥의 '이다(101)'이 ⑥의 '이다(001)'보다 통계 데이터 빈도수가 높으므로, 이 경우에는 띄어쓰기 오류 보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④ ㄴ

→ ⑥의 '생이다(0001)'이 ⑥의 '생이다(0101)'보다 통계 데이터 빈도가 낮으므로, 이 경우에는 띄어쓰기 오류 보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06 OTP 기술

100~101쪽

1 ① 2 ① 3 ③

1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①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시간 동기화 방식에 비해 로그인 서버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 ⑥-3을 통해 이벤트 동기화 방식이 시간 동기화 방식에 비해 비밀번호 입력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비동기화 방식의 OTP 기술은 OTP발생기의 질의에 사용자가 응답값을 인증 서버에 입력해야 인증에 성공한다.

→ ②-3~4에서 비동기화 방식은 인증 서버가 질의값을 제시하면 사용자가 그 수를 OTP발생기에 입력하고, OTP발생기가 생성한 응답값을 사용자가 로그인 서버에 입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③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은 고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없다.

→ ①-2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은 고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하였다.

④ 시간 동기화 방식은 비밀번호 생성 간격을 짧게 할수록 비밀번호가 바뀌는 횟수가 감소할 것이다.

→ ④-1에서 시간 동기화 방식은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OTP발생기가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성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밀번호 생성 간격을 짧게 할수록 비밀번호가 바뀌는 횟수는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⑤ 질의 응답 방식에서 사용자가 OTP발생기에 입력한 임의의 6자리 수는 응답값과 일치할 것이다.

→ ②-3에 따르면 질의 응답 방식에서 사용자는 인증 서버가 제시한 임의의 6자리 수(질문값)를 OTP발생기에 입력하고, OTP발생기가 질문값과 다른 응답값을 생성하면 사용자가 그 값을 로그인 서버에 입력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OTP발생기에 입력한 질문값과 OTP발생기에서 생성한 응답값은 불일치할 것이다.

2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① 시간 동기화 방식에서 인증에 성공하였다면 사용자가 a에서 c로 보낸 비밀번호와 c에서 생성한 인증값은 같을 것이다.

→ ④-1에서 시간 동기화 방식의 OTP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인증 서버는 인증값을 생성한다고 하였다. 또한 ⑤에 따르면 OTP발생기에서 생성한 X_n 을 사용자가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면 로그인 서버에서 X_{n+1} 을 인증 서버로 보내고, 이를 인증 서버에서 생성한 X_{n+1} 과 비교하여 인증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인증에 성공하였다면 b에서 c로 보낸 값과 c에서 생성한 인증값이 같을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② 시간 동기화 방식에서 a와 c 사이에 시간 오차가 발생하면 a에서 생성한 비밀번호로는 인증에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 ⑥-2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서 기숫값과 카운트값을 바탕으로 a는 비밀번호를, c는 인증값을 생성할 것이다.

→ ③-2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서 a로 비밀번호를 생성하기만 하고 인증하지 않는다면 a와 c의 카운트값이 서로 달라질 것이다.

→ ③-8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서 a가 생성한 비밀번호로 인증을 받았다면 c는 카운트값을 증가시켜 다음번 인증에 반영할 것이다.

→ ③-7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사용자 A와 사용자 B는 모두 각자의 OTP발생기를 통해 ㉠2019년 3월 7일 오전 10:00에 인증을 시도하고, ㉡오전 10:30에 인증을 다시 시도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10:30에 다시 인증을 시도하였다. → 인증을 시도한 시간이 달라짐.

정답인 이유

- ③ ㉠과 ㉡에서 함수 f 를 n 번 수행한 X_n 은 같겠군.
 → ㉠-㉡에 따르면 OTP발생기는 기촉값과 인증 시도 시간을 바탕으로 r 를 구하고, r 에 대해 일방향 함수 f 를 n 번 수행하여 X_n 을 생성한다. <보기>에서 ㉠과 ㉡은 인증을 시도한 시간이 다르므로, 이를 바탕으로 구하는 r 이 달라진다. 따라서 r 에 대한 함수 f 를 n 번 수행한 X_n 도 서로 다를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에서 X_n 이 노출되더라도 r 는 알아내기가 어렵겠군.
 → ㉣에 따르면 시간 동기화 방식은 일방향 함수를 이용하는데, 일방향 함수는 결괏값(X_n)을 안다고 하더라도 입력값(r)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② ㉠과 ㉡에서 사용자 A의 r 는 서로 다르겠군.
 → ㉠-㉡에 따르면 r 은 기촉값과 인증 시도 시간을 바탕으로 구하는데, ㉠과 ㉡에서 인증 시도 시간이 다르므로 r 도 서로 다를 것이다.
 ④ ㉢에서 사용자 A와 사용자 B의 기촉값은 서로 다르겠군.
 → ㉢-㉣에서 기촉값은 사용자의 신상 정보와 해당 금융 기관의 정보 등이 반영된 고유한 값이라고 하였다. 사용자 A와 사용자 B의 신상 정보가 다르므로 기촉값은 서로 다를 것이다.
 ⑤ ㉠~㉢에서 사용자 B의 X_{n+1} 들은 서로 다르겠군.
 → ㉠~㉢은 인증 시도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r 이 달라진다. 따라서 r 에 대해 일방향 함수 f 를 $n+1$ 번 수행한 X_{n+1} 도 서로 다를 것이다.

필수 어휘 ZIP

104쪽

1 (1) ㉠ (2) ㉠ (3) ㉠ 2 (1) 척도 (2) 평형 (3) 자연어 (4) 동기화 3 ①
 4 (1) 저해하고 (2) 구축되었다 (3) 급증하고 (4) 중추적 5 ③ 6 (1) ×
 (2) × (3) ○ (4) ○

3 빈칸에는 공통적으로 '보태거나 채워서 본디보다 더 튼튼하게 하다.'를 뜻하는 '보강하다'가 들어가야 한다.

6 (1) '회물'의 뜻풀이이다. (2) '차율주행'의 뜻풀이이다.

IV

영역별 실전 독해

융합·복합

01 미술품 복원 작업

106~107쪽

1 ③ 2 ③ 3 ①

1 전개 방식 파악하기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③ 미술품 복원 작업의 특징과 과정을 서술하면서 과학적 분석 방법이 활용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에서 미술품 복원 작업의 종류별 특징을 설명하고, ㉢~㉣에서 미술품 복원 작업의 과정을 제시하면서 각 단계에서 'X선투과사진법', '형광X선분석법'과 같은 과학적 분석 방법이 활용되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미술품 복원 과정을 설명하면서 미술품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탐색하고 있다.
 → ㉢~㉣에서 미술품의 복원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미술품이 지닌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② 미술품 복원 작업의 종류를 구분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예술의 형식을 분류하고 있다.
 → ㉡에서 미술품 복원 작업의 종류를 목적에 따라 구분하고 있을 뿐, 예술의 형식을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
 ④ 미술품 복원 작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검토하며 과학적 분석 방법의 장점과 한계를 평가하고 있다.
 → ㉢-㉣에서 X선투과사진법의 장점을, ㉣-10에서 형광X선분석법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과학적 분석 방법의 한계를 평가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미술품 복원에 대한 평가가 작업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원인을 제시하고 과학적 분석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 미술품 복원 작업 방식에 따라 미술품 복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과학적 분석 방법과의 관계를 설명한 부분도 찾을 수 없다.

2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③ 허물어져 가는 벽화의 성분 분석을 할 때에는 형광X선분석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10에 따르면 형광X선분석법은 벽화나 단청처럼 측정 대상을 이동시키기 어려운 경우의 성분 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오답 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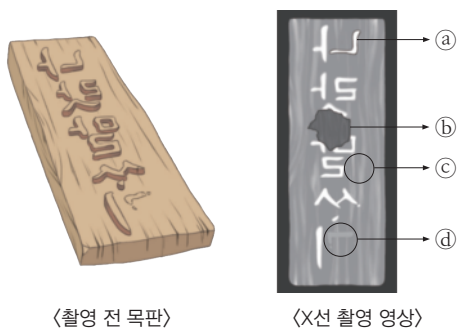
- ① 작품 보존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보존·복원** 처리 작업에 해당한다.
→ ②-2에 따르면 작품 보존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예방 보존 작업에 해당한다.
- ② 작품에 사용된 재료의 자연적 노화로 인해 발생한 작품의 손상은 **복원 작업에서 제외**된다.
→ ①-1에 따르면 미술 작품에 사용된 재료의 자연적 노화 현상으로 작품의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도 복원 작업을 한다.
- ④ 형광X선은 원소의 안쪽 전자 궤도에 위치한 전자가 X선과 충돌하여 **바깥쪽 궤도로 이동할 때** 발생한다.
→ ④-7~8에 따르면 안쪽 궤도의 전자가 X선과 충돌한 후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 자리를 바깥쪽에 위치한 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소에 따라 고유의 형광X선이 발생한다.
- ⑤ 미술 작품의 보존 작업은 작품 원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가의 의도보다 미관적인 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①-2, ②-5에 따르면 미술품 복원 작업은 미관적인 면보다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작품의 원본과 작품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존중이 요구된다.

3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영상**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밀도가 같은 동일한 재질로 이루어진 목판의 글자가 일부 손상되어 복원 작업을 하려고 한다. 목판을 복원하기 전에 'X선투과사진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영상**을 얻었다.



<촬영 전 목판>

<X선 촬영 영상>

정답인 이유

- ① ㉠~㉣ 중에서 X선의 투과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이겠군.
→ ③-6에 따르면 X선의 투과력이 감소할수록 투과율이 감소하여 물체의 영상은 필름에 하얗게 나타난다. <보기>의 ㉠~㉣ 중에서 가장 하얗게 나타난 곳은 ㉠이므로, X선의 투과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이 아닌 ㉠이다.

오답 피하기

- ② 파장이 짧은 X선을 사용할수록 ㉢은 더 검게 나타나겠군.
→ ③-4, 6에 따르면 X선은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력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투과율도 증가하여 물체의 영상은 필름에 검게 나타난다. 따라서 파장이 짧은 X선을 사용할수록 ㉢은 더 검게 나타날 것이다.
- ③ ㉡를 보니 목판에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손상 부위가 있겠군.
→ ③-7에 따르면 필름에서 흑백의 명암 차를 분석하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미술품의 손상 부위도 찾아낼 수 있다. <보기>에서 ㉡는 촬영 전 목판에서 손상을 확인할 수 없었고, X선 촬영 영상에서 다른 부위보다 어둡게 나타났다. 따라서 ㉡를 통해 목판 내부에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손상 부위가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 ④ ㉠와 ㉢의 명암 차이는 해당 부위의 목판 두께가 다르기 때문이겠군.
→ ③-4에 따르면 X선은 물체의 밀도가 크고 두께가 두꺼울수록 투과력이 감소하고, ③-6에 따르면 X선의 투과력이 감소할수록 투과율도 감소하여 물체의 영상은 필름에 하얗게 나타난다. <보기>를 보면 밀도가 같은 동일한 재질로 이루어진 목판에서 ㉠가 ㉢보다 하얗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의 X선 투과율이 ㉢보다 낮으며, 이는 ㉠ 부위의 두께가 ㉢보다 두껍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⑤ ㉣는 목판의 해당 부위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보다 검게 나타난 것이겠군.
→ ㉣는 목판의 글자 일부가 손상된 부위이다. ③-4, 6을 통해 ㉣가 ㉠보다 검게 나타난 것은 ㉣의 X선 투과율이 ㉠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가 목판의 손상으로 ㉠보다 목판의 두께가 얇아졌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02 연관성 분석

111~112쪽

1 ② 2 ⑤ 3 ② 4 ② 5 ②

1 전개 방식 파악하기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② 연관성 분석이 사태에 따라 변천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①-1에서 엄청난 양의 자료가 생성·축적되는 현대 사회에서 연관성 분석이 널리 쓰이고 있다고 언급하였지만, 연관성 분석의 시대 변천 과정을 설명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연관성 분석에 쓰이는 축도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②~④에서 연관성 분석에 쓰이는 축도인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를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 ③ 시차 연관성 분석의 특징과 분석에 필요한 요소들을 밝히고 있다.
- ➡ ⑥-2~4에서 시차 연관성 분석의 특징을 제시하고, ⑥-5~6에서 시차 연관성 분석을 하기 위해 사건의 발생 시간이나 순서에 대한 정보와 분석 대상의 식별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 ④ 연관성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 ⑤-2에서 연관성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소지지도 가지치기를 언급하였다.
- ⑤ 다양한 분석 기법이 여러 분야에서 널리 쓰이게 된 사회적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 ➡ ①-1~2에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엄청나게 많이 생성·축적되는 자료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 기법이 쓰인다고 하였다.

2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인 이유

- ⑤ 연관성 분석에서 분석하려는 품목을 상위 품목으로 일반화하면 연관 규칙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 ➡ ⑤-2~3에 따르면 연관성 분석에서 연관 규칙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분석 품목을 상위 품목으로 일반화하는 최소지지도 가지치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분석 품목을 상위 품목으로 일반화하면 연관 규칙의 수가 줄어든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연관성 측도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발생 빈도이다.
- ➡ ②-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향상도가 1이라는 것은 조건과 결과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의미이다.
- ➡ ④-4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연관성 분석은 결과가 명확하고 유용한 연관 규칙의 형태로 주어지는 장점이 있다.
- ➡ ⑤-1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최소지지도 가지치기에는 지지도가 낮은 품목을 분석 대상에서 삭제하는 방법이 있다.
- ➡ ⑤-3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윗글의 <표>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② '휴지 → 우유'의 신뢰도가 100%인 것은 '우유'를 구매한 모든 경우에 '휴지'를 구매한 것을 의미한다.
- ➡ ③-1~2에 따르면 'X → Y'의 신뢰도는 X(조건)의 구매가 발생하였을 때 Y(결과)의 구매가 일어날 확률로, X와 Y를 모두 구매하는 거래의 수를 X를 구매하는 거래의 수로 나눈 값이다. <표>에서 '휴지 → 우유'의 신뢰도가 2/2(100%)인 것은 '휴지'를 구매한 모든 경우에 '우유'도 구매했음을 의미한다.

오답 피하기

- ① '빵 → 생수'가 '빵 → 휴지'의 지지도보다 높은 것은 '빵'을 '생수'와 함께 구매한 경우가 '빵'을 '휴지'와 함께 구매한 경우보다 많은 것을 의미한다.
- ➡ ②-4에 따르면 지지도가 높다는 것은 조건과 결과에 있는 품목들의 동시 구매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에서 '빵 → 생수'의 지지도는 2/5(40%)이고, '빵 → 휴지'의 지지도는 1/5(20%)이다. 이는 '빵'과 '생수'의 동시 구매가 '빵'과 '휴지'의 동시 구매보다 더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생수 → 빵'과 '생수 → 우유'는 '생수 → 휴지'보다 신뢰도가 높다.
- ➡ 생수를 구매한 세 번의 거래 중에서 빵, 우유는 각각 두 번 샀고, 휴지는 한 번만 샀다. 따라서 '생수 → 빵'과 '생수 → 우유'의 신뢰도는 모두 2/3이고, '생수 → 휴지'의 신뢰도는 1/3로, 전자의 신뢰도가 더 높다.
- ④ '우유 → 생수'의 지지도와 '생수 → 우유'의 지지도는 같다.
- ➡ ②-7에 따르면 'X → Y'와 'Y → X'의 지지도는 같다. <표>에서 '우유'와 '생수'를 모두 산 경우는 다섯 번의 거래 중 두 번이므로, '우유 → 생수'와 '생수 → 우유'의 지지도는 2/5(40%)로 같다.
- ⑤ '빵 → 세제'의 신뢰도와 '세제 → 빵'의 신뢰도는 다르다.
- ➡ 빵을 구매한 네 번의 거래 중에서 두 번만 세제를 샀으므로 '빵 → 세제'의 신뢰도는 2/4(50%)이고, 세제를 구매한 두 번의 거래에서 모두 빵을 샀으므로 '세제 → 빵'의 신뢰도는 2/2(100%)이다. 따라서 전자와 후자의 신뢰도는 다르다.

4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A]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어느 매장에서 고객들이 팔빙수를 만들기 위해 구매한 팔(A), 인절미(B), 콩가루(C)의 전체 거래 정보에 대해 연관성 분석을 하였다. 다음은 이를 통해 발견한 연관 규칙의 일부이다.

연관 규칙 (X → Y)	기대 신뢰도	신뢰도	향상도	
A → B	42.5%	55.6%	1.308	㉠
B → C	40.0%	35.3%	0.883	㉡
C → A	45.0%	50.0%	1.111	㉢
:	:	:	:	

정답인 이유

- ② ㉠의 연관 규칙에서 B를 구매했을 때 C를 구매할 확률은 전체 거래에서 C를 구매할 확률보다 작군.
- 신뢰도 기대 신뢰도
- ➡ 'B를 구매했을 때 C를 구매할 확률'은 'B → C'의 신뢰도(③-1)를 의미하고, '전체 거래에서 C를 구매할 확률'은 'B → C'의 기대 신뢰도(④-3)를 의미한다. ㉠의 연관 규칙의 신뢰도(35.3%)는 기대 신뢰도(40.0%)보다 작다.

오답 피하기

- ① ㉔의 연관 규칙에서 B를 포함하는 거래의 수를 전체 거래의 수로 나눈 값은 ㉔의 연관 규칙에서 A를 포함하는 거래의 수를 전체 거래의 수로 나눈 값보다 기대 신뢰도 크다.
- ㉔-3에서 'X → Y'에서 Y를 포함하는 거래의 수를 전체 거래의 수로 나눈 값이 기대 신뢰도라고 하였다. ㉔의 연관 규칙의 기대 신뢰도(42.5%)는 ㉔의 연관 규칙의 기대 신뢰도(45.0%)보다 작다.
- ② ㉔의 연관 규칙의 신뢰도는 ㉔의 음의 연관 규칙의 신뢰도보다 기대 신뢰도 크다.
- ㉔-12에 따르면 음의 연관 규칙의 신뢰도는 100%에서 신뢰도를 뺀 값이므로, ㉔의 음의 연관 규칙의 신뢰도는 64.7%가 된다. ㉔의 연관 규칙의 신뢰도(35.3%)는 ㉔의 음의 연관 규칙의 신뢰도(64.7%)보다 작다.
- ④ ㉔의 연관 규칙이 ㉔의 연관 규칙보다 마케팅 전략에 바로 적용하여 활용하기에 유용하겠군.
- ㉔-5~7에서 향상도가 1보다 클 때에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향상도가 1보다 작을 때에는 마케팅 전략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㉔의 연관 규칙의 향상도는 0.883이고 ㉔의 연관 규칙의 향상도는 1.308이므로, ㉔의 연관 규칙이 ㉔의 연관 규칙보다 마케팅 전략에 바로 적용하여 활용하기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 ⑤ ㉔의 연관 규칙을 음의 연관 규칙인 'A → C'로 전환하면 더욱 유용하게 쓸 수 있겠군.
- ㉔-5~8에 따르면 ㉔의 연관 규칙의 향상도는 1보다 크므로 음의 연관 규칙으로 전환하지 않고 마케팅 전략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㉔-12에 따르면 ㉔의 연관 규칙(C → A)의 음의 연관 규칙은 'A → C'가 아니라 'C를 사면 A를 사지 않는다.'이다.

5 단어의 의미 파악하기

㉔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② 시험이 끝난 학생들이 방학 계획을 세웠다.
- ㉔는 '계획, 방안 따위를 정하거나 짜다.'의 뜻으로 쓰였다. ㉔에서 '세우다' 역시 이와 유사한 의미로 쓰였다.

오답 피하기

- ① 변호사는 그를 증인으로 세웠다.
- 여기서 '세우다'는 '어떤 역할을 맡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③ 과장은 회사의 실적을 올리는 데 공을 세웠다.
- 여기서 '세우다'는 '공로나 업적 따위를 이룩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④ 목수는 목재를 잘 자르기 위해 톱날을 세웠다.
- 여기서 '세우다'는 '무딘 것을 날카롭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⑤ 우리 학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전통을 세웠다.
- 여기서 '세우다'는 '질서나 체계, 규율 따위를 올바르게 하거나 짜다.'의 의미로 쓰였다.

03 가 사랑에 관한 아퀴나스의 관점 나 사랑에 관한 칸트의 관점

116~117쪽

1 ② 2 ③ 3 ⑤

1 전개 방식 파악하기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② (가)와 (나)는 모두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가)는 '사랑'과 '선(㉑-2~3)', '정념(㉑-2)'의 개념을 정의하며 사랑에 관한 아퀴나스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과 '실천적 차원의 사랑'(㉑-2), '선의지(㉑-2)', '의무(㉑-4)'의 개념을 정의하며 사랑에 관한 칸트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가)와 (나)는 모두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가), (나) 모두 해당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두 가지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다.
- (가), (나) 모두 해당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두 가지 관점을 절충하며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가), (나) 모두 해당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특정 학자의 견해가 지닌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 (가), (나) 모두 해당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세부 내용 파악하기

(가)와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③ (가)의 아퀴나스는 사랑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고, (나)의 칸트는 사랑이 인간에게 도덕법칙을 의무로 부여한다고 보았다.
- (가)의 ㉑-2~3에 따르면 아퀴나스는 선을 좇는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 행위의 원천이 사랑이며, 이때 선이란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아퀴나스가 사랑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의 ㉑-3에 따르면 칸트는 사랑이 아닌 이성인 인간에게 도덕법칙을 의무로 부여한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가)의 아퀴나스는 인간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고, (나)의 칸트는 인간에게 그 자체로 선한 선의지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 (가)의 ②-5에서 아퀴나스가 지성으로 선악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나)의 ②-1~2에서 칸트가 인간을 그 자체만으로 조건 없이 선한 선의지를 지닌 존재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 ② (가)의 아퀴나스는 모든 정념이 사랑을 전제한다고 보았고, (나)의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명령을 통해 일으킬 수 없다고 보았다.
 → (가)의 ③-2에서 아퀴나스는 사랑을 전제하지 않는 정념은 없다고 했다. (나)의 ③-1에서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의무로 강제하거나 명령을 통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 ④ (가)의 아퀴나스는 사랑을 욕구와의 관계에 따라 설명하였고, (나)의 칸트는 사랑을 감성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 (가)의 ①-2, ③에서 아퀴나스는 선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를 통해 사랑을 설명했다. (나) ①-1~2에서 칸트는 사랑을 감성적 차원의 사랑과 실천적 차원의 사랑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 ⑤ (가)의 아퀴나스는 인간의 사랑이 자신에게 선인 것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한다고 보았고, (나)의 칸트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덕법칙이 있다고 보았다.
 → (가)의 ③-6에서 아퀴나스는 인간의 사랑은 자신에게 선인 것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한다고 했다. (나)의 ②-5에서 칸트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덕법칙이 있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3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갑은 잠에서 깨어나 방 안 가득한 카레 냄새를 맡고 카레가 먹고 싶어져 식탁으로 갔다. 그런데 오늘 예정된 봉사 활동에 늦지 않기 위해 카레를 먹지 않기로 하고 봉사 활동을 하러 갔다. 봉사 활동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카페에 들렀더니 진열장에 시원한 생수와 맛있는 케이크가 있었다. 그것들을 보니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지만 생수를 먼저 주문해 마신 후, 케이크를 주문해 먹었다. 그러다 갑 아퀴나스: 케이크를 먼저 먹는 것보다 생수를 먼저 마시는 것이 더 선이라고 판단함. 은 카페에 들어오는 이성인 을의 미소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평소 칸트: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린 감성적 차원의 사랑 갑은 부끄러움이 많았지만 용기를 내어 을에게 다가갔다. 칸트: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려 행동함.

정답인 이유

- ⑤ 칸트에 따르면, 갑이 을에게 다가간 것은 감성적 차원의 사랑에서 실천적 차원의 사랑으로 나아간 것이겠군.
 → (나)의 ①-2에서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인간의 경향성에 근거한 사랑이며, 실천적 차원의 사랑은 의무로서의 사랑이라 설명하였다. <보기>에서 갑이 을에게 첫눈에 반해 다가간 것은 인간의 경향성에 이끌려 한 행동이므로 감성적 차원의 사랑을 실천한 것일 뿐, 실천적 차원의 사랑과는 관련이 없다.
- 오답 피하기
- ① 아퀴나스에 따르면, 갑이 카레가 먹고 싶어진 것은 카레 냄새에 의해 촉발된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가겠군.
 → (가)의 ②-2에 따르면 아퀴나스는 인간의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는 대상에 의해 촉발되어 이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보기>에서 갑이 카레 냄새를 맡고 카레가 먹고 싶어진 것은 카레 냄새에 의해 촉발된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다.
- ② 아퀴나스에 따르면, 갑이 카레를 먹지 않은 것은 지성이 카레를 먹는 것을 선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 (가)의 ②-4~6에 지적 욕구는 지성에 의해 선으로 이해된 것을 추구하며 선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아퀴나스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보기>에서 갑은 카레가 먹고 싶어지만 예정된 봉사 활동에 늦지 않기 위해 카레를 먹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아퀴나스의 관점에서 보면, 갑이 카레를 먹지 않은 것은 지성에 의해 카레를 먹는 것을 선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③ 아퀴나스에 따르면, 갑이 생수와 케이크 중 생수를 먼저 주문해 마신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더 선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이겠군.
 → (가)의 ③-3~5에 따르면 아퀴나스는 여러 대상에 대한 감각적 욕구들이 동시에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추구할 감각적 욕구를 지성에 의해 판단하고 가장 선이라고 이해된 것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보기>에서 갑이 생수를 먼저 주문한 것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더 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④ 칸트에 따르면, 갑이 을의 미소에 첫눈에 반한 것은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린 것이겠군.
 → (나)의 ③-1에서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욕구나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리는 감정이라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보기>에서 갑이 을의 미소에 첫눈에 반한 것은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린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1 전개 방식 파악하기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㉓ 근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 (가)는 합리적이라고 여겨졌던 이성을 도구로 한 근대 사회의 폭력성과 비합리성을 비판한 아도르노의 주장(㉕)을, (나)는 근대 이성을 맹신한 결과 전쟁의 비극과 물질문명의 병폐를 겪은 유럽의 젊은 예술가들이 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표현주의(㉑)를 설명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㉑ 근대 사회에 내재된 여러 문제와 이의 해결 방안을 분석하고 있다.
 ➡ (가)의 ㉓-4~5, ㉔-4~5, ㉕-2와 (나)의 ㉑-2에 근대 사회에 내재된 여러 문제가 제시되었으나, (가)와 (나) 모두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 ㉒ 근대 사회가 발전하게 된 과정을 예술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 (가)와 (나) 모두 해당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㉔ 근대 사회의 특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분석한 두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가)와 (나) 모두 해당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㉕ 근대 사회의 과학 혁명을 이어 가기 위한 당시 사람들의 노력을 설명하고 있다.
 ➡ (가)와 (나) 모두 해당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세부 내용 추론하기

(가)에서 ㉑과 같이 말한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㉑ 인류의 진보를 지향했던 계몽주의가 인류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역행한 것을 경고하고 있다.
 ➡ ㉑은 계몽주의에 대한 아도르노의 관점을 집약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다. ㉑-1에서 계몽주의는 합리적 이성을 통해 인류의 진보를 꾀하려 한 이념이라 하였다. 그러나 ㉕-1~2에서 아도르노는 이성에 의한 계몽의 전개 과정의 결과 오히려 근대 문명이 파국으로 치달게 되었다고 했으며,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나치즘에 나타난 이성의 폭력성과 비합리성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아도르노의 관점을 고려할 때 ㉑의 의도로는 ㉒의 내용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㉑ 계몽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시 자연으로 회귀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을 옹호하고 있다.
 ➡ (가)에 해당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㉑은 아도르노의 관점과 거리가 멀다.

- ㉓ 신화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이성의 힘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아도르노는 인간이 미신과 환상에서 벗어나 자연에 대한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무기로 자연을 지배하게 되었다(㉒-3~4)고 하였다. 또한 인간에 대한 지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성이 인간과 자연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적 이성으로 변질되어 사회 전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사용된 것(㉕)을 비판하였으므로, ㉓은 아도르노의 관점과 거리가 멀다.

- ㉔ 인간 소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인간의 집단적 힘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 아도르노는 계몽의 결과, 인간이 자기 소외를 겪게 되었다(㉔-4~5)고 했을 뿐,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이 자연에 맞서는 집단적 힘을 통해 자연을 지배하고(㉒-4), 인간에 대한 지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회가 전체주의적 경향을 띠는 것(㉓-5)을 비판하였으므로, ㉔은 아도르노의 관점과 거리가 멀다.

- ㉕ 근대 문명의 추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㉕-1에서 아도르노는 인간의 자기 보존에서 시작된 계몽의 결과 근대 문명이 파국으로 치달게 되었다고 비판하였으므로, ㉕은 아도르노의 관점과 거리가 멀다.

3 세부 내용 파악하기

(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㉓ 마티스에 의하면 표현의 의미는 눈으로 본 것을 눈에 전달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 ㉒-3에서 마티스가 표현을 '눈으로 본 것을 눈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낀 것을 마음에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㉑ 근대 이성애 회의를 느낀 유럽인들은 인간 실존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 (나)의 ㉑-2에서 근대 이성이 불러온 여러 부정적 결과 때문에 이성애 회의감을 느끼게 된 유럽인들이 인간의 실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㉒ 표현주의는 전쟁을 경험한 독일의 젊은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등장한 예술 운동이다.
 ➡ (나)의 ㉑-3에서 표현주의는 전쟁을 겪은 독일의 젊은 예술가들이 근대 이성의 그늘에 가려 소외되어 왔던 인간의 내면을 회화를 통해 분출하고자 한 예술 운동임을 확인할 수 있다.
- ㉔ 표현주의는 대상의 외면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감정까지 다루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 (나)의 ㉔-1에서 표현주의는 회화의 영역을 대상의 외면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내면까지 확장시킨 운동으로 평가받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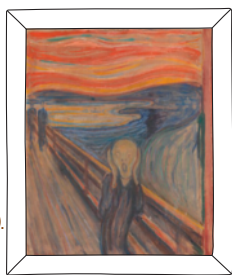
- ⑤ 표현주의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 혁신적인 예술 운동이었다.
- ㉠ (나)의 ㉡-4에서 표현주의가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려는 회화의 전통적 규범을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표현주의를 혁신적 예술 운동인 아방가르드 운동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4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가)의 '아도르노'와 (나)의 '표현주의'의 관점에서 <보기>의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¹표현주의 작가인 몽크의 작품 <절규>에서는, 해골의 형상을 한 남자가 공포에 가득 찬 표정으로 귀를 틀어막으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²그 뒤로 핏빛으로 물든 하늘과 검은색 강물을 꿈틀거리듯 화가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색과 형태가 왜곡됨(나) ㉢-1). 왜곡하여 표현함으로써 존재의 허무감에서 오는 불안과 고통을 감상자들이 <절규>의 주제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몽크, <절규>

정답인 이유

- ④ (나): 비명을 지르는 남자의 모습을 회화적 전통에 따라 표현함으로써 감상자도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 (나)의 ㉡-4에서 회화의 전통적 규범은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인데, 표현주의는 이러한 규범을 거부했다고 했다. 따라서 표현주의 작품인 <절규>가 비명을 지르는 남자의 모습을 회화적 전통에 따라 표현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가): 작가가 표현하려고 한 감정은 근대 이성에 의해 억눌려 온 인간의 내적 자연으로 볼 수 있겠군.
- ㉠ <보기>-2에 따르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한 감정은 '존재의 허무감에서 오는 불안과 고통'이다. 이러한 감정은 아도르노에 따르면 근대 이성에 의해 억눌려 온 인간의 내면에 있는 자연적 요소인 내적 자연에 해당한다(가) ㉡-2~3).
- ② (가): 작가가 전달하는 불안과 고통은 이성이 팽배했던 근대 사회에서 한 개인이 느꼈던 존재의 허무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 <보기>의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불안과 고통은 (가)의 ㉡-4~5에서 아도르노가 설명한, 근대 사회에서 이성을 통한 폭력적 지배의 결과로 인간이 겪게 된 존재의 허무감이나 자기 소외로 인한 불안, 절망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나): 해골 형상과 꿈틀거리는 강물은 작가가 느끼는 공포를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형태를 왜곡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나)의 ㉡-1에서 표현주의는 작가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대상의 색이나 형태가 왜곡되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고 했다. 이를 고려할 때 <절규>에서 표현한 남자의 해골 형상이나 꿈틀거리는 강물은 작가의 공포를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형태를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나): 강물의 검은색은 실제 색이라기보다는 작가가 느끼는 고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선택한 색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 (나)의 ㉡-3에서 표현주의 작품에서는 사물의 고유한 색이 무시된 채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 작가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색을 사용한다고 했다. 따라서 강물의 검은색은 실제 색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는 작가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 작가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색이라고 볼 수 있다.

필수 어휘 ZIP

126쪽

- 1 (1)㉠ (2)㉡ (3)㉢ 2 (1)국한하다 (2)귀결되다 (3)투과하다 (4)알레고리 3 ㉤ 4 (1)미명 (2)병폐 (3)집약적 5 (1)× (2)× (3)○ (4)○ 6 ㉣

- 5 (1) '예후'의 뜻풀이이다. '징후'는 '겉으로 나타나는 낱새'를 의미한다. (2) '함구하다'의 뜻풀이이다. '항거하다'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맞서서 반항하다.'를 의미한다.
- 6 <보기>에서 '전락하다'는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지다.'의 의미로 쓰였다. 그러나 ㉣에서 '전락하다'는 '아래로 굴러떨어지다.'의 의미로 쓰였다.

그림·사진 자료 출처

• BOOK 1

68, 69, 72, 76, 77, 111쪽 아바타 이모티콘_©Getty Images Bank
68쪽 사법부 CI_©2016 SUPREME COURT OF KOREA

• 정답과 해설

17쪽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 아이콘_©PureSolution/shutterstock
17쪽 사람 아이콘 모음_©Iana rinck/shutterstock

2

기출 독해 훈련

정답과 해설

BOOK 2 / 문제 유형

BOOK 1 / 지문 독해 1

BOOK 2 / 문제 유형 33

● 문제 유형	34
I 인문·예술	37
II 사회·문화	51
III 과학·기술	66
IV 융합·복합	82



01 글의 내용 파악하기

11쪽

〔기출로 연습하기〕 1 ⑤

1 윗글에서 언급된 ‘섬유 예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⑤ 순수한 미의식을 배제하고 고정 관념에서 벗어난 예술을 지향한다.
 ➔ ③-4에 따르면 섬유 예술 기법인 콜라주와 아상블라주는 순수 조형미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섬유 예술이 순수한 미의식을 배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섬유를 예술성을 지닌 심미적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 ②-2에서 올덴버그가 공예의 한 재료였던 가죽을 예술성을 구현하는 오브제로 활용하여 섬유를 심미적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올덴버그를 통해 조형 예술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 ②-1에서 ‘로잔느 섬유 예술 비엔날레전’에 전시된 올덴버그의 〈부드러운 타자기〉를 계기로 섬유 예술이 새로운 조형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섬유의 오브제로서의 기능을 자각하면서 시작되었다.
 ➔ ①-3에서 섬유 예술이 섬유가 예술성을 지닌 오브제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바스켓트리는 섬유의 특성을 활용하여 조형성을 구현한다.
 ➔ ③-2에서 바스켓트리가 섬유의 특성을 활용하여 꼬기, 엮기, 짜기 등의 방식으로 예술적 조형성을 구현하는 기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02 전개 방식 파악하기

13쪽

〔기출로 연습하기〕 2 ⑤

2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⑤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고 그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의미를 밝히고 있다.
 ➔ 이 글은 ①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소개하고, 그런 뒤 ②~③에서 목적론에 대한 근대 사상가들의 비판과 이에 대한 현대 사상가들의 반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④~⑤에서 엠펬도클레스의 견해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반박을 서술하며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목적론이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과학적 탐구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대립되는 두 이론을 소개하고 각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②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대한 근대 사상가들의 비판을 제시했으나, 이를 목적론에 대립하는 이론을 소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각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
- ② 특정 이론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여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②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대한 근대 사상가들의 비판이 나타나 있지만 이를 목적론에 대한 상반된 주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 않다.
- ③ 특정 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②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대한 근대 사상가들의 비판을 제시하고, ③에서 이에 대한 일부 현대 학자들의 비판을 다시 언급하고 있어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새로운 이론을 도출한 것은 아니다.
- ④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시대순으로 제시하여 그 이론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②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대한 근대 사상가들의 비판이 나타나 있으나 이를 시대순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며, 또한 이를 통해 목적론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03 생략된 정보 추론하기

15쪽

〔기출로 연습하기〕 3 ②

3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A~C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기 /

특징점으로 선택되는 점들과 주위 점들의 밝기 차이가 (A),
 영상이 흔들리기 전의 밝기 차이와 후의 밝기 차이 변화가 (B)
 특징점의 위치 추정이 유리하다. 그리고 특징점들이 많을수록 보정에 필요한 (C)이/가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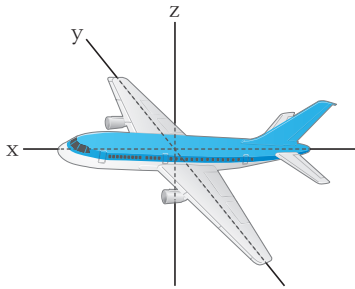
정답인 이유

- ② A B C
 클수록 작을수록 시간
- ➔ ②-5에 따르면 ‘주위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되며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되는 부분이 특징점으로 선택된다. 따라서 특징점으로 선택되는 점들과 주위 점들의 밝기 차이가 클수록(A), 영상이 흔들리기 전후의 밝기 차이 변화가 작을수록(B) 특징점의 위치 추정이 유리하다. 한편 ③-4에서 ‘특징점의 수가 늘어날수록 연산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하였으므로, 특징점들이 많을수록 보정에 필요한 시간(C)은 늘어난다.

[기출로 연습하기] 4 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현재 비행기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x축 방향으로 직선 운동하고 있으며, 이때 관성 항법 장치의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는 정상 작동하고 있다.

정답인 이유

- ⑤ 비행기가 왼쪽으로 선회하면서 속도와 각의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 가속도 센서는 속도 변화를, y축을 기준으로 한 비행기의 회전 운동을 감지하는 자이로스코프는 각의 변화를 감지하겠군.
- ➡ ③에 따르면 비행기가 속도 변화와 각의 변화를 동반한 운동을 할 경우 가속도 센서는 속도를, 자이로스코프는 각의 변화를 감지한다. ②-3에서 비행기가 좌우로 선회하는 경우는 '동체의 윗부분에서 수직으로 아랫부분까지'를 회전축으로 하는 회전 운동이라고 하였으므로, <보기>의 비행기가 왼쪽으로 선회하는 경우의 회전 운동은 y축이 아니라 z축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비행기의 앞머리가 들리는 경우, y축을 기준으로 한 비행기의 회전 운동을 감지하는 자이로스코프가 각의 변화를 감지하겠군.
- ➡ ②-2에서 운항 중인 비행기의 머리 부분이 위로 들리는 것은 '비행기의 한 쪽 날개 끝에서 반대쪽 날개 끝'을 회전축으로 한 회전 운동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때의 회전 운동은 <보기>의 y축을 기준으로 하며, 자이로스코프는 비행기의 회전 운동을 감지하여 각의 변화를 측정하므로 ①의 이해는 적절하다.
- ② 비행기가 좌우로 기울어지는 경우, x축을 기준으로 한 비행기의 회전 운동을 감지하는 자이로스코프가 각의 변화를 감지하겠군.
- ➡ ②-2에서 운항 중인 비행기가 좌우로 기울어지는 것은 '맨 앞부분에서 꼬리까지'를 회전축으로 한 회전 운동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때의 회전 운동은 <보기>의 x축을 기준으로 하며, 자이로스코프는 비행기의 회전 운동을 감지하여 각의 변화를 측정하므로 ②의 이해는 적절하다.
- ③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갑자기 선회하는 경우, z축을 기준으로 한 비행기의 회전 운동을 감지하는 자이로스코프가 각의 변화를 감지하겠군.
- ➡ ②-3에서 운항 중인 비행기가 좌우로 선회하는 경우는 '동체의 윗부분에서 수직으로 아랫부분까지'를 회전축으로 한 회전 운동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때의 회전 운동은 <보기>의 z축을 기준으로 하

며, 자이로스코프는 비행기의 회전 운동을 감지하여 각의 변화를 측정하므로 ③의 이해는 적절하다.

- ④ 비행기가 x축 방향으로 수평을 유지한 채 수직으로 하강하는 경우, z축을 기준으로 한 직선 운동을 감지하는 가속도 센서가 이동 거리와 속도를 측정하겠군.

➡ 비행기가 수평을 유지한 채 수직으로 하강하는 경우는 수직으로 직선 운동을 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①-5의 내용으로 볼 때, 수직으로 직선 운동을 하는 비행기의 회전축은 '비행기 동체의 윗부분에서 수직으로 아랫부분까지'를 기준으로 한 수직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때의 직선 운동은 <보기>의 z축을 기준으로 하며, ①-2에서 가속도 센서는 비행기의 직선 운동에 의한 속도와 이동 거리의 변화를 감지한다고 하였으므로 ④의 이해는 적절하다.

05 글의 내용 및 관점 파악하기

[기출로 연습하기] 5 ⑤

5 윗글의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⑤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해도 중심부 지식 중에는 주변부 지식들과 종류가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
- ➡ ③-2~4에 따르면 과인의 총체주의는 지식을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으로 상정할 뿐, 이 둘을 다른 종류라고 보지 않는다. 한편 ④-2에서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은 경험과 무관한 지식이며, 총체주의는 이러한 지식을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총체주의에 대해 중심부 지식 중에는 주변부 지식들과 종류가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오답 피하기

- ①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이 경험과 충돌하더라도 그 충돌 때문에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 ➡ ②-1에 따르면 과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②-2~3에서 과인은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되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즉, ①에서 '예측이 경험과 충돌하더라도 그 충돌 때문에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은 ②-2~3에 나타난 총체주의의 입장과 동일하므로, 이를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보기 어렵다.
- ② 논리학 지식이나 수학적 지식이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위치한다고 해서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 ➡ ③-5에서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경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즉 ②는 과인의 총체주의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없다.

- ③ 전체 지식은 어떤 결정적인 반박일지라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대상을 주변부 지식으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 ③-9에 따르면 총체주의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④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주변부 지식도 수정해야 하겠지만,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고 해서 중심부 지식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7에 따르면 총체주의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다고 했을 뿐,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중심부 지식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므로 ④는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보기 어렵다.

06 반응의 적절성 판단하기

21쪽

[기출로 연습하기] 6 ⑤

6 윗글과 <보기>를 관련지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중세 시대에 건축, 조각, 회화는 독자적인 예술 분야가 아닌 기술이나 수공업의 영역으로 인식되었으며, 정치, 사회적 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근대에 이르러 미술의 개념이 확립되고 미가 인간 행위를 지배하는 하나의 독립적 원리로 여겨지면서 사람들은 종교적 신비감이 시들해진 상태에서 순수한 미적 체험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미술관을 포함한 박물관의 건립은 이러한 변화와 맞물린 근대적 현상이었다.

정답인 이유

- ⑤ 중세의 종교 건축물의 일부였던 조각상이 원래의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되면 원래의 종교적 신비감이 유지되기 어렵겠군.
- ①에 따르면 근대 이전의 조각은 장소의 일부로서 존재했으며 '종교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종교적·정치적 의미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②-2~3에 따르면 근대에 들어 조각에 부여되었던 종교적 의미가 약해졌고, 조각이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되면서 기존의 맥락을 상실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한편 <보기>에서는 근대에 이르러 미의 종교적 신비감이 시들해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⑤에서 조각상이 원래의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되면 종교적 신비감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본 것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박물관에서 원래의 장소로 되돌아온 조각상은 건축, 조각, 회화 영역의 통합에 기여하겠군.
- 이 글과 <보기>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 ② 근대에 출현한 박물관은 작품이 가진 수공업으로서의 가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겠군.

- ②-5에 따르면 조각이 박물관에 놓이면서 미적 감상의 대상인 작품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었다.
- ③ 조각상을 감상의 대상인 작품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것에 정치, 사회적 기능을 부여한다는 뜻이겠군.
- ②-2, 5~6과 <보기>의 내용으로 볼 때, 조각상을 감상의 대상인 작품으로 여긴다는 것은 이를 정치,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분리하여 미적 체험을 추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각상을 감상의 대상인 작품으로 여긴다는 것이 그것에 정치, 사회적 기능을 부여한다는 뜻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 ④ 종교적인 인물상이 사원에서 박물관으로 옮겨지면서 미의 개념이 예술 분야에서 기술 분야로 확대되었겠군.
- ②-3, 5에 따르면 조각은 원래의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기존의 종교적, 정치적 맥락을 상실하였고, 미적 감상의 대상인 작품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종교적인 인물상이 사원에서 박물관으로 옮겨짐으로써 미의 개념이 기술 분야로 확대되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07 단어의 의미 파악하기

23쪽

[기출로 연습하기] 7 ②

7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② ㉠: 단절(斷絶)하는
- '단절하다'는 '유대나 연관 관계를 끊다.'라는 의미로, '말이나 행동, 일 따위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막다.'의 의미인 ㉠의 '가로막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 향유(享有)하기로
- '향유하다'는 '누리어 가지다.'라는 의미로,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라는 의미인 ㉡의 '누리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 ③ ㉢: 둔감(鈍感)해져
- '둔감하다'는 '감정이나 감각이 무디어지다.'라는 의미로, '느끼고 깨닫는 힘이나 표현하는 힘이 부족하고 둔하게 되다.'라는 의미인 ㉢의 '무디어지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 ④ ㉣: 지대(至大)한
- '지대하다'는 '더할 수 없이 크다.'라는 의미로, '사물이나 사건의 크기가 보통 정도를 훨씬 넘다.'의 의미인 ㉣의 '크나크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 ⑤ ㉤: 수립(樹立)하였다는
- '수립하다'는 '국가나 정부, 제도, 계획 따위를 이룩하여 세우다.'라는 의미로, '질서나 체계, 규율 따위를 올바르게 하거나 짜다.'의 의미인 ㉤의 '세우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01 독서의 기능과 가치

26~28쪽

1 ② 2 ⑤ 3 ①

① ¹어떤 독서 이론도 이 한 장의 사진만큼 독서의 위대함을 분명하게 말해 주지 못할 것이다. ²사진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런던의 한 건물 모습이다. ³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이 책을 찾아 서가 앞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 ⁴이들은 갑작스레 닥친 상황에서 독서를 통해 무언가를 구하고자 했을 것이다.



▶ 사람들이 폐허 속에서 책을 찾고 있는 한 장의 사진 소개

② ¹독서는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²책은 인류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는 문화유산이며, 독서는 인류와의 만남이자 끝없는 대화이다. ³독자의 경험과 책에 담긴 수많은 경험들의 만남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자의 내면을 성장시켜 삶을 바꾼다. ⁴이런 의미에서 독서는 자기 성찰의 행위이며, 성찰의 시간은 깊이 사색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어야 한다. ⁵이들이 책을 찾은 것도 혼란스러운 현실을 외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 독서의 기능과 가치 ①

③ ¹또한 ¹독서는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논리와 힘을 지니게 한다. ²책은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데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으며, 독서는 그 지식을 얻는 과정이다. ³독자의 생각과 오랜 세월 축적된 지식의 만남은 독자에게 올바른 식견을 갖추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도록 함으로써 세상을 바꾼다. ⁴세상을 변화시킬 동력을 얻는 이 시간은 책에 있는 정보를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당한 정보인지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⁵서가 앞에 선 사람들도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책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다.

▶ 독서의 기능과 가치 ②

④ ¹독서는 자기 내면으로의 여행이며 외부 세계로의 확장이다. ²폐허 속에서도 책을 찾은 사람들은 독서가 지닌 힘을 알고, 자신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책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 독서의 의의

1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의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② 현실로부터 도피할 방법을 구하기 위해

→ ②-5에서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이 책을 찾은 것은 현실을 외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인류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기 위해

→ ②-2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 위해

→ ③-5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자신의 삶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갖기 위해

→ ②-5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지식을 얻기 위해

→ ③-2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반응의 적절성 판단하기

<보기>는 ㉠과 같이 독서하기 위해 학생이 찾은 독서 방법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¹해결하려는 문제와 관련하여 관점이 다른 책들을 함께 읽는 것은 해법을 찾는 한 방법이다. ²먼저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된 서로 다른 관점의 책을 찾는다. ³책을 읽을 때는 자신의 관점에서 각 관점들을 비교·대조하면서 정보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 내용을 통합한다. ⁴이를 통해 문제를 다각적·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관점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생각을 발전시켜 관점을 재구성하게 됨으로써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정답인 이유

⑤ 문제에 대한 여러 관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비판적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자신의 관점이 지닌 타당성을 견고히 해야겠군.

→ ㉠은 독자가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논리와 힘을 지니게 한다는 독서의 기능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기>-3에서는 책을 읽을 때 여러 관점들을 비교·대조하면서 정보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비판적 판단을 유보한다는 ⑤의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읽을 책을 선택하기 전에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겠군.

→ <보기>-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대조하면서 검토함으로써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문제를 폭넓게 보아야겠군.
- ➡ <보기>-3~4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로 다른 관점을 비판적으로 통합하여 문제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어야겠군.
- ➡ <보기>-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정보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각 관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평가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문제를 깊이 이해해야겠군.
- ➡ <보기>-3~4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다음은 밑줄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장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¹나의 독서 대부분은 정보 습득을 위한 것이었다. ²책의 내용이 그대로 내 머릿속으로 옮겨져 지식이 쌓이기만을 바랐지 내면의 성장을 생각하지 못했다. ³운동주 평전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 시간이 나에 대해 사색하며 삶을 가꾸는 소중한 시간임을 새삼 느낀다. ⁴오늘 나는 책장을 천천히 넘기며 나에게로의 여행을 떠나 보려 한다.

정답인 이유

- ① 삶을 성찰하게 하는 독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 학생은 <기록장>-3에서 '운동주 평전을 읽으며 삶을 가꾸는 소중한 시간임을 새삼 느낀다.'라고 말하며 삶을 성찰하게 하는 독서의 가치를 깨닫고 있다. 이어 <기록장>-4에서 '오늘 나는 책장을 천천히 넘기며 나에게로의 여행을 떠나 보려 한다.'라고 말하며 삶을 성찰하게 하는 독서를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문학 분야에 편중되었던 독서 습관을 버리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 ➡ <기록장>-1에서 학생이 문학 분야가 아닌 정보 습득에 편중된 독서 습관을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독서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태도를 반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 ➡ <기록장>-2의 내용으로 볼 때, 학생은 지속적인 독서를 실천하지 못한 태도가 아니라, 정보 습득을 위한 독서에 치중했던 것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기록장>에서 학생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 독서 계획을 세우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 ④ 내면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독서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 <기록장>-2의 내용으로 볼 때, 학생이 내면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독서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지는 않다.

- ⑤ 개인의 지적 성장에 머무는 독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타인과 경험을 공유하는 독서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 <기록장>-1~2에서 학생은 정보 습득을 위한 독서에 치중했던 태도를 반성하고 있을 뿐, 개인의 지적 성장에 머무는 독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록장>에서 타인과 경험을 공유하는 독서 토론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문제 하이라이트

29쪽

(1) ○ (2) 외면 (3) × (4) ○ (5) ○ (6) 지식 (7) ○

선지+ ⑥ × ⑦ ○ ⑧ ○

선지+

- ⑥ ③-2에 따르면 책은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데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으며, 독서를 통해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독서를 통한 지적 능력 향상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⑦ ③-1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⑧ ②-3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 감정 노동과 감정 조절 전략

30~32쪽

1 ① 2 ③ 3 ② 4 ⑤

- ① ¹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정 노동 종사자를 쉽게 접할 수 있다. ²감정 노동 종사자들은 특정한 감정 표현을 요구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³일반적으로 감정 노동은 업무상 요구되는 특정한 감정 상태를 연출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감정 관리 활동을 일컫는다.

▶ 감정 노동의 개념

- ② ¹감정 노동 종사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개인 특성, 직무 특성, 조직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²개인 특성을 대표하는 요인으로는 공감적 배려가 있다. ³이것은 타인의 감정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다. ⁴공감적 배려가 강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
- [A] 제 감정과는 다른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⁵직무 특성을 대표하는 요인으로는 직무 다양성이 있다. ⁶이것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활용해야 하는 기능이나 재능의 복잡성과 관련된다. ⁷직무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표현해야 할 감정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⁸특히 서비스 업무에서는 고객의 유형이 다양하면 직무 다양성이 높아진다. ⁹조직 특성을 대표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원이 있다. ¹⁰이것은 상급자,

동료 등 조직 내에서 대인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서 얻는 인정이나
 조연, 물질적 지원 등의 긍정적 뒷받침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원의 개념} 11 사회적 지
 원이 풍부한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감정 노동에 대한 스트레스는
 낮고 업무 만족도는 높다. ^{사회적 지원이 풍부할 때 나타나는 특성} 12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의 요인들은 복잡
 적으로 작용하면서 감정 노동의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3 실제 직무 수행 장면에서 나타나는 감정 노동 양상 중 대표적인
 것으로 ^{감정 노동 종사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 표면 행위와 내면 행위 두 가지가 있다. 2 조직이 종사자에게 요
 구하는 특정한 감정 표현을 조직의 감정 표현 규칙이라고 하는데, ^{감정 노동의 대표 양상} 표면
 행위는 실제로 느끼지 않는 감정을 조직의 감정 표현 규칙에 맞추어
 표현하는 것이다. 3 내면 행위는 조직의 감정 표현 규칙을 내면화하여
 실제 감정으로 느끼면서 표현하는 것이다. ^{표면 행위의 개념} 4 내면 행위는 심리적 안정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5 반면 표면 행위를 할 때 감정 노동 종사자
 들은 자신의 감정을 위장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 부조화를 경험하게 된
 다. 6 감정 부조화 상태가 되면 수치심이나 짜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유발된다. 7 감정 부조화가 지속되면 감정 노동 종사자는 스스로를
 위선적이라고 생각하며 거짓 자아를 느끼게 되고, 심할 경우 우울증과
 같은 정신 병리 증세를 겪을 수도 있다.)

4 따라서 감정 노동 종사자들은 감정 부조화에 따른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감정 조절 전략을 구사한다. 2 우선 자신이 경
 험한 부정적 감정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를 한다. 3 그 후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적절한 감정 조절 전략을 구사한다. ^{직무 수행 장면에서 나타나는 감정 노동의 양상} 4 이러한 감정 조절 전략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5 첫째, 능동 전략
 은 부정적 감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이다. 6 부정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왜 이러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는지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7 또한 과거 유사한 상황을 떠올리거나 문제에
 따른 긍정적 측면을 보면서 자신이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도
 한다. 8 나아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한 상황을 개선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 9 '자꾸 짜증이 나는 이유가 뭘
 까?', '옛날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잘 극복했으니 이번에도 잘 이
 겨내면 좋은 경험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 예에 해당한다.

5 둘째, 회피·분산 전략은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을 때 의도적으
 로 다른 생각들을 떠올려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을 피하거나 주의를 분
 산시키는 전략이다. 2 '별짓 아닐 거야.', '불쾌한 감정은 금방 지나갈 거
 야.'라고 생각하며 부정적 상황을 외면하거나, 부정적인 상황과 상관
 없는 즐거운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그 예에 해당한다. 3 하지만 이 전략
 을 자주 쓰다 보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위의 문제에도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게 될 수도 있다. ^{감정 조절 전략 ①: 능동 전략의 개념과 그 예시} 4 회피·분산 전략의 문제점

6 셋째, 지지 추구 전략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하
 여 자아 개념과 자존감을 안정되게 유지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해
 소하려는 전략이다. 2 친밀한 사람을 만나 자기 감정을 토로하여 공감을
 얻거나 주위 사람으로부터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는 것 등이 그 예
 이다. 3 이 전략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 과정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것
 으로, 부정적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한다.

4 세 가지 감정 조절 전략 중 회피·분산 전략과 지지 추구 전략은 일시
 적인 감정 조절에는 유용한 전략이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는 한계를 지닌다. ^{회피·분산 전략과 지지 추구 전략의 한계} 5 따라서 궁극적인 감정 조절을 위해서는 능동 전략
 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감정 조절 전략 ③: 지지 추구 전략의 개념과 그 예시

1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윗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정답인 이유

① 감정 조절이 불가능한 상황

➔ 이 글에서 감정 조절이 불가능한 상황에 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② 감정 노동의 개념과 대표적 양상

➔ ①-3에서 감정 노동의 개념을, ③-1에서 감정 노동의 대표적 양상으로 표면 행위와 내면 행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정 조절 전략이 구사되는 과정

➔ ④-2~3에서 먼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적절한 감정 조절 전략을 구사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감정 부조화의 지속이 초래하는 결과

➔ ③-7에서 감정 부조화가 지속되면 거짓 자아를 느끼거나 심할 경우 정신 병리 증세를 겪을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감정 조절 전략

➔ ④-1에서 감정 노동 종사자들이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감정 조절 전략을 구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유형으로 ④에서 능동 전략을, ⑤에서 회피·분산 전략을, ⑥에서 지지 추구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2 전개 방식 파악하기

[A]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③ 대상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각 항목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

➔ [A]에서는 감정 노동 종사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직무·조직 특성의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②-1), 각 항목의 대표 요인을 제시하며 그 특성을 밝히고 있다(②-2~11).

오답 피하기

① 대상의 의미를 제시하고 큰 어유를 밝히고 있다.

➔ [A]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② 대상의 변화 과정을 언급한 뒤 전망을 예측하고 있다.

➔ [A]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④ 대상의 구성 요소를 나열한 후 큰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A]에서 감정 노동 종사자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나열하고 그 특성을 밝히고 있으나, 장단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대상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부각하여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 [A]에서는 감정 노동 종사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특성을 밝히고 있을 뿐, 요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지 않다.

3 반응의 적절성 판단하기

윗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② 주의를 분산시키는 감정 조절 전략을 구사하면 궁극적인 감정 조절 가능하겠군.
 ➔ ⑤-1에 따르면 주의를 분산시키는 감정 조절 전략은 회피·분산 전략이다. ⑥-4에서 회피·분산 전략은 일시적인 감정 조절에는 유용하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밝히고 있으며, ⑥-5에서 궁극적인 감정 조절이 가능한 전략은 능동 전략이라고 하였으므로 ②의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감정 조절 전략 중에는 일시적인 감정 조절에 유용한 전략도 있군.
 ➔ ⑥-4에서 회피·분산 전략과 지지 추구 전략이 일시적인 감정 조절에 유용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공감적 배려가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감정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겠군.
 ➔ ②-4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다른 생각들을 떠올리거나 자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겠군.
 회피·분산 전략 지지 추구 전략
 ➔ ⑤-1, ⑥-1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상급자나 동료들의 인정이나 조언은 감정 노동 종사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특성에 해당하는군.
 사회적 지원
 ➔ ②-9~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영희는 A호텔에서 안내 업무를 맡고 있다. ㉠영희가 맡은 업무는 손님들의 나이나 성향이 다양하여 힘든 점이 많다. ㉡하지만 지배인부터 동료 직원들까지 자신을 존중하고 지원해 주는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자기 일에 만족하고 있다. ㉢가끔 영희는 기분 나쁜 반응을 보이는 손님도 웃으며 맞아야 하는 것에 짜증을 느끼기도 했는데, 그런 순간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손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하였다. ㉣슬픈 일이 있는데도 손님을 대하며 밝은 표정을 보여야 할 때는 우울함이 느껴지기도 했는데, /그럴 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를 썼다. ㉤그래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을 때는 '오늘 친구랑 무슨 영화를 볼까?'와 같이 좋은 일들을 떠올리면 기분이 나아졌다.

정답인 이유

- ⑤ ㉠: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전략을 활용하였군.
 ➔ ㉡에서 영희가 타인과 상호 작용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에서 영희는 좋은 일을 떠올리며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회피·분산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⑤-1~2).

오답 피하기

- ① ㉠: 직무 다양성이 높아서 힘든 감정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군.
 ➔ ㉡에서 '손님들의 나이나 성향이 다양'하다는 것은 영희가 상대해야 할 고객의 유형이 다양함을 뜻한다. ②-8에서 고객의 유형이 다양할수록 직무 다양성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므로, 영희는 직무 다양성이 높아 힘든 감정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 사회적 지원이 풍부하여 업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군.
 ➔ ②-9~11에서 상급자, 동료 등 조직 내 사람들의 지원은 사회적 지원에 해당하며, 사회적 지원이 풍부한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업무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즉, ㉢에서 영희가 업무에 만족한다고 한 것은 사회적 지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③ ㉢: 능동 전략을 사용하여 부정적 감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군.
 ➔ ㉢에서 영희가 짜증을 느낀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려 한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왜 이러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는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능동 전략에 해당한다(④-5~6). ④-1에 따르면 능동 전략은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구사하는 전략이므로 ③의 반응은 적절하다.
 ④ ㉣: 현재의 상황을 외면하여 감정 부조화에 따른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려 하는군.
 ➔ ㉣에서 영희가 슬픈 감정에도 밝은 표정을 보이며 우울감을 느낀 것은 감정 부조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⑤-5~7).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희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쓴 것은 의도적으로 부정적 상황을 외면하려는 회피·분산 전략에 해당하므로(⑤-1~2), ㉣의 반응은 적절하다.

문제 하이라이트

33쪽

(1) 분류 (2) 배려 (3) × (4) × (5) ○ (6) × (7) ×

선지 + ⑥ ○ ⑦ × ⑧ ×

선지 +

- ⑥ [A]에서는 감정 노동 종사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직무·조직 특성의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눈 뒤, 각 요인들의 특성을 나열하고 있다.
 ⑦, ⑧ [A]에서 확인할 수 없다.

1 ①

2 ③

3 ③

4 ③

① 언어 철학에서 특정 인물이나 사물 등을 나타내는 '고유 이름'은 언어와 대상의 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어 표현이다.

② 그래서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언어 철학자들의 중요한 관심사였다. ③ 그중 의미지칭이론에 따르면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그 표현이 지칭하는 것, 즉 지시체 자체이다. ④ 이들에 따르면 '금성'이라는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금성 자체인 것이다. ⑤ 하지만 프레게는 이러한 의미지칭이론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시체와 '뜻'을 구분하여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새롭게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한다.

▶ 고유 이름에 관한 의미지칭이론의 입장과 이를 비판한 프레게의 새로운 이론

② 먼저 프레게는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지시체라는 의미지칭이론의 입장을 따를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밝힌다. ② 다음의 두 문장을 보자.

③ 1) 셋별은 셋별이다.

④ 2) 셋별은 개밥바라기이다.

▶ 프레게의 새로운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예문

③ 1) 프레게에 의하면 의미지칭이론의 입장에서 1)과 2)는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지녀야 한다. ② 왜냐하면 의미지칭이론에 따르면 밑줄 친 '셋별'과 '개밥바라기'라는 두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금성이라는 지시체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③ 하지만 프레게는 1)은 동어의 반복이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2)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 문장을 다르게 인식하게 된다고 말한다. ④ 그리고 이러한 인식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고유 이름이 지시체 그 자체가 아닌 '뜻'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⑤ 즉 프레게는 '셋별'은 아침에 뜨는 별이라는 뜻을, '개밥바라기'는 저녁에 뜨는 별이라는 뜻을 의미하며, '셋별'과 '개밥바라기'는 동일한 지시체인 금성을 서로 다른 제시 방식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말한다. ⑥ 프레게는 이처럼 동일한 지시체의 서로 다른 제시 방식인 '셋별'과 '개밥바라기'는 다른 뜻을 가진다고 말한다. ⑦ 따라서 프레게는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지시체가 아니기에 지시체와 뜻을 구분해야 하고, 뜻의 차이로 인해 1)과 2)가 인식적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 프레게의 주장 ①: 고유 이름은 지시체 그 자체가 아닌 뜻을 의미함.

④ 1) 프레게는 고유 이름에 한정 기술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한정 기술구란 오직 하나의 대상만이 만족하는 조건을 몇 개의 단어나 이런저런 기호로 구성한 언어 표현이다. ③ 예를 들어 프레게는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나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저자'와 같은 한정 기술구도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유 이름으로 간주한다. ④ 그래서 프레게에 따르면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와 '니코마코스 윤리학

의 저자'는 고유 이름들이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에 대한 서로 다른 제시 방식으로 각각은 다른 뜻을 가진다.

▶ 프레게의 주장 ②: 고유 이름에 한정 기술구도 포함되어야 함.

⑤ 1) 한편 프레게는 특정 지시체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관념을 뜻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② 관념은 지시체에서 개인이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주관적인 내적 이미지이다. ③ 반면 뜻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에, 언어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합의된 재산인 것이다. ④ 다시 말해 우리가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유는 뜻이 공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⑤ 만약 뜻이 개인의 관념과 같다고 한다면 뜻은 사람마다 다르게 되고, 의사소통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 ⑥ 따라서 프레게는 언어 표현의 뜻은 개인이 지시체에 대해 갖는 관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 프레게의 주장 ③: 언어 표현의 뜻은 개인이 지시체에 대해 갖는 관념과는 다름.

⑥ 1) 결국 프레게는 지시체와 뜻을 구분함으로써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하였다. ② 또한 이를 통해 의미지칭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① '유니콘'과 같이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인 대상의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 프레게 이론의 의의

1 전개 방식 파악하기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① 기존의 이론을 비판한 새로운 이론을 예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② 이 글은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의미지칭이론의 입장을 비판한 프레게의 새로운 이론을 ②~③에서 '셋별'과 '개밥바라기',

④~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리키는 한정 기술구, ⑥~⑦에서 '유니콘'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2 세부 내용 파악하기

〈보기〉는 프레게의 이론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다. 윗글의 [A]를 참고하여 프레게의 입장에서 〈보기〉의 ㉠~㉣를 설명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른 것은?

／ 보기

우리 가족들은 천문대에 가서 ㉠ 밤하늘의 달을 보았다. 그날 우리는 하나의 망원경을 통해 달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 우리 가족이 나눈 대화 속 망원경 렌즈에 맺힌 달의 형상은 모두 같았지만, 그날 망원경의 렌즈를 거쳐 ㉢ 망막에 맺힌 달은 우리 가족에게 서로 다른 추억으로 기억되고 있다.

정답인 이유

㉑ ㉒ ㉓

③ 지시체 뜻 관념

➡ [A]는 프레게가 지시체, 뜻, 관념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보기>에서 우리 가족은 ㉑를 함께 관찰하고 이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으므로, ㉑는 ❶-3에서 말한 '그 표현이 지칭하는 것'인 '지시체'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❷-3에 따르면 '뜻'은 언어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합의된 재산이므로, ㉒에서 우리 가족이 나누는 대화 속 ㉑의 형상은 모두 같았다고 한 것을 '뜻'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또한 ❷-2에 따르면 '관념'은 지시체에서 개인이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주관적인 내적 이미지이므로, ㉓에서 ㉑가 우리 가족에게 서로 다른 추억으로 기억된 것을 '관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3 생략된 정보 추론하기

윗글을 참고할 때, 의미지칭이론에서 ㉑를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③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지시체 그 자체로 보기 때문이겠군.
➡ 의미지칭이론에 따르면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지시체 그 자체이다(❶-3). 따라서 의미지칭이론에서는 고유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려면 지시체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볼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㉑에서 '유니콘'은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인 대상의 고유 이름이라고 하였으므로, 의미지칭이론에서는 ㉑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고유 이름은 타수의 자사체를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이겠군.
➡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② 고유 이름과 지시체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겠군.
➡ ❶-3에 따르면 의미지칭이론에서는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지시체 그 자체로 보았다. 고유 이름과 지시체가 서로 관련 없다고 본 것이 아니다.
- ④ 고유 이름과 지시체가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이겠군.
➡ ❶-3에 따르면 의미지칭이론에서는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지시체 그 자체로 보았다. 고유 이름과 지시체가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본 것이 아니다.
- ⑤ 고유 이름으로는 언어와 대상의 관계를 밝힐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겠군.
➡ ❶-1~2에 따르면 언어 철학에서 고유 이름은 언어와 대상의 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어 표현으로,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에 관한 것은 언어 철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❶-3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 중 하나인 '의미지칭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의미지칭이론에서는 고유 이름이 언어와 대상의 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하다고 보았을 것이다.

4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윗글을 읽은 학생이 프레게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위 삼각형의 각 꼭짓점에서 그 대변의 중점으로 이어지는 선을 a, b, c라고 할 때, ㉑'a와 b의 교점'과 ㉒'b와 c의 교점'의 지시체는 ㉓o이다. 따라서 ㉔'o는 a와 b의 교점이다.'와 같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정답인 이유

③ ㉑와 ㉒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유는 ㉓에 대한 개인의 내적 이미지 차이를 일치하기 때문이겠군.
➡ ❷-2의 내용으로 볼 때, 지시체에 대한 '개인의 내적 이미지'는 관념을 뜻한다. ❷-4~5에서 프레게는 우리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유를 '뜻이 공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뜻이 개인의 관념과 같다면 뜻이 사람마다 다르게 되어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㉑와 ㉒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유가 ㉓에 대한 관념이 개인마다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㉑와 ㉒는 동일한 지시체를 지칭하지만 뜻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겠군.
➡ <보기>에서 ㉑와 ㉒의 지시체는 ㉓라고 하였고, ❷-4에서 프레게는 동일한 지시체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제시한 것은 각각 다른 뜻을 가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㉑와 ㉒의 제시 방식이 달라 뜻이 서로 다르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 ② ㉑와 ㉒는 몇 개의 단어와 기호로 구성되어 있지만 고유 이름으로 볼 수 있겠군.
➡ ❷-1~2에 따르면 프레게는 몇 개의 단어나 기호로 구성된 한정 기술구도 고유 이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몇 개의 단어와 기호로 구성된 <보기>의 ㉑와 ㉒를 고유 이름으로 볼 수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 ④ ㉓에 대한 제시 방식에는 ㉑와 ㉒뿐만 아니라 'a와 c의 교점'도 포함할 수 있겠군.
➡ ❷-1, 4에서 프레게는 한정 기술구도 고유 이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일한 지시체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㉑, ㉒뿐만 아니라 'a와 c의 교점' 또한 ㉓에 대한 제시 방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㉓은 'o는 o이다.'라는 문장과 인식적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❷-3~7에서 프레게는 지시체를 제시하는 방식이 다른 두 문장

을 언급하며, 뜻의 차이로 두 문장이 인식적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보기>의 ㉠와 'o는 o이다.'는 문장은 동일한 지시체인 'o'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제시한 문장으로, 서로 다른 뜻을 지니므로 이에 따라 두 문장의 인식적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 하이라이트

37쪽

(1) 지시체 (2) 뜻 (3) × (4) × (5) ○ (6) × (7) ×

선지 + ⑥ × ⑦ ○ ⑧ ×

선지 +

- ⑥ 의미지칭이론의 입장과 관련 없는 내용이다.
 ⑦ 의미지칭이론에서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지시체 그 자체로 본 것은, 즉 지시체가 실제로 존재해야만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밝힐 수 있다고 본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 즉 허구적인 대상의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의미지칭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로 적절하다.
 ⑧ 의미지칭이론에서 지시체와 뜻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보았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한편 프레게는 지시체와 뜻을 구분함으로써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⑥-2에서 이를 통해 ㉠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⑧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4 노동의 철학적 의미

38-40쪽

1 ⑤ 2 ② 3 ⑤ 4 ②

① '누구나 한번쯤은 경치 좋은 곳에 누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꿈꿔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상에는 '일', 즉 '노동'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 생각이 깔려 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인간은 노동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켜왔고, 이러한 점에서 노동은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철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노동에 어떤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을까?

② '로크'는 노동을 ㉠소유의 권리와 관련하여 설명했다. '로크는 신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 인간에게 자연을 공유물로 주면서, 동시에 인간이 신의 목적대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성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는 신이 인간에게 공유물로 주지 않은 유일한 것이 신체이기 때문에 각자의 신체에 대해서는 본인만이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이렇게 신체가 한 개인의 소유라면 그 신체의 활동인 노동 역시 그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이 공유 상태인 어떤 사물에 노동을 부여하는 것은 공유물에 배타적 소유권을 첨가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노동을 통해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로크는 모든 노동이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로크에게 노동은 단순히 신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편의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자연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로크는 만약 어떤 개인이 신체를 사용하여 공유물을 인류의 삶에 손해가 되도록 만든 경우, 그것은 노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③ 한편 헤겔은 노동을 사적 소유권의 근거를 넘어 주체와 객체가 통일되는 과정이며, 인간이 자기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주장했다. 또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을 통해 자신에게 맞게 바꾸어 필요한 물품과 적절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며 생명을 보전한다고 보았다. 이때 자립성을 지닌 객체는 주체의 노동에 저항하기 마련인데, 객체의 자립성은 인간의 노동에 의해 일정하게 제거되고 약화되어 주체에 알맞게 변화된다. 한편 주체는 노동 과정에서 객체에 내재된 질서나 법칙을 일정 정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욕구나 목적을 객체 속에 실현한다. 그 결과 객체는 주체의 노동으로 사라지거나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무관한 것에서 인간을 위한 노동 산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체는 객체 안으로 들어가고 객체는 주체의 고유한 형식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헤겔은 이처럼 노동을 통해 주체가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내는 것을 자기 대상화라 하였다. 결국 주체와 객체는 서로 분리·고립되어 있다가 노동을 통해 노동 산물 속에서 통일되어 가며, 주체는 그 속에 실현된 자기 대상화의 정도만큼 자기의식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헤겔은 노동 산물이 주체의 소유지만, 여전히 주체와 분리되어 있고, 주체를 완전히 표현하지도 못하기에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④ 이에 비해 마르크스는 헤겔의 노동관을 수용하면서도 노동 자체가 한계를 지닌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마르크스는 인간은 노동을 통해 외부 대상인 자연을 가공하여 인간의 욕구와 자기실현에 알맞은 인간화된 자연으로 만든다고 보았다. 결국 그에게 노동은 객체에 인간적 형식을 부여하기 위해 자연적 소재의 형식을 부정함으로써 주체의 주관적 욕구나 목적을 대상으로 객관화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공된 대상에는 주체의 형식이 부여되고, 주체의 욕구나 목적 등은 물질화되어 구체적 노동 산물이 된다. 그 결과 인간은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노동 산물에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기의식과 정체성을 확보하게 된다. 더 나아가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개발하여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획득하면서 자아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노동이 가장 현실적인 주객 통일의 방법이자 인간의 자아실현 과정이라 주장한 것이다. 다만 그는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의 한계가 사회적 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며, 노동을 통한 인간의 자아실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를 변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1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인 이유

⑤ 마르크스는 노동이 주객 통일을 완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회적 구조의 한계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④-8에서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의 한계가 사회적 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사회적 구조의 한계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로크는 인간에게 이성을 부여한 신의 의도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②-2에 따르면 로크는 신이 인간에게 이성을 부여한 의도가 인간이 신의 목적대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보았다.

② 헤겔은 인간이 동물과 달리 자연을 자신에게 맞게 바꾸는 목적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③-2에 따르면 헤겔은 인간이 동물과 달리 적절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 생명을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자연을 자신에게 맞게 바꾼다고 보았다.

③ 헤겔은 인간이 노동을 통해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내어 얻게 되는 결과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③-7~8에 따르면 헤겔은 노동을 통해 인간이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내는 것을 자기 대상화라고 하였고, 그 결과 그 속에 실현된 자기 대상화의 정도만큼 자기의식을 확보한다고 보았다.

④ 마르크스는 노동이 인간의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④-2~6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인간이 자연을 가공하면서 객체에 주체의 형식이 부여되고, 주체의 욕구나 목적 등은 물질화되어 구체적 노동 산물이 된다고 하였다. 그 결과 인간은 이 노동 산물에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기의식과 정체성을 확보한 뒤, 능력을 더욱 개발하여 자유를 획득하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정보 간의 관계 파악하기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② ㉠과 ㉡은 모두 인간의 노동을 성립 기반으로 하고 있다.

➔ ②-6에서 로크는 모든 개인이 노동을 통해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③-4~5에서 헤겔은 객체가 주체의 노동을 통해 노동 산물로 변화하며, ③-9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노동 산물이 주체의 소유라고 보았으므로 ㉠과 ㉡은 모두 인간의 노동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과 ㉡은 모두 인간을 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 ②-2, 5~6에 따르면 로크는 인간이 신에게 제공받은 공유물에 노동을 부여하여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로 볼 때

‘소유’는 신의 존재와 신이 부여한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이 인간을 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글에서 ㉡을 신과 관련지어 설명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은 ~~아타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은 ~~아카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②-3~5의 내용으로 볼 때, ㉠은 개인의 배타적 권리로 인정되므로 이타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③-4~5, 9에서 헤겔은 주체가 자신의 욕구나 목적을 객체 속에 실현하며 나타난 노동 산물이 주체의 소유라고 하였을 뿐, ㉡의 목적이 이기심의 실현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은 ~~인간과 자연의 합일을 강화~~하는 반면, ㉡은 ~~인간과 자연의 분리를 강화~~한다.

➔ ②-2에 따르면 로크는 신이 인간에게 자연을 공유물로 주면서, 인간이 신의 목적대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성도 주었다고 보았다. 즉, 자연은 인간의 이용 대상이므로 ㉠이 인간과 자연의 합일을 강화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③-8에 따르면 헤겔은 주체와 객체는 서로 분리·고립되어 있다가 노동을 통해 노동 산물 속에서 통일되어 간다고 보았다. 즉 ㉡은 주객 통일의 과정인 노동을 통해 성립되므로 ㉡이 인간과 자연의 분리를 강화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은 ~~공유물의 존재에 의해 보장~~되는 반면, ㉡은 ~~주객 통일의 완성~~에 의해 보장된다.

➔ ②-5~6에 따르면 로크는 인간이 공유물에 노동을 부여하여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공유물에 배타적 소유권을 첨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은 노동을 통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존재에 의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③-9에 따르면 헤겔은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노동 산물은 주체의 소유지만, 주체와 분리되어 있으며 주체를 완전히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주객 통일의 완성에 의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3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윗글의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¹캐릭터 아티스트를 꿈꾸는 A씨는 관련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예술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B사에 입사했다. ²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유명한 몇몇 캐릭터만 반복적으로 그려야 하는 현실에 염증을 느끼고 캐릭터 아티스트로서 더 성장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C사로 직장을 옮겼다. ³이후 그는 다양한 종류의 캐릭터를 마음껏 변용해 그리는 동시에 여러 동물들의 모습을 관찰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캐릭터를 창작하게 되었다.

정답인 이유

- ⑤ A씨가 예술 학교에서 공부한 기간은 외부 대상인 자연의 형식에 맞게 자신의 목적을 객관화시킨 시기였겠군.

→ ④-3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노동을 '자연적 소재의 형식을 부정'하여 주체의 목적을 대상으로 객관화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보기>-1에서 A씨가 예술 학교에서 공부한 기간은 노동이 아니라 노동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④-3의 내용으로 볼 때 이를 '자연의 형식에 맞게 자신의 목적을 객관화시킨 시기'라고 보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A씨는 노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객체 속에 실현하려고 노력해 왔겠군.
→ ③-4에서 헤겔은 주체가 노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나 목적을 객체 속에 실현한다고 보았으며, ④-1에서 마르크스는 이러한 헤겔의 노동관을 수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보기>-2~3에서 캐릭터 아티스트로서 성장하기 위해 직장을 옮기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캐릭터를 창작한 A씨가 노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객체 속에 실현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볼 것이다.
- ② A씨는 노동을 통해 자신의 형식을 부여한 노동 산물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겠군.
→ ④-4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노동을 통해 가공된 대상에는 주체의 형식이 부여되고, 주체의 욕구나 목적 등은 물질화되어 구체적 노동 산물이 된다고 보았다. <보기>-3에서 A씨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캐릭터를 창작하게 되었으므로 마르크스는 A씨가 노동을 통해 자신의 형식을 부여한 노동 산물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다.
- ③ A씨가 제한된 캐릭터를 그리는 노동에 염증을 느꼈던 이유는 자기 의식 확보에 대한 갈증 때문이겠군.
→ ④-5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인간이 노동을 통해 만들어 낸 노동 산물에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기의식과 정체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보기>의 A씨가 유명한 캐릭터만 반복적으로 그리는 현실에 염증을 느낀 이유를 자기의식 확보에 대한 갈증 때문으로 볼 것이다.
- ④ A씨가 직장을 옮긴 것은 노동을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자유를 확장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이겠군.
→ ④-6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인간이 노동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유를 획득하면서 자아를 실현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보기>의 A씨가 직장을 옮긴 것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서라고 볼 것이다.

4 반응의 적절성 판단하기

윗글과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¹레미 리프킨은 첨단 과학 기술이 생산 수단에 접목되는 상황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을 예언했다. ²그는 노동의 종말이 긍정적으로 보는 여가적 삶의 증대를, 부정적으로는 대량 실업으로 인한 정체성의 시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³그래서 대량 실업의 피해 노동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 ^①자들을 위해 사회적 경제 부분의 일자리 공유 전략을 강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⁴이를 통해 그들이 삶의 이유를 찾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답인 이유

- ② 윗글과 <보기> 모두 인간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노동이 기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군.
→ ②-6에서 로크는 모든 개인이 노동을 통해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③-1, ④-5에서 헤겔과 마르크스는 인간이 노동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보기>-4에서 리프킨은 노동을 통해 실업자들이 삶의 이유를 찾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이 글과 <보기> 모두 인간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노동이 기여함을 인정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윗글과 <보기> 모두 노동이 인간의 정신보다 신체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군.
→ ③-1, ④-5에 따르면 헤겔과 마르크스는 인간이 노동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보기>-2, 4에서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이 정체성의 시련을 초래할 수 있으며, 노동을 통해 실업 피해자들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이 글과 <보기> 모두 노동이 인간의 정신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을 뿐, 노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한 부분은 이 글과 <보기> 모두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③ 윗글의 노동의 한계는 <보기>의 노동의 종말로 인해 나타난 결과이겠군.
→ ③-9와 ④-8에서 언급하고 있는 노동의 한계는 '주객 통일의 한계'이다. <보기>에서 노동의 종말은 '여가적 삶의 증대'와 '정체성의 시련'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글에 언급된 노동의 한계와 관련이 없다.
- ④ 윗글의 노동의 기능은 <보기>의 노동의 기능과 대립하고 있군.
→ 이 글에서는 노동의 기능을 사적 소유권의 근거(②-6), 자기의식과 정체성 확보의 계기(③-1), 주객 통일의 과정이자 자아실현의 과정(④-7)으로 보았다. <보기>에서는 노동의 기능을 인간이 삶의 이유를 찾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기회라고 보았으므로 이 글과 <보기>에서 노동의 기능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윗글은 <보기>와 달리 사회 변화가 노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언급하고 있군.

➡ ④-8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의 한계가 사회적 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되므로, 사회 구조를 변혁하여 노동을 통한 인간의 자아실현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보기>에서는 첨단 과학 기술이 생산 수단에 접목되는 상황으로 노동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므로, 이 글과 <보기> 모두 사회 변화가 노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언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문제 하이라이트

41쪽

(1) × (2) 가치 (3) ○ (4) 주객 (5) × (6) × (7) ×

선지 + ⑥ × ⑦ ○ ⑧ ×

선지 +

- ⑥ ②-7에서 로크는 모든 노동이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보기>에서도 모든 노동이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의 근거가 된다고 볼 만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⑦ ③-1, ④-5에서 헤겔과 마르크스는 노동을 통해 인간이 자기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보기>-4에서는 노동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글과 <보기> 모두 노동을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보았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 ⑧ ④-4~5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노동 과정에서 주체의 욕구나 목적 등이 물질화되어 구체적 노동 산물이 되며, 인간은 노동 산물에서 자기의식과 정체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하였다. <보기>에 나타난 '정체성의 시련'은 노동의 종말에 따른 부정적 결과이므로, 이 글에 언급된 노동의 산물로 볼 수 없다.

05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

42~44쪽

1 ② 2 ④ 3 ⑤ 4 ⑤

- ① 1브레송은 일상의 순간에 예술적 생명감을 불어넣은 '결정적 순간'의 미학을 탄생시킨 사진작가이다. 2그는 피사체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사체의 자연스러운 동작이나 표정을 찍는 사진 기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예술성을 드러내었다. 3'결정적 순간'의 미학을 탄생시킨 브레송에 대한 소개
- ② 1브레송은 자신의 예술성을 드러내기 위해 안정된 구도와 유동성을 기반으로 하여 움직임 가운데 균형을 잡아낸 사진을 촬영하였다. 2안정된 구도란 회화에 기초한 구도를 통해 사진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3그가 사용한 회화의 구도는 황금분할 구도, 기하학적 구도, 주요 요소들을 대비시킨 구도였다. 4황금분할 구

도는 3:2의 비율로 화면을 분할한 것이고, 기하학적 구도는 여러 종류의 도형이 채워져 있는 것이다. 5주요 요소들 간의 대비로는 동(動)과 정(靜)의 대비, 상하 대비, 좌우 대비, 좌우 대각선 대비 등을 사용하였다. 6그는 이와 같은 안정된 구도의 기반이 되는 공간을 미리 계획하였다. 7그리고 유동성은 움직이는 대상에 집중하는 것으로, 그는 자신이 미리 계획했던 구도에 움직이는 대상이 들어와 원하는 형태적 구성을 완성한 순간이 포착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렸다. 8한편 카메라를 눈의 연장으로 생각했던 그는, 화각이 인간의 시야와 가장 비슷한 표준 렌즈를 주로 사용해 사람의 눈높이에서 촬영했다. 9이때 화각은 카메라 렌즈를 통해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범위를 뜻한다. 10그는 표준 렌즈에 비해 화각이 넓은 광각 렌즈나 플래시의 사용을 가급적 피했다. 11이런 장치를 사용하면 눈으로 보는 실제 모습과 달라지기 때문이다. () : 브레송이 표준 렌즈를 사용한 이유-눈으로 보는 실제 모습과 가깝게 하기 위해

- ③ 1그는 <순간 이미지>라는 자신의 사진집에서 '결정적 순간'이란 어떤 하나의 사실과 관련해 시각적으로 포착된 다양한 모습들이 하나의 긴밀한 구성을 이루고, 그 구성 안에 의미가 실리는 것을 순간적으로 동시에 인식하는 것이라 정의 내렸다. 2그는 내용과 구성이 조화를 이룬 '결정적 순간'을 발견하고 타이밍에 맞추어 촬영하였던 것이다. 3브레송이 정의한 '결정적 순간'의 의미
- ④ 1이후 사진작가들에게 브레송의 미학은 큰 영향을 주었다. 21960년대부터 활동한 마크 코헨은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에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고자 했다. 3그는 돌발성을 기반으로 한 직접 촬영 방식을 택해 독특하면서도 기발한 결정적 순간을 포착했다. 4그는 광각 렌즈를 부착한 카메라를 들고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돌발적으로 접근해 카메라를 허리 밑에 위치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각도로 촬영하였다. 5그리고 그는 대상의 일부분만을 잘라낸 구도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플래시를 사용해 그림자의 모양을 자신의 의도대로 변화시키기도 하였다. 6즉 그는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사진을 촬영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눈으로 보는 세상과는 다르게 보이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자신만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한 것이다. 7마크 코헨의 촬영 기법의 특징
- ⑤ 이처럼 예술가가 자신이 원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 준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은 사진작가 각자의 개성이 담긴 결정적 순간으로 확대되면서 예술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8'결정적 순간'의 예술사적 의의

1 전개 방식 파악하기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② '결정적 순간'의 의미를 설명하며 이후에 끼친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 ➡ 이 글은 ①~③에 걸쳐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으며, ④에서 마크 코헨이 '결정적 순간'에 받은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뒤 ⑤에서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이 예술 지평을 넓혔다는 예술사적 의의를 밝히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2 세부 내용 파악하기

다음은 윗글을 읽은 후 정리한 독서 노트이다.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알게 된 점	브레송의 사진에 회화가 미친 영향 ①
	브레송의 사진에 주로 사용된 구도 ②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이 갖는 예술사적 의의 ③
더 알고 싶은 내용	마크 코헨이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 렌즈 ④
	마크 코헨의 결정적 순간이 잘 드러난 대표 작품 ⑤

정답인 이유

- ④ 마크 코헨이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 렌즈
 ➡ ④-4에 마크 코헨이 주로 '광각 렌즈'를 사용하였음이 나타나 있으므로, ④는 더 알고 싶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브레송의 사진에 회화가 미친 영향
 ➡ ②-1~3에서 브레송이 회화의 구도인 황금분할 구도, 기하학적 구도, 주요 요소들을 대비시킨 구도를 활용하여 안정된 구도의 기반이 되는 공간을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브레송의 예술성을 드러내기 위한 기반인 안정된 구도를 구성하는 데 회화가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브레송의 사진에 주로 사용된 구도
 ➡ ②-3에서 브레송이 주로 황금분할 구도, 기하학적 구도, 주요 요소들을 대비시킨 구도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이 갖는 예술사적 의의
 ➡ ⑤에서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이 사진작가 각자의 개성이 담긴 결정적 순간으로 확대되면서 예술 지평을 넓혔다는 예술사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마크 코헨의 결정적 순간이 잘 드러난 대표 작품
 ➡ 마크 코헨의 대표 작품은 이 글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더 알고 싶은 내용'으로 정리한 것은 적절하다.

3 정보 간의 관계 파악하기

①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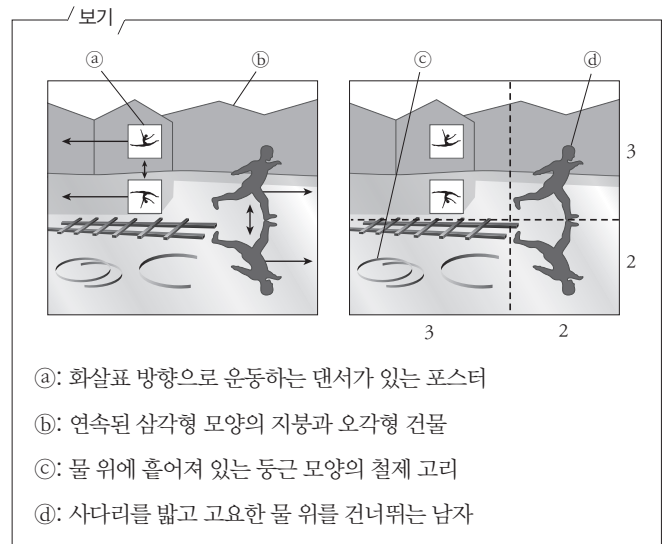
- ⑤ ㉠과 ㉡은 모두 돌발성을 기반으로 하여 사진작가의 의도대로 촬영하였다.
 ➡ 돌발성을 기반으로 하여 사진을 촬영한 것은 ㉠(마크 코헨)이다 (④-3). ㉡(브레송)은 돌발성이 아니라 안정된 구도와 유동성을 기반으로 사진을 촬영하였다(②-1).

오답 피하기

- ① ㉠은 내용과 구성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을 촬영하였다.
 ➡ ③-2에서 ㉠이 내용과 구성이 조화를 이룬 결정적 순간을 발견하고, 이를 타이밍에 맞추어 촬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은 카메라의 위치나 렌즈 선택 시 사람 눈과의 유사성을 중시하였다.
 ➡ ②-8에서 ㉠이 화각이 인간의 시야와 가장 비슷한 표준 렌즈를 주로 사용한 것을 통해 그가 렌즈 선택 시 사람 눈과의 유사성을 중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은 근접 촬영을 통해 독특하고 기발한 이미지를 담았다.
 ➡ ④-3에서 ㉡이 근접 촬영 방식을 통해 독특하고 기발한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은 인공의 빛을 이용해 눈으로 보는 세상과는 다른 순간을 포착하였다.
 ➡ ④-5~6에서 ㉡이 플래시를 사용하여 눈으로 보는 세상과 다르게 보이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자신만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는 브레송의 '생 라자르 역(1932)'을 분석하기 위한 그림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⑤ 남자와 포스터 속 댄서를 좌우 대각선에 배치한 것에서 따라 계획한 구도에 변화를 주었음을 알 수 있군.
 ➡ ②-6~7에 따르면 브레송은 안정된 구도의 기반이 되는 공간을 미리 계획하고, 그 구도에 움직이는 대상이 들어와 원하는 형태적 구성이 완성된 순간을 포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남자와 포스터 속 댄서를 좌우 대각선에 배치한 것은 구도를 미리 계획한 것이지, 계획한 구도에 변화를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

- ① 움직이는 남자와 고요한 물에서 동과 정의를 대비를 확인할 수 있고, ②-5에서 브레송이 안정된 구도를 위해 동과 정의 대비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보기>의 남자와 물에서 동과 정의 대비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남자와 그림자, 포스터와 그림자의 위치에서 상하 대비를 보이는 안정된 구도를 확인할 수 있고, ②-5에서 브레송이 안정된 구도를 위해 상하 대비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보기>의 포스터와 남자의 아래로 물에 비친 그림자가 각각 배치되어 있는 것에서 상하 대비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건물, 지붕, 사다리, 고리의 모습에서 여러 종류의 도형이 이루는 기하학적 구도를 찾아볼 수 있고, ②-4에 따르면 기하학적 구도란 여러 종류의 도형이 채워져 있는 것이다. <보기>의 ⑥에서 삼각형과 오각형, ⑦에서 원, ⑧ 위에 위치한 사다리에서 사각형을 사용하여 기하학적 구도를 이룬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남자와 그림자가 일정한 비율로 분할된 곳에 위치한 것에서 황금분할에 기초한 구도를 찾아볼 수 있고, ②-4에 따르면 황금분할 구도란 3:2의 비율로 화면을 분할한 것이다. <보기>에서 남자와 그림자가 3:2의 비율로 분할된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황금분할에 기초한 구도를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문제 하이라이트

45쪽

(1) ○ (2) 안정된 구도 (3) ○ (4) 도형 (5) ○ (6) ○ (7) ×

선지 + ⑥ ○ ⑦ × ⑧ ○

선지 +

- ⑥ ②-3~5에 따르면 브레송은 상하 대비, 좌우 대비, 좌우 대각선 대비 등 주요 요소들을 대비하는 회화적 구도를 활용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보기>에서 ⑦ 아래에 있는 반원 고리를 좌우로 배치한 것은 회화적 구도 중 주요 요소의 좌우 대비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⑦ ②-2~3에 따르면 브레송은 작품의 안정된 구도를 위해 황금분할 구도, 기하학적 구도 등을 활용하였다. <보기>에서도 이러한 구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기>가 불균형한 구도를 기반으로 한다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⑧ ②-7에서 브레송이 안정된 구도와 유동성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이 원하는 형태적 구성을 완성한 순간을 포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서 움직이는 남자의 모습을 포착한 것이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06 하이퍼리얼리즘

46~48쪽

1 ① 2 ⑤ 3 ② 4 ③

- ① 미술관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관광객 차림의 부부를 본다면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미술 작품이라는 것을 알면 놀랄 것이다. 이처럼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재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하는 유파를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 한다. 하이퍼리얼리즘의 개념
- ② 관광객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고르면 현실성이 높다고 하고, 그 대상을 시각적 재현에 기대어 실재와 똑같이 표현하면 사실성이 높다고 한다. 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을 모두 추구한 하이퍼리얼리즘은 같은 리얼리즘 경향에 드는 팝아트와 비교하면 그 특성이 잘 드러난다. 이들은 1960년대 미국에서 발달하여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는 유파로,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팝아트는 주로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하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의 현실성뿐만 아니라 트루프러이의 흐름을 이어 표현의 사실성도 추구한다. 팝아트는 대상의 정확한 재현보다는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인체 매체를 주로 활용한 반면에, 하이퍼리얼리즘은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을 적극 사용하여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 방법을 추구하였다. 하이퍼리얼리즘과 팝아트의 공통점과 차이점
- ③ 자본주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하이퍼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작가에는 헨슨이 있다. 그의 작품 <쇼핑 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 (1969)>는 물질적 풍요함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당시 현대인을 비판적 시각에서 표현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작품의 대상은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와 여자이다. 그녀는 욕망의 주체이며 물질에 대한 탐욕을 상징하고 있고,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는 욕망의 객체이며 물질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여자가 상품이 넘칠 듯이 가득한 쇼핑 카트를 밀고 있는 구도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의 과잉 소비 성향을 보여 준다. 헨슨 작품의 주제, 헨슨의 작품이 보여주는 자본주의 일상
- ④ 이 작품의 기법을 보면, 생활공간에 전시해도 자연스럽도록 작품을 전시 받침대 없이 제작하였다. 사람을 보고 찰흙으로 형태를 만드는 방법 대신 사람에게 직접 석고를 덧발라 형태를 뜨는 실물 주형 기법을 사용하여 사람의 형태와 크기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또한 기존 입체 작품의 재료인 청동의 금속재 대신에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 섬유 등을 사용하고 에어브러시로 채색하여 사람 피부의 질감과 색채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여기에 오브제인 가발, 목걸이, 의상 등을 덧붙이고 쇼핑 카트, 식료품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실성을 높였다. 헨슨이 사용한 하이퍼리얼리즘 기법
- ⑤ 리얼리즘 미술의 가장 큰 목적은 현실을 포착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작가가 포착한 현실을 전달하는 표현 방법은 다양하다. 하이퍼리얼리즘과 팝아트 등의 리얼리즘 작가들은 대상들

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함축적으로 변형하는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현실을 전달하여 감상자와 소통하고 있다. ▶ 리얼리즘 미술의 목적과 리얼리즘 작가들의 소통 방법

1 정보 간의 관계 파악하기

㉠과 ㉡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①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은 모두 당시 자본주의의 일상을 대상으로 삼아 ㉠을 높였다.
→ ㉡-1에 따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작품 대상으로 고를 때 현실성이 높다고 한다. ㉡-3에서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은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은 점이 공통적이라고 하였으므로, 모두 ㉠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다는 점에서 하이퍼리얼리즘과 달리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1의 내용으로 볼 때, ㉡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품의 대상을 실제와 똑같이 재현해야 한다. ㉡-4에 따르면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팝아트가 아니라 하이퍼리얼리즘이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③ 하이퍼리얼리즘이 팝아트와 달리 트롱프뢰유의 전통을 이은 것은 ㉠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 ㉡-5에서 하이퍼리얼리즘이 트롱프뢰유의 흐름을 이은 것은 ㉠이 아니라 ㉡을 추구하기 위해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이 주로 인쇄 매체를 활용한 것은 ㉡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 ㉡-6에 따르면 팝아트는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한 반면, 하이퍼리얼리즘은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팝아트가 인쇄 매체를 활용한 것은 ㉡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중과 쉽게 소통하기 위해서이다.
- ⑤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은 모두 ㉠과 ㉡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리얼리즘 유파에 해당한다.
→ ㉡-5에 따르면 팝아트는 ㉠을 추구한 반면, 하이퍼리얼리즘은 ㉠과 ㉡을 모두 추구하였다.

2 세부 내용 파악하기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⑤ 당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합리적인 소비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비자와 상품을 제시하였다.
→ ㉢-2, 5의 내용으로 볼 때, ㉢은 당시 현대인의 물질적 풍요 속에서의 과잉 소비 성향을 비판하는 작품이다. 따라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비자와 상품을 제시한 것을 '합리적인 소비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재현한 인체에 실제 사물인 오브제를 덧붙이고 받침대 없이 전시하여 실재처럼 보이게 하였다.
→ ㉣-1~2,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찰흙으로 원형을 만들지 않고 사람에게 석고를 덧붙여 외형을 뜨는 기법을 사용하여 형태를 정확히 재현하였다.
→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현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욕망의 주체는 실물과 똑같은 크기로, 욕망의 객체는 실제 그대로 제시하였다.
→ ㉢-4에 따르면 ㉢의 '그녀(사람)'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상징하는 욕망의 주체이며,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는 물질을 상징하는 욕망의 객체이다. ㉣-2에서 욕망의 주체인 '그녀'의 형태, 크기를 사람과 똑같이 재현하였음을, ㉣-4에서 욕망의 객체인 쇼핑 카트를 그대로 사용하여 사실성을 높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인체의 피부 질감을 재현할 수 있었던 것은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 섬유 따위의 신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단어의 의미 파악하기

문맥상 ㉠~㉣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정답인 이유

- ② ㉠: 그때는 언니도 노래를 잘 부르는 축에 들었다.
→ ㉠의 '들다'는 '어떤 범위나 기준, 또는 일정한 기간 안에 속하거나 포함되다.'의 뜻이다. ②의 '들다'는 '언니'가 '노래를 잘 부르는 축'이라는 특정 기준 안에 포함된다는 뜻이므로, ㉠의 '들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① ㉡: 누나가 그린 그림을 벽면 한쪽에 기대어 놓았다.
→ ㉡의 '기대다'는 '남의 힘에 의지하다.'의 뜻이다. ①의 '기대다'는 '몸이나 물건을 무엇에 의지하면서 비스듬히 대다.'라는 뜻으로, ㉡의 의미와 거리가 멀다.
- ③ ㉢: 1학년이 출발한 데 이어 2학년도 바로 출발했다.
→ ㉢의 '잇다'는 '끊어지지 않게 계속하다.'의 뜻이다. ③의 '잇다'는 '뒤를 잇따르다.'라는 뜻으로, ㉢의 의미와 거리가 멀다.
- ④ ㉣: 사무실에는 회계를 보는 직원만 혼자 들어갔다.
→ ㉣의 '보다'는 '대상의 내용이나 상태를 알기 위하여 살피다.'의 뜻이다. ④의 '보다'는 '어떤 일을 맡아 하다.'라는 뜻으로, ㉣의 의미와 거리가 멀다.
- ⑤ ㉤: 그는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의 '높이다'는 '품질, 수준, 능력, 가치 따위가 보통보다 위에 있다.'의 뜻을 지닌 '높다'가 사동으로 쓰인 것이다. ⑤의 '높였다'는 '어떤 의견이 다른 의견보다 많고 우세하다.'라는 뜻을 지닌 '높다'가 사동으로 쓰인 것으로, ㉤의 의미와 거리가 멀다.

4 글의 내용 및 관점 비판하기

윗글의 '한스'의 작품과 <보기>의 작품을 바탕으로 할 때, 작가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를 비평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 쿠넬리스, <무제>



▲ 코수스,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

쿠넬리스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살아 있는 말 12마리를 화랑 벽에 매어 놓고, 감상자가 화랑이라는 환경 안에 놓인 실제 말들의 존재와 말들의 온기와 냄새, 그리고 소리를 체험해서 다양하게 작품의 의미를 만들도록 하였다.

코수스는 '의자의 사진', '실제 의자', '의자의 언어적인 개념' 세 가지 모두를 한 공간에 배치하여, 대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정답인 이유

③ 쿠넬리스가 한스에게: 미술에서 재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물 주형의 기법보다 대상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 이 글의 한스는 실물 주형 기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똑같이 재현하는 기법을 사용하였고(㉠-2), <보기>의 쿠넬리스는 실제 살아 있는 말을 그대로 작품으로 제시하여 감상자가 대상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쿠넬리스는 한스에게 실물 주형의 기법보다 대상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재현 방법이라고 비평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한스가 쿠넬리스에게: 미술은 시각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등 다양한 체험이 감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 ㉠에 따르면 한스는 실물 주형 기법을 사용하여 사람의 형태와 크기를 똑같이 만들어 내는 등 시각적인 면에서 대상을 실재와 같이 재현하려 하였다. 한편 <보기>의 쿠넬리스는 <무제>라는 작품에서 온기, 냄새, 소리를 통해 다양한 감각 체험이 가능하도록 실제 대상을 그대로 제시하였으므로, 한스가 아니라 쿠넬리스가 미술 작품에서의 다양한 체험을 강조할 것이다.

② 한스가 코수스에게: 미술에서 대상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치 있어야 한다.

➡ ㉢에서 한스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 대상을 작품 소재로 활용하여 작품의 현실성을 높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스가 미술에서의 대상이 역사적·정치적으로 가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④ 쿠넬리스가 코수스에게: 미술에서 작품의 의미는 감상자가 실제 대상을 대면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 <보기>에서 쿠넬리스는 <무제>라는 작품을 통해 감상자가 실제 대

상을 대면하고 체험함으로써 작품의 의미를 다양하게 만들도록 하였으며, 코수스는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라는 작품에서 작가의 생각, 의도를 담아 '의자의 사진', '실제 의자', '의자의 언어적인 개념'을 한 공간에 배치하였다. 즉, 작가에 의해서 작품의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은 쿠넬리스가 아니라 코수스의 생각에 가깝다.

⑤ 코수스가 쿠넬리스에게: 미술에서 대상을 재현할 때는 대상의 이미지보다 그 대상 자체만을 제시해야 한다.

➡ <보기>에 따르면 코수스는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라는 작품에서 실제 의자뿐만 아니라 의자의 사진과 의자의 언어적인 개념도 함께 제시하였다. 즉, 코수스는 미술에서 대상을 재현할 때 대상 자체만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문제 하이라이트

49쪽

(1) × (2) ○ (3) × (4) × (5) ×

선지+ ⑥ ○ ⑦ × ⑧ ×

선지+

⑥ ㉠의 '잇다'는 '끊어지지 않게 계속하다.'의 뜻이다. ⑥에서 '잇다'는 '그'가 하던 말을 '끊어지지 않게 계속하다.'의 뜻으로 쓰였으므로, ㉠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⑦ ㉣의 '보다'는 '대상의 내용이나 상태를 알기 위하여 살펴다.'의 뜻이다. ⑦에서 '보다'는 '일정한 목적 아래 만나다.'의 뜻으로 쓰였으므로, ㉣의 의미와 거리가 멀다.

⑧ ㉠의 '높이다'는 '품질, 수준, 능력, 가치 따위가 보통보다 위에 있다.'의 뜻을 지닌 '높다'가 사동으로 쓰인 것이다. ⑧에서 '높이다'는 '지위나 신분 따위를 더 위에 있게 하다.'의 뜻을 지닌 '높다'가 사동으로 쓰인 것으로, ㉠의 의미와 거리가 멀다.

필수 어휘 ZIP

50쪽

1 (1) 동력 (2) 지평 (3) 유동성 2 (1) ㉠ (2) ㉡ (3) ㉢ 3 ㉠ 4 (1) 수용하는 (2) 매물된 (3) 배타적 5 (1) 실재 (2) 화각 (3) 식견 (4) 관념 6 (1) ○ (2) × (3) ○ (4) ×

01 금융 상품과 고객 투자 성향

52-54쪽

1 ⑤ 2 ① 3 ④

① ¹금융 상품에는 ^{투자 상품의 다양한 유형}주식, 예금, 채권 등 다양한 유형의 투자 상품이 있다. ²그중 주식은 ^{주식의 특징}예금에 비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손실의 가능성이 크고, 예금은 ^{예금의 특징}상대적으로 적은 수익을 얻지만 손실의 가능성이 적다. ³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금융 상품을 선호한다. ⁴금융 회사는 이러한 고객의 성향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투자 상품을 추천한다. ⁵그렇다면 금융 회사가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 투자 상품의 다양한 유형과 금융 상품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투자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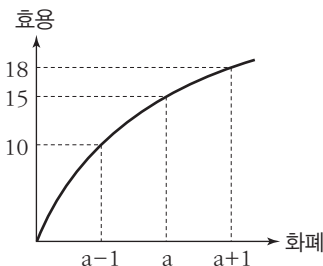
② ¹금융 회사는 ^{금융 회사가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판단하는 기준}투자의 기대 효용에 대한 고객들의 태도 차이를 기준으로 고객들을 ^{고객들의 투자 유형}위험 추구형, 위험 회피형 등으로 분류한다. ²투자의 기대 효용이란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의 기댓값으로, 투자 수익에 그것이 발생할 확률을 곱한 값과 투자 손실에 그것이 발생할 확률을 곱한 값의 총합을 의미한다. ³예를 들어, 어떤 금융 상품 ㉠에 500원의 비용을 들여 투자할 때, 40%의 확률로 2,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60%의 확률로 투자한 500원을 모두 잃는다고 가정해 보자. ⁴그렇다면 이 상품의 기대 효용은 투자 수익인 2,000원에 40%를 곱한 값 ($2,000 \times 0.4 = 800$)과 투자 손실인 -500원에 60%를 곱한 값 ($-500 \times 0.6 = -300$)의 총합인 500원이 된다.

▶ 투자의 기대 효용의 개념과 계산 방법

③ ¹고객들의 투자 유형은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용과 투자를 하지 않고 화폐를 보유할 때의 효용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눌 수 있다. ²투자보다 화폐 보유를 선호하면 위험 회피형이고 투자를 통한 기대 효용을 선호하면 위험 추구형이다. ³즉, 투자한 500원을 모두 잃을 수 있음에도 금융 상품 ㉠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위험 추구형이고, 손실을 우려하여 500원을 투자하지 않고 화폐로 보유하려는 사람은 위험 회피형이다.

▶ 투자의 기대 효용을 기준으로 한 고객들의 투자 성향 분류

④ ¹이처럼 기대 효용이 같더라도 소비자들이 보이는 태도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를 한계 효용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²제시된 그래프는 어떤 사람이 느끼는 화폐에 대한 효용을 나타낸 것이다. ³그래프를 보면 투자에 성공해서 화폐가 a에서 a+1로 1단위 증가할 경우 한계 효용은 15와 18의 차이인 3이 된다. ⁴반대로 투자에 실패하여 화폐가 a에서 a-1로 1단위 감소할 경우 한계 효용은 15와 10의 차이인 5가 된다. ⁵이 사람은 투자에서 성공했을 때 오는 만족(3)보다 투자에서 실패했을 때 오는 불만족(5)을 더 크게 인식



하므로 투자를 하지 않는 위험 회피형의 성향을 보일 것이다. ⁶만일 ㉠ 투자 실패로 인한 불만족보다 투자 성공으로 인한 만족을 더 크게 여기는 경우에는 위험 추구형 성향을 보이게 될 것이다.

▶ 한계 효용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소비자의 투자 성향

⑤ ¹금융 회사는 이러한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분류하여 위험 회피형인 고객에게는 예금과 같이 안전성이 높은 상품을 추천하고, 위험 추구형인 고객에게는 손실의 위험이 있더라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추천하게 된다. ²이와 같은 방식으로 금융 상품을 추천했을 때, 금융 회사는 더 많은 고객들과 더 많은 투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 금융 회사의 투자 성향 분류 효과

1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윗글에서 언급된 정보가 아닌 것은?

정답인 이유

⑤ 투자 상품의 다양화 방안

➔ 이 글에 투자 상품의 다양화 방안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파악하기

① 투자 상품의 유형

➔ ①-1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기대 효용의 계산 방법

➔ ②-2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투자 성향의 판단 기준

➔ ②-1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투자 성향의 분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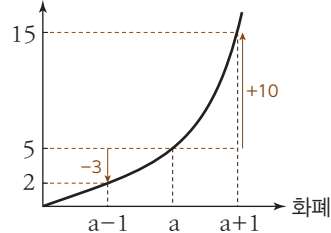
➔ ⑤에서 금융 회사는 고객들의 투자 성향 분류를 통해 고객 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을 추천하여 더 많은 고객과 투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는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2 추론의 적절성 판단하기

①과 같은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의 화폐에 대한 효용 그래프로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① 효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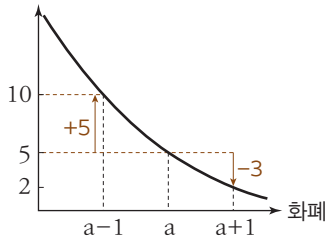


➔ ④-6에 따르면 ①은 위험 추구형 성향에 해당한다. 이는 화폐가 a에서 a-1로 감소할 때의 한계 효용보다 a에서 a+1로 증가할 때의 한계 효용이 더 큰 경우이다. ①의 그래프에서 화폐가 a에서 a-1로 감소할 때의 한계 효용은 3이고, a에서 a+1로 증가할 때의 한계 효용은

10이다. 투자 실패에 따른 불만족(3)보다 투자 성공에 따른 만족(10)이 더 크므로, ①은 위험 추구형 성향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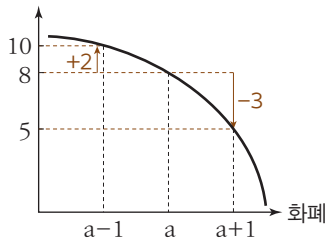
오답 피하기

② 효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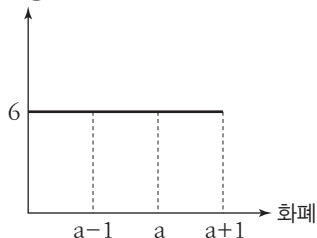
➔ 위험 추구형 성향을 가진 사람의 화폐에 대한 효용 그래프에서는 화폐가 증가할 때의 만족이 화폐가 감소할 때의 불만족보다 크게 나타난다. 이 그래프에서는 화폐가 a에서 a-1로 감소할 때 효용이 5에서 10으로 증가하고, a에서 a+1로 증가할 때 효용은 5에서 2로 감소한다. 즉, 화폐가 증가할 때 오히려 만족도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므로 위험 추구형 성향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적절하지 않다.

③ 효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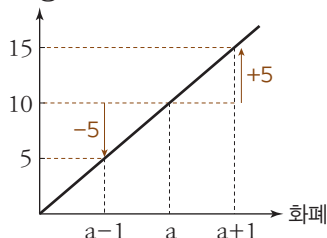
➔ 화폐가 a에서 a-1로 감소할 때 효용이 8에서 10으로 증가하고, a에서 a+1로 증가할 때 효용은 8에서 5로 감소한다. 화폐가 증가할 때 오히려 만족도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므로, 위험 추구형 성향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적절하지 않다.

④ 효용



➔ 화폐가 a에서 a-1로 감소할 때와 a에서 a+1로 증가할 때의 한계 효용이 0으로 동일하다. 즉, 만족도에 변화가 없다. 따라서 위험 추구형 성향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적절하지 않다.

⑤ 효용



➔ 화폐가 a에서 a-1로 감소할 때 효용이 10에서 5로 감소하며, a에서 a+1로 증가할 때 효용은 10에서 15로 증가한다. 즉, 투자 성공에 따른 만족(5)과 투자 실패에 따른 불만족(5)이 동일하므로, 위험 추구형 성향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적절하지 않다.

3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갑’, ‘을’, ‘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귀하는 50만 원의 현금을 보유하거나 다음의 두 상품 중 하나에 투자를 해야 한다면, 어느 경우를 더 선호하십니까?

(단위: 만 원)

	투자 비용	투자 수익	수익을 얻을 확률	기대 효용
A상품	50	450	20%	50
B상품	50	200	40%	50

‘수익을 얻을 확률’로 볼 때, A, B상품의 투자 실패 확률은 각각 80%, 60%임.

	A상품	B상품	현금 보유
갑		✓	
을	✓		
병			✓

투자를 통한 기대 효용을 선호하는 ‘갑’과 ‘을’은 위험 추구형 성향이고, 현금 보유를 선호하는 ‘병’은 위험 회피형 성향임(㉠-2).

정답인 이유

④ ‘병’은 ‘갑’과 달리 A상품이 B상품보다 투자 실패 확률이 더 크다고 보겠군.

➔ A상품은 수익을 얻을 확률이 20%이므로 투자 실패 확률은 80%이고, B상품은 수익을 얻을 확률이 40%이므로 투자 실패 확률은 60%이다. 즉, A상품이 B상품보다 투자 실패 확률이 높다. 이는 객관적인 지표이므로, ‘병’과 ‘갑’이 이를 다르게 보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갑’은 ‘병’에 비해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선호하겠군.

➔ ‘갑’ 손실 위험이 있는 B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병’은 투자하지 않고 현금을 보유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로 볼 때, ‘갑’은 위험 추구형 투자자, ‘병’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이므로, ‘갑’은 ‘병’보다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② ‘갑’과 ‘을’은 화폐를 보유하기보다 투자를 통해 얻는 기대 효용을 선택하였군.

➔ ‘갑’은 B상품에, ‘을’은 A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모두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기대 효용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을’은 ‘갑’에 비해 투자할 때 위험을 더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는군.

➔ ‘을’은 수익을 얻을 확률이 20%로 낮지만 450만 원의 큰 수익을 얻는 A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갑’은 수익을 얻을 확률이 40%로 비교적 높지만 200만 원의 수익을 얻는 B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 ‘갑’과 ‘을’이 모두 위험 추구형 투자자임을 고려할 때, ‘을’이 ‘갑’보다 투자 위험을 더 추구하는 성향이라 볼 수 있다.

⑤ ‘병’은 ‘을’에 비해 투자 성공의 만족보다 투자 실패의 불만족을 더 크게 인식하겠군.

➔ ④-5에서 투자 성공의 만족보다 투자 실패의 불만족을 더 크게 인식하는 사람은 위험 회피형 성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병’이 현금 보유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때 그가 위험 회피형 성향임을 알 수 있으므로, A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 ‘을’에 비해 투자 성공의 만족보다 투자 실패의 불만족을 더 크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 하이라이트

55쪽

(1) ○ (2) ○ (3) 기대 효용 (4) ○ (5) 투자 자금 (6) ○ (7) ×

선지 + ⑥ ○ ⑦ × ⑧ ×

선지 +

- ⑥ ①-2에서 수익과 손실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금융 상품인 주식과 예금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
- ⑦ 이 글에서는 한계 효용의 개념으로 소비자의 태도를 설명했을 뿐, 한계 효용의 문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 ⑧ 이 글은 금융 회사가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금융 회사의 투자 상품 유치 방법은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02 집합 의례

56-58쪽

1 ③ 2 ④ 3 ① 4 ① 5 ②

- ① '사람들은 함께 모여 '집합 의례'를 행한다. ② 뒤르켐은 오스트레일리아 부족들의 집합 의례를 공동체 결속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③ 뒤르켐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 ① 족 사람들은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계 활동을 멈추고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聖)과 속(俗)의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이 상황이 성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속된 것인지를 판별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④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스러움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고 그것을 중심으로 약해진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재생한다. ⑤ 집합 의례가 끝나면 부족 사람들은 가슴속에 성스러움을 품고 일상의 속된 세계로 되돌아간다. ⑥ 이로써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에 불과했던 생계 활동이 성스러움과 연결된 도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 ② 뒤르켐은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가 기존 도덕 공동체의 재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할 것이라고 본다. ②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우애와 같은 새로운 성스러움을 창출하고 뒤르켐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 ②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한 집합 의례다. ③ 뒤르켐은 새로 창출된 성스러움이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속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서로 결속할 수 있는 도덕적 의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여긴다.

③ ① 파슨스와 스멜서는 이러한 이론적 통찰을 기능주의 이론으로 구체화한다. ② 그들은 성스러움을 가치라는 말로 바꿔 표현한다. ③ 현대 사회에서는 가치가 평상시 사회적 삶 아래에 잠재되어 있다가, 그 도덕적 의미가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위기 시기에 위로 올라와 전국적으로 일반화된다. ④ 속된 일상에서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이해관계를 구체화한 목표와 이의 실현을 안내하는 규범에 따라 살아가다. ⑤ 하지만 위기 시기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들의 특수한 이해관계에서 보편적인 가치로 상승한다. ⑥ 사람들은 가치에 기대어 위기가 주는 심리적 긴장과 압박을 해소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⑦ 그 결과 사회의 통합이 회복된다. ⑧ 파슨스와 스멜서는 이것이 마치 유기체 파슨스와 스멜서가 본 집합 의례의 결과가 환경의 압박으로 인해 흐트러진 항상성의 기능을 생리 작용을 통해 회복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다. ⑨ 집합 의례에 대한 파슨스와 스멜서의 이론

④ ① 알렉산더는 파슨스와 스멜서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이 사용한 생물학적 은유가 복잡한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를 탐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사회적 공연론'을 제시한다. ② 그는 가치를 전 사회로 일반화하는 집합 의례가 현대 사회에서는 유기체의 생리 작용처럼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과정이라고 본다. ③ 현대 사회는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이 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요소가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④ 따라서 이 요소들을 융합하는 사회적 공연은 우발성이 극대화된 문화적 실천을 요구한다. ⑤ 알렉산더가 기능주의 이론과 달리 공연의 요소들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융합이 이루어지는지 경험적으로 세밀하게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⑤ ① 현대 사회의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로는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다양하게 구체화한 대본, 다양한 대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행하는 배우, 계급·출신 지역·나이·성별 등 내부적으로 분화된 관객,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동선을 짜서 공연을 무대 위에 올리는 미장센,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공연을 광범위한 관객에게 전파하는 상징적 생산 수단, 공연을 생산하고 배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고도로 분화된 사회적 권력 등이 있다. ② 그러나 요소의 분화와 자율성이 없는 전제주의 사회에서는 국가 권력에 의한 대중 동원만 있을 뿐 사회적 공연이 일어나기 어렵다.

1 전개 방식 파악하기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③ 중심 화제에 대한 이론이 후속 연구에 의해 보완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 ② 이 글은 ①~②에서 집합 의례에 대한 뒤르켐의 이론을 소개한 뒤, ③에서 '이러한 이론적 통찰(뒤르켐의 이론)'을 기능주의 이론으로 구체화한 파슨스와 스멜서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뒤 ④~⑤에서 파슨스와 스멜서의 이론의 한계를 밝히고 그 대안으로

‘사회적 공연론’을 제시한 알렉산더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중심 화제인 ‘집합 의례’에 대한 이론이 후속 연구에 의해 보완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중심 화제에 대해 주요 학자들이 합의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이 글에 집합 의례에 대해 주요 학자들이 합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중심 화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제시한 후 두 견해를 절충하고 있다.
→ ④-1~2에 파슨스와 스멜서의 이론과 상반된 알렉산더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으나, 글에서 두 견해를 절충하고 있지는 않다.
- ④ 중심 화제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한 후 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 ①과 ②-2에 뒤르켐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오스트레일리아 부족들의 집합 의례와 프랑스 혁명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유형별로 분류한 것은 아니다.
- ⑤ 중심 화제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고 있다.
→ 이 글에 집합 의례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다양한 가설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세부 내용 파악하기

‘집합 의례’에 대해 ㉠이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④ 공동체 성원들은 집합 의례를 거쳐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묶인다.
→ ②-3에 따르면 뒤르켐은 속된 세계에서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개인들이 집합 의례를 통해 서로 결속할 수 있는 도덕적 의미를 제공받을 것이라고 보았다. 공동체 성원들이 구체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묶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부족 사회는 집합 의례를 행하여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되살린다.
→ ①-3~4에서 집합 의례의 과정을 통해 약해진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재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집합 의례를 통해 사람들은 생계 활동의 성스러운 의미를 얻는다.
→ ①-5~6에서 집합 의례를 통해 사람들의 생계 활동이 성스러움과 연결된 도덕적 의미를 지님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현대 사회에서는 집합 의례를 통해 새로운 도덕 공동체가 형성된다.
→ ②-1에 따르면 뒤르켐은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가 기존 도덕 공동체의 재생을 넘어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할 것이라고 보았다.
- ⑤ 집합 의례의 과정에서 공동체 성원들은 문제 상황을 성 또는 속의 문제로 규정한다.
→ ①-3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그 상황을 판별하는 집합 의례가 행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3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위기 시기에 일어나는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① 사람들이 관심을 속에서 성으로 옮긴다.
→ ③-4~5에서 위기 시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들의 특수한 이해관계에서 보편적인 가치로 상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때 자신들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속’, 보편적인 가치를 ‘성’으로 볼 수 있으므로, ①의 이해는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② 사람들이 목표와 규범 차원에서 행동한다.
→ ③-4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를 구체화한 목표와 이의 실현을 안내하는 규범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위기 시기가 아니라, 속된 일상 속의 모습이다.
- ③ 사람들이 생계 활동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찾는다.
→ ③-4의 내용으로 볼 때, 생계 활동을 위해 최적의 수단을 찾는 것은 가치 추구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구체화한 목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속된 일상에서의 사람들의 태도로 볼 수 있다.
- ④ 사람들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기 상황을 외면한다.
→ ③-8에서 집합 의례의 과정이 항상성의 기능을 회복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은 위기 시기에 항상성 유지를 위해 그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성을 회복하기 위해 집합 의례를 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⑤ 사람들이 평상시 추구하던 삶의 도덕적 의미를 상실한다.
→ ③-2에 따르면 파슨스와 스멜서는 뒤르켐이 말한 ‘성스러움’을 ‘가치’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하였다. ③-6에서 위기 시기에 사람들은 가치에 기대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집합 의례를 행한다고 하였으므로, 도덕적 의미를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정보 간의 관계 파악하기

윗글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① ㉠과 달리 ㉡은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는 그 결과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 ③-8에 따르면 ㉠(파슨스와 스멜서)은 집합 의례의 과정을 유기체가 항상성의 기능을 생리 작용을 통해 회복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이는 항상성의 기능 회복과 같이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의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다고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④-2에서 ㉡(알렉산더)은 집합 의례를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과정이라고 보았으므로, ①의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② ㉠과 달리 ㉡은 집합 의례가 가치의 일반화를 통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할 것이라 본다.
 → ㉡은 위기 시기에 가치의 도덕적 의미가 전국적으로 일반화되는 집합 의례의 과정을 통해 사회 통합이 회복된다고 보았으며(㉢-3, 7), ㉡은 집합 의례를 통해 가치를 전 사회로 일반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2). 이때 ㉡은 집합 의례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할 것이라 보는 뒤르캤의 이론(㉡-1)을 바탕으로 하며 ㉡은 ㉡의 이론을 일부 수용한다고 하였으므로(㉣-1), ㉠과 ㉡은 모두 집합 의례가 가치의 일반화를 통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할 것이라 보았음을 알 수 있다.
- ③ ㉠과 달리 ㉡은 집합 의례가 발생하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 ㉣-5의 내용으로 볼 때, 집합 의례의 과정을 경험적으로 세밀하게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이 아닌 ㉡이다.
- ④ ㉠과 ㉡은 모두 문화적 실천으로서의 집합 의례를 유기체의 생리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다.
 → ㉢-8에 따르면 ㉡은 집합 의례를 유기체의 생리 과정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반면, ㉣-2에 따르면 ㉡은 집합 의례가 현대 사회에서는 유기체의 생리 작용처럼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 ⑤ ㉠과 ㉡은 모두 현대 사회에서는 성과 속의 분류 체계 없이 집합 의례가 일어난다고 본다.
 → ㉢-3~5에서 ㉡은 '자기 이해관계를 구체화한 목표', '보편적인 가치'와 같이 속과 성을 분류하고 있으며, ㉤-1에서 ㉡은 사회적 공연의 요소 중 하나로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다양하게 구체화한 대본'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과 ㉡은 모두 현대 사회에서 성과 속의 분류 체계가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5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윗글에서 설명한 '사회적 공연론'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¹수려한 경관으로 유명한 A시에 소각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²A시의 시장은 정부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낙후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소각장을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³A시 시민들은 반대파와 ^{배우}찬성파로 갈려 집회를 이어 갔다. ⁴반대파는 지역 경제 발전에는 찬성하지만 소각장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찬성파는 반대파가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⁵집회에 ^{관객}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의견이 갈려 토박이와 노인은 반대 운동에, 이주민과 젊은이는 찬성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⁶중앙 언론은 이 사건이 지역 내 현상이라며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⁷반대파는 반대 운동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려 했지만 ^{사회적 권력}경찰이 허가를 내 주지 않았다.

- <보기>는 A시의 소각장 유치 논란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공연임.

정답인 이유

- ② 공연의 요소들이 융합되어 가치의 일반화가 일어났군.
 → ㉣-2, 4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가치를 전 사회로 일반화하는 집합 의례를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과정이라고 보았으며, 사회적 공연은 요소들이 융합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한편 <보기>-4~5의 내용으로 볼 때,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에서 소각장 유치에 대한 의견이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공연 요소의 융합과 가치의 일반화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공연의 미장센이 A시에 한정되어 펼쳐지고 있군.
 → <보기>의 소각장 유치 논란은 A시에 한정되어 펼쳐지고 있다.
- ③ 출신 지역과 나이로 분화된 관객이 배우로 직접 나서고 있군.
 → ㉤-1의 내용으로 볼 때, <보기>-5에서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공연 요소 중 관객에 해당한다. 한편 <보기>-5에서 이들이 토박이와 노인, 이주민과 젊은이로 나뉘어 찬반 논란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출신 지역과 나이로 분화된 관객이 배우로 나서고 있다는 이 해는 적절하다.
- ④ 상징적 생산 수단과 사회적 권력이 공연의 전국적 전파를 막으려 하는군.
 → ㉤-1의 내용으로 볼 때, <보기>-6~7에서 '중앙 언론'은 상징적 생산 수단, '경찰'은 사회적 권력에 해당한다. 중앙 언론은 A시의 논란을 보도하지 않으며, 경찰은 서울에서 집회를 열려는 반대파의 운동을 제지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공연의 전국적 전파를 막으려 한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 ⑤ 배우들이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동의하면서도 서로 다른 대본을 가지고 공연을 수행하는군.
 → <보기>-4에 따르면 반대파는 '지역 경제 발전에는 찬성'하지만 소각장 유치를 반대하고 있다. 찬성파는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소각장을 유치하려는 A시의 입장에 찬성하고 있으므로, 찬성파와 반대파의 배우들은 모두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동의하지만 서로 다른 대본으로 공연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 하이라이트

59쪽

(1) × (2) 한계 (3) × (4) 뒤르캤 (5) ○ (6) × (7) ×

선지 + ⑥ × ⑦ ○ ⑧ ×

선지 +

- ⑥ 이 글은 집합 의례에 대한 세 학자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을 뿐, 집합 의례의 특성이 변화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며 또한 이를 시대순으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 ⑦ 이 글은 집합 의례의 과정과 양상에 대하여 ㉠~㉡에서 뒤르캤의 관점을, ㉢에서 파슨스와 스텔서의 관점을, ㉣~㉤에서 알렉산더의 관점을 나열하고 있다.
- ⑧ 이 글에 집합 의례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은 나타나지 않는다.

1 ③

2 ⑤

3 ①

4 ③

① ¹국가는 자국의 힘이 외부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때나, 역사와 전통 등의 가치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는다. ²동맹결성의 핵심적인 이유는 동맹을 통해서 확보되는 이익이며 이는 동맹관계 유지의 근간이 된다.

② ¹동맹의 종류는 그 형태에 따라 방위조약, 중립조약, 협상으로 나눌 수 있다. ²먼저 방위조약은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 중 어느 한 국가가 침략을 당했을 경우, 다른 모든 서명국들이 공동방어를 위해서 참전하기를 약속하는 것이다. ³다음으로 중립조약은 서명국들 중 한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침략을 받더라도, 서명국들 간에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⁴마지막으로 협상은 서명국들 중 한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경우, 서명국들 간에 공조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차후에 협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⁵정리하면 세 가지 유형 중 방위조약의 경우는 동맹국의 전쟁에 개입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기에 동맹국 간의 정치·외교적 관계의 정도가 매우 가깝다. ⁶또한 조약의 강제성으로 인해 전쟁 발발 시 동맹관계 속에서 국가가 펼칠 수 있는 정치·외교적 자율성은 매우 낮다. ⁷즉 방위조약이 동맹국 간의 자율성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중립조약, 협상 순으로 자율성이 높아진다. ⁸한 연구에 따르면, 1816년부터 1965년까지 약 150년 간 맺어진 148개의 군사동맹 중에서 73개는 방위조약, 39개는 중립조약, 36개는 협상의 형태인데, 평균 수명은 방위조약이 115개월, 중립조약이 94개월, 협상은 68개월 정도였다. ⁹따라서

㉠

▶ 동맹의 세 가지 유형과 그 특징

③ ¹위와 같이 동맹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²그 이유에 대해 ㉠ 현실주의자들과 ㉡ 구성주의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는데, 이는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³우선 현실주의자들은 국가는 이기적 존재이며 국제 사회의 유일하고 중요한 행위 주체라고 생각한다. ⁴국제 사회는 국가 이상의 단위에서 작동하는 중앙정부와 같은 존재가 부재하는 일종의 무정부 상태이므로 개별 국가는 힘의 논리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본다. ⁵따라서 각 나라는 군사적 동맹을 통해 세력 균형을 이루어 패권 안정을 취하려 한다. ⁶특정한 패권 국가가 출현하면 그 힘을 견제하기 위한 국가들 간의 동맹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 힘에 편승하는 동맹이 형성되기도 한다. ⁷이렇듯 힘의 균형점이 이동함에 따라 세력의 균형을 끊임없이 찾는 과정에서 동맹관계는 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④ ¹구성주의자들 역시 현실주의자들처럼 동맹관계가 고정된 약속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약속이라고 본다. ²구성주의자들은 무정부적 국제 사회를 힘의 분배와 균형 등의 요소로 분석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관계에 주목한다. ³구성주의자들은 국제 사회의 구성원

들이 상호 작용을 하여 상호 간 역할과 가치를 형성하면서 국제 사회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본다. ⁴상호 작용의 변화에 따라 동맹은 달라질 수 있는데, 타국이나 국제 사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국제 사회에서의 구성원들의 역할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긍정적인 동맹관계를 맺고 평화로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동맹은 파기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동맹관계가 변하는 이유에 대한 구성주의자들의 견해

1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③ 패권 국가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그 힘에 편승한 세력들의 동맹이 필요하다.
 ➔ ③-6에 따르면 패권 국가가 출현한 이후에 그 힘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이나 그 힘에 편승하는 동맹이 형성되는 것이지, 패권 국가가 출현하기 위해 동맹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답 파악하기

- ① 국가는 동맹에 참여하여 자국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 ①-2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협상은 전쟁 발발 이후의 공조 체제 유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지 않는다.
 ➔ ②-4에서 협상은 전쟁 발발 이후의 공조 체제 유지 여부를 차후에 협의한다고 하였다.
 ④ 동맹은 국가가 전쟁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맺는 국가 간의 약속이다.
 ➔ ②-2~4에서 동맹은 조약에 서명한 국가 중 한 국가가 침략을 당했을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들 간의 약속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중립조약은 서명국이 속한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는 동맹이다.
 ➔ ②-3에서 중립조약은 서명국들 간에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동맹의 한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생략된 정보 추론하기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⑤ 동맹관계가 가깝고 자율성이 낮을수록 그 수명이 연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②-8에 따르면 동맹의 평균 수명은 방위조약이 가장 길고 중립조약, 협상 순으로 짧다. ②-5~6에서 방위조약은 동맹국 간 정치·외교적 관계의 정도가 매우 가깝고 자율성이 매우 낮다고 하였으며, ②-7에서 자율성은 방위조약, 중립조약, 협상 순으로 높아진다고 하였으므로 동맹관계가 가깝고 자율성이 낮을수록 그 수명이 연장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3 정보 간의 관계 파악하기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① 국제 사회의 문제를 ㉠은 힘의 관계에, ㉡은 상호 인식 관계에 주목하여 설명하였다.
 ➔ ㉠(현실주의자들은) 힘의 균형점이 이동함에 따라 세력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동맹관계가 변화한다고 보았으며(㉢-7), ㉡(구성주의자들은) 국제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작용 변화에 따라 동맹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4). 즉, ㉠은 국제 사회의 문제를 힘의 관계에, ㉡은 상호 인식 관계에 주목하여 설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국제 사회 혼란의 원인을 ㉠은 국가적 이기심, ㉡은 세력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보았다.
 ➔ 이 글에서 국제 사회의 혼란에 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③ 국제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은 상호 협력이, ㉡은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5~6에서 각 나라가 군사적 동맹을 통해 세력 균형을 이루어 패권 안정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볼 때, ㉠은 국제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4에서 ㉡은 국제 사회에서의 상호 작용 변화에 따라 동맹이 결성되거나 파기될 수 있다고 보았을 뿐, 국제 사회 안정을 위해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
- ④ 동맹이 변화하는 이유를 ㉠은 패권 국가의 출현으로 인한 전쟁으로, ㉡은 구성원의 자국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보았다.
 ➔ 동맹이 변화하는 이유를 ㉠은 힘의 균형점의 이동으로(㉢-7), ㉡은 국제 사회에서의 상호 작용 변화(㉣-4)로 보았다.
- ⑤ 국제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은 중앙정부와 같은 존재가, ㉡은 구성원 간의 고른 역할 분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4에 따르면 ㉠은 국제 사회는 중앙정부와 같은 존재가 부재하는 무정부 상태이므로 국가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보았을 뿐, 중앙정부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 아니다. 또한 ㉣-4에 따르면 ㉡은 국제 사회에서의 구성원들의 역할이 가치 있다고 판단될 때 긍정적인 동맹관계를 맺고 평화로울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구성원 간의 역할 분배에 대해 언급하거나 그것이 국제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는지는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4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A국은 B국과 방위조약을 맺고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A국은 B국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C국과 중립조약을 새로 체결했다. 그런데 A국의 여론은 이러한 변화에 반대한다.

정답인 이유

- ③ 현실주의자들은 A국과 B국의 동맹이 파기된 이유를, B국에 대한 A국 구성원들의 신뢰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겠군.
 ➔ ㉢-7에 따르면 현실주의자들은 힘의 균형점이 이동함에 따라 세력의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동맹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현실주의자들은 <보기>의 A국과 B국의 동맹이 파기된 이유를 '구성원들의 신뢰 약화'가 아닌 '힘의 균형점 이동' 때문이라고 설명할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A국이 B국과 동맹을 파기하기 전에는, A국은 B국의 전쟁에 참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겠군.
 ➔ <보기>에서 A국이 B국과 체결했던 동맹은 방위조약이다. ㉡-2에서 방위조약을 맺을 경우 한 국가가 침략을 당했을 때 다른 동맹국들이 공동방어를 위해 참전한다고 하였으므로, <보기>의 A국은 B국과의 동맹 파기 전까지 B국의 전쟁에 참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 ② A국이 C국과 동맹을 맺은 후에는, B국과 C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A국은 참전하지 않아야 하겠군.
 ➔ <보기>에서 A국이 C국과 체결한 동맹은 중립조약이다. ㉡-3에서 중립조약을 맺을 경우 한 국가가 침략을 당하더라도 동맹국들 간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킨다고 하였으므로, <보기>의 A국은 B국과 C국의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참전하지 않아야 한다.
- ④ 구성주의자들은 A국 구성원들이 C국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된다면, C국과의 동맹관계는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하겠군.
 ➔ ㉣-4에 따르면 구성주의자들은 타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 때, 긍정적인 동맹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동맹은 파기될 것이라 보았다. 따라서 구성주의자들은 <보기>의 A국 구성원들이 C국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다면 동맹관계는 파기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 ⑤ 구성주의자들은 A국에서 변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된 이유를, C국보다 B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겠군.
 ➔ ㉣-4에 따르면 구성주의자들은 타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 때 긍정적 동맹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보기>에서 A국의 구성원들이 B국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C국과 동맹을 새로 맺은 것에 반대한다면, 구성주의자들은 그 이유를 C국보다 B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다.

문제 하이라이트

63쪽

(1) 자율성 (2) 방위조약 (3) × (4) × (5) × (6) × (7) ○

선지 + ⑥ × ⑦ ○ ⑧ ×

선지 +

- ⑥ ㉡-5, 7~8에 따르면 동맹의 세 가지 유형 중 방위조약은 동맹관계가 매우 가까우며 자율성은 가장 낮고, 동맹의 수명은 가장 길다. 따라서 방위조약은 중립조약보다 동맹관계가 가까우며, 자율성이 낮아 동맹의 수명이 길다고 할 수 있다.

- ⑦ ②-7의 내용으로 볼 때 중립조약은 협상보다 자율성이 낮으므로 동맹관계의 정도는 협상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립조약은 협상보다 동맹관계가 가깝고 자율성이 낮아 동맹의 수명이 길다고 할 수 있다.
- ⑧ ②-7의 내용으로 볼 때 협상은 방위조약보다 자율성이 높으므로 동맹관계의 정도는 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②-8에서 방위조약보다 협상이 동맹의 수명이 짧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협상은 방위조약보다 동맹관계가 멀고 자율성이 높아 동맹의 수명이 짧다고 할 수 있다.

04 국가 간 분쟁 해결 방법

64-66쪽

1 ① 2 ② 3 ① 4 ②

- ①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의 이용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국가 간의 상반된 이익을 절충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규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의 역할
- ②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해양을 둘러싸고 해당 협약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에 관해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 당사국들은 우선 의무적으로 분쟁 해결에 관하여 신속히 의견을 교환해야 하고 교섭이나 조정 절차 등 국가 간 합의에 의한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엔해양법협약의 역할 이러한 평화적 분쟁 해결 수단을 거쳐야 할 의무를 당사국에 부과하는 이유는 국제법의 특성상, 분쟁 해결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동의를 바탕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분쟁 당사국들의 의무 그런데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강제절차라고 한다. 평화적 분쟁 해결 방안의 대안
- ③ 강제절차는 분쟁 당사국들이 국제적인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강제절차의 개념 이때 당사국들은 자국의 이익이나 분쟁 내용 등을 고려해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 가능한 기구에는 중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설립된 분쟁 해결 기구들이 있다. 분쟁 해결 기구의 종류 이 중(중재재판소는 필요할 때마다 분쟁 당사국 간의 합의를 통해 구성되고,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상설 기구로 재판관 임명이나 재판소 조직 등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 만약 분쟁 당사국들이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양국이 동일한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사건이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강제절차를 행할 수 있는 분쟁 해결 기구의 종류
- ④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소가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본안 소송 관할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 확정하는 심

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할권의 개념 여기서 관할권이란 회부된 사건을 재판소가 다룰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데, 이후 본안 소송의 관할권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해당 재판소는 재판 과정을 거쳐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본안 소송 재판소의 판결 과정

⑤ 그런데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재판소는 분쟁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경우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잠정조치의 개념(효력) 이때 잠정조치란 긴급한 상황에서 분쟁 당사국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해양 환경의 중대한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내려지는 구속력 있는 임시 조치이다. 잠정조치의 특징 잠정조치는 효력이 임시적이므로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효력이 종료된다.

⑥ 분쟁 당사국이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소에 사건이 회부되면 소송 절차가 개시되고, 그 이후 분쟁 당사국들은 언제든지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잠정조치의 효력과 특징 일반적으로 잠정조치는 사건이 회부된 재판소에서 담당하지만, 본안 소송의 재판소와 잠정조치를 명령하는 재판소가 다른 경우도 있다. 본안 소송과 잠정조치의 공통점 본안 소송과 잠정조치의 공통점

⑦ 예를 들어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한 중재재판소에 사건이 회부되었지만, 사건이 긴급하여 재판소 구성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잠정조치를 담당할 수 있다. 본안 소송과 잠정조치의 공통점 이때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잠정조치가 요청된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본안 소송의 관할권을 심리한 결과,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예측되어야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잠정조치의 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 본안 소송과 잠정조치의 공통점 잠정조치의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본안 소송과 잠정조치의 공통점 기본적으로 잠정조치에 대한 관할권은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이다. 본안 소송과 잠정조치의 공통점 결국 사건이 회부된 중재재판소의 본안 소송의 관할권 존재 가능성이 예측되고, 분쟁 해결이 긴급하여 잠정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분쟁 당사국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해양 환경의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잠정조치 재판을 통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본안 소송과 잠정조치의 공통점 잠정조치 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

1 중심 내용 파악하기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① 잠정조치 재판에서 내려진 결정은 구속력이 없는 임시 조치이다.

→ ⑤-2에 따르면 잠정조치는 구속력이 있는 임시 조치이다.

오답 피하기

- ② 분쟁 당사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할 수 있다.

→ ③-2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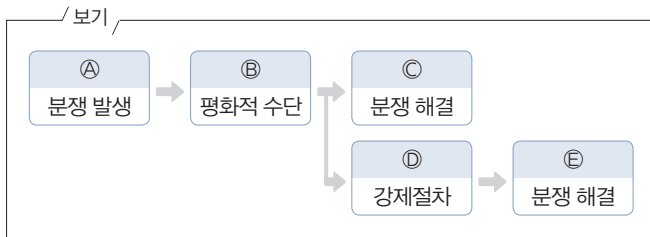
- ③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분쟁 해결 원리는 각 국가의 동의를 바탕으로 적용된다.

→ ②-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적인 분쟁 해결 기구이다.
- ③-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유엔해양법협약은 분쟁 당사국들에게 분쟁 해결에 대한 신속한 의견 교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②-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세부 내용 파악하기

다음은 밑줄에 제시된 분쟁 해결 절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② ①을 진행하는 모든 분쟁 해결 기구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재판소가 구성되어 있다.
- ③-2에 따르면 강제절차(①)를 진행하는 기구로는 중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이 있다. ③-3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재판소가 사전에 구성되어 있지만, 중재재판소는 필요할 때마다 분쟁 당사국 간의 합의를 통해 구성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①은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국가 간 다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②-1에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에 관해 국가 간 분쟁이 발생(①)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③ ③을 통해 ③으로 가는 과정은 분쟁 당사국 간 합의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 ②-1에서 평화적 수단(③)이란 국가 간 교섭이나 조정 절차 등 국가 간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였으므로, 평화적 수단(③)을 통한 분쟁 해결(③)은 국가 간 합의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④ ④를 통해 ⑤로 가는 과정은 국제적 분쟁 해결 기구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 ②-3에서 강제절차(④)란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절차라고 하였으며, ③-1에서 강제절차(④)는 국제적인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해 행해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⑤를 통해 ⑥로 가는 과정에서 잠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면 그 효력은 최종 판결 전까지만 유효하다.
- ⑤-3에서 잠정조치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효력이 종료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3 정보 간의 관계 파악하기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① ㉠의 존재 가능성이 예측되어야 ㉡은 인정된다.
- ⑦-2에서 본안 소송 담당 재판소가 ㉠(본안 소송의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예측되어야 ㉡(잠정조치의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② ㉠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
- ⑦-2에 따르면 ㉠을 심리한 결과, 본안 소송 담당 재판소에서 ㉠을 갖게 될 가능성이 예측되어야 ㉡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즉, ㉡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 ③ ㉡이 확정되지 않으면 ㉠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1~2에 따르면 ㉠은 ㉡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심리 절차를 통해 확정될 수 있다.
- ④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 이후 ㉠이 확정된다.
- ④-1에서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 전 ㉠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 확정하는 심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다.
- ⑤ 본안 소송의 개시 시점은 ㉡의 인정 시점과 일치한다.
- ⑥-1에서 분쟁 당사국들은 본안 소송 개시 이후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⑦-2에서 ㉠을 심리한 결과, 본안 소송 담당 재판소에서 ㉠을 가질 가능성이 예측되어야 ㉡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즉, ㉡의 인정 시점은 본안 소송 개시 이후이다.

4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모의재판’ 수업에 사용된 사례이다. 밑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된 A국과 B국 간에 해양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다. A국은 B국의 공장 건설로 인하여 자국의 인근 바다에 해양 오염 물질이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 B국과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B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추후 A국은 국제해양법재판소를, B국은 중재재판소를 통한 재판을 원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양국이 제기한 소송은 재판에 회부되었다. A국은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을 염려하여 잠정조치를 바로 요청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재판소는 잠정조치를 명령하였다.

정답인 이유

- ② A국이 요청한 결과 잠정조치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B국과의 본안 소송 재판은 종결되었~~다.
- ⑤-1~3에서 잠정조치는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필요한 경우 내려지는 구속력 있는 임시 조치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A국이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B국과의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기 때문이겠군.
- ⑥-1에서 재판소에 사건이 회부되면 소송 절차가 개시되고, 그 이후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③ A국이 B국에게 교섭을 시도한 것은 분쟁 당사국들에게 평화적 해결 수단을 거쳐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겠군.
- ②-1에 따르면 분쟁 당사국들은 교섭이나 조정 절차 등 국가 간 합의에 의한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에서 A국이 B국에게 교섭을 시도한 것은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분쟁 해결 의무를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 ④ A국과 B국은 동일한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두 국가 간 분쟁은 중재재판소를 통해 해결되었겠군.
- ③-4에서 분쟁 당사국들이 동일한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사건이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⑤ A국이 재판에 사건이 회부된 후 바로 잠정조치를 요청한 것은 B국으로 인한 자국의 해양 오염을 시급히 막기 위함이었겠군.
- <보기>에서 A국은 B국의 공장 건설로 A국 인근 바다에 해양 오염 물질이 유출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⑤-2에서 잠정조치는 긴급한 상황에서 분쟁 당사국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해양 환경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내려진다고 하였으므로, <보기>에서 A국이 잠정조치를 요청한 것은 B국으로 인한 자국의 해양 오염을 시급히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 하이라이트

67쪽

(1) 회부 (2) ○ (3) × (4) 평화적 수단 (5) ○ (6) ○ (7) ○

선지 + ⑥ ○ ⑦ × ⑧ ○

선지 +

- ⑥ ②-1에서 분쟁 당사국들은 분쟁 해결을 위해 교섭이나 조정 절차 등의 평화적 수단을 거쳐야 한다고 하였으며, ②-3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중재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와 같은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강제절차에 들어간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⑦ ⑥-2에서 본안 소송 재판소와 잠정조치를 명령하는 재판소가 다른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 A국과 B국의 본안 소송 재판소와 잠정조치 재판소가 다르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며, A국과 B국이 동일한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하지 않은 것을 그 근거로 보기도 어렵다.
- ⑧ ⑦-3에서 잠정조치 관할권은 본안 소송 재판소에서 본안 소송의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보기>의 상황에서 본안 소송의 관할권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예측되었기 때문에 재판소가 잠정조치를 명령했다고 볼 수 있다.

05 합리적 선택

68~70쪽

1 ④ 2 ③ 3 ④ 4 ⑤

- ① ¹가계, 기업, 정부는 경제 주체로서 가계는 소비, 기업은 생산, 정부는 정책 결정 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합리적 선택의 방법} 편익이란 어떤 선택을 할 때 얻는 이득으로, 기업의 판매 수입과 같은 금전적인 것이나 소비자가 ^{편익의 개념}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정신적 만족감과 같은 비금전적인 것을 말한다. ^{편익의 유형 ①} 비용이란 ^{편익의 유형 ②}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것과 명시적 비용을 합친 것이다. ^{비용의 개념} 암묵적 비용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를, ^{비용의 유형 ①} 명시적 비용은 그 선택을 할 때 화폐로 직접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경제 주체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방법과 편익, 비용의 개념}
- ② 순편익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을 때 가장 커지는데, 한계편익은 어떤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이며 한계비용은 그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한계편익의 개념} 예를 들어, 볼펜을 1개 더 살지 ^{한계비용의 개념}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의 한계편익은 볼펜을 1개 더 사는 데에서 추가로 얻는 만족감이며, 한계비용은 볼펜을 1개 더 사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이다.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의 개념}
- ③ ¹기업은 상품을 얼마나 생산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을 고려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²기업 입장에서 한계비용은 상품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키는 데 추가로 드는 비용이며, ^{기업 입장에서의 한계비용} 한계수입은 상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하여 판매할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이다. ^{기업 입장에서의 한계수입} 완전경쟁시장에 있는 기업이라면 상품의 시장 가격 그 자체가 한계수입이 된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상품의 시장 가격과 기업의 한계수입은 일치함.} 완전경쟁시장은 많은 수의 공급자와 수요자로 구성되어 있고 거래되는 상품이 동질적이므로 개별 공급자나 수요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완전경쟁시장의 특징} 즉 기업이나 소비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상품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 가격이 기업의 한계수입이 된다. ⁶상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져 시장 수요가 증가하여 상품 가격이 오른다면, 한계수입도 그만큼 동일하게 오른다. ^{기업 입장에서의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의 개념}
- ④ ¹생산을 계속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업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²한계비용이 한계수입보다 큰 경우에는 상품 생산량을 한 단위 더 줄일 때 그로 인해 추가로 절약되는 비용이 줄어들 수입보다 크므로 생산량을 줄여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³이와 반대로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생산량을 늘려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기업이 한계비용, 한계수입을 활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
- ⑤ ¹그런데 생산을 계속할 때 이윤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는지 판단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 중요하다. ²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평균비용이다. ³평균비용은 어떤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총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으로, 상품을 한 단위 생산하는 데 드는 평균적인 비용을 말한다. ⁴여기에서 총비용은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으로 구분된

다. ⁵한계비용이 총비용 중 ^{가변비용}에만 영향을 받는 것과 달리, ^{평균}비용은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 ⁶고정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생산량이 많은 적든 매달 똑같이 내야 하는 임대료가 그 예이다. ⁷가변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으로, 각종 재료비, 상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추가로 고용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이 그 예이다.

▶ ^{기업 입장에서의 평균비용, 고정비용, 가변비용의 개념}
⁶ 그렇다면 기업은 손실이 발생하는지 평균비용을 통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²총비용을 전부 회수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 기업이 완전경쟁시장에 있다고 가정해 보자. ³이 기업은 평균비용을 상품의 시장 가격과 비교해 보고 만약 가격이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생산량이 얼마이든 그 가격에 상품을 판매해 보았자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⁴그렇다면 투입된 총비용을 전부 회수하여 손실 발생을 막는 것이 이 기업에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다.

⁵기업이 의도한 생산량에서의 평균비용이 시장 가격보다는 낮아야 이윤이 남는데, 어떻게 해도 손실을 피할 수 없다면 생산을 계속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⁶이처럼 평균비용은 한계비용과 더불어 기업이 생산에 관한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유용하게 활용된다.

▶ ^{기업이 평균비용을 통해 손실 발생을 확인하는 방법}
⁷ 합리적 선택을 중심으로 생산에 관한 기업의 의사 결정을 살펴보는 것은 경제 활동을 더 잘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²특히, 기업의 생산 활동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해 주고 고용 증가, 경제 성장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생산에 관한 기업의 합리적 의사 결정의 의의

1 전개 방식 파악하기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④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며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사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이 글은 먼저 ①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해야 함을 언급한 뒤, ②에서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을 때 순편익이 가장 커짐을 설명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③~⑥에서는 생산에 관한 기업의 의사 결정을 앞서 설명한 한계비용의 개념과 더불어 평균비용, 고정비용, 가변비용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의 장점을 제시하며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을 평가하고 있다.
- ➔ 이 글은 합리적 선택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그 과정을 평가하고 있지 않다.
- ② 합리적인 선택이 지닌 한계를 제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③ 경제 주체가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며 각 경제 주체가 수행하는 역할을 비교하고 있다.

➔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⑤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제시하며 생산량을 결정할 때의 어려움을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이 글은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할 때 고려하는 요소인 한계비용, 한계수입, 평균비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량을 결정할 때의 어려움은 나타나지 않으며, 이를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지 않다.

2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③ 생산량과 상관없이 기업이 매달 똑같이 내야 하는 임대료는 한계비용에 영향을 준다.

➔ ⑤-5에 따르면 한계비용은 가변비용에만 영향을 받는다. ⑤-6에서 임대료가 고정비용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임대료가 한계비용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총비용에서 고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가변비용이다.
- ➔ ⑤-4에서 총비용은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으로 구분된다고 하였으므로, 고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가변비용이라 할 수 있다.
- ② 완전경쟁시장의 개별 소비자는 시장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 ➔ ③-5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평균비용은 총비용이 생산된 상품에 똑같이 배분되었을 때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비용이다.
- ➔ ⑤-3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같은 편익을 주는 대안이 여러 개 있다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 ①-2에 따르면 합리적 선택을 하려면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같은 편익을 주는 여러 대안 중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이라면 순편익이 가장 클 것이므로, ⑤의 진술은 적절하다.

3 생략된 정보 추론하기

윗글을 참고할 때, ㉠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④ 평균비용은 생산을 중단할 만한 상품 가격이 얼마인지, 한계비용은 이윤을 늘리기 위해 도달해야 할 생산량이 얼마인지 알아볼 때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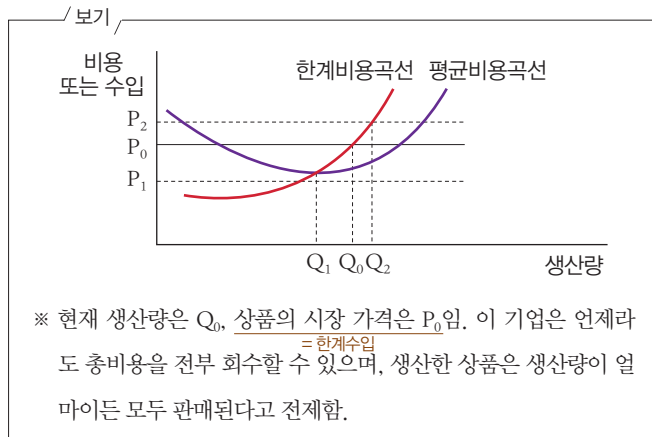
➡ ④-1에 따르면 기업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하여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⑥-3~4에 따르면 기업은 평균비용을 상품의 시장 가격과 비교하여 손실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생산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이 기업이 생산에 관한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유용하게 활용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④는 ㉠의 의미로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평균비용은 고정비용이 얼마인지, 한계비용은 가변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볼 때 유용하다.
➡ ⑥-5에서 한계비용은 가변비용에만, 평균비용은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되어 있을 뿐,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으로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② 평균비용은 시장 가격이 왜 오르는지, 한계비용은 시장 가격이 왜 떨어지는지 알아볼 때 유용하다.
➡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③ 평균비용은 생산을 멈추어야 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한계비용은 생산에 드는 암묵적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볼 때 유용하다.
➡ ⑥-3에서 상품의 가격이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 미치지 못할 때 생산을 중단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①-5에 따르면 암묵적 비용이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를 말하는데, 글에서 한계비용을 통해 암묵적 비용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⑤ 평균비용은 생산량 증가로 총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계비용은 상품 가격 하락으로 판매 수입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아볼 때 유용하다.
➡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4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는 완전경쟁시장에 있는 어느 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과 관련된 비용과 수입을 나타낸 것이다.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⑤ 시장 수요의 증가로 가격이 P_2 가 되면,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커지므로 생산량을 Q_2 에 가깝게 늘릴수록 이윤이 증가하겠군.
➡ ③-3에서 완전경쟁시장에 있는 기업이라면 상품의 시장 가격 자체가 한계수입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에서 가격이 P_2 가 되면 기업 입장에서 한계수입은 P_2 가 된다. 현재 생산량이 Q_0 이므로 한계비용곡선에 따라 한계비용은 P_0 이다.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면 이윤이 증가할 것이며(④-3), 생산량이 Q_2 가 되면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여 이윤이 극대화될 것이다(④-1).

오답 피하기

- ① 생산량을 Q_0 로 유지하면, ~~평균비용이 한계수입보다 작으므로~~ 이윤이 극대화되었겠군.
➡ 〈보기〉에서 생산량을 Q_0 로 유지할 때, 한계비용은 한계비용곡선에 따라 P_0 가 된다. 이때 한계수입은 P_0 이므로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은 일치한다. ④-1에 따르면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할 때 이윤이 극대화되므로, 평균비용이 한계수입보다 작으므로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 ② 생산량을 Q_2 로 늘리면, 한계비용이 한계수입보다 커지므로 ~~이윤이 남지 않았겠군~~.
➡ 〈보기〉에서 생산량이 Q_0 일 때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므로 이윤이 극대화되어 있다. 그런데 생산량을 Q_2 로 늘리면 한계비용은 P_0 에서 P_2 로 증가하고, 한계수입은 시장 가격인 P_0 그대로이므로 한계비용이 한계수입보다 큰 상태가 된다. 즉,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극대화되었던 이윤은 줄어든다. 그런데 ⑥-5에 따르면 주어진 생산량에서의 평균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낮으면 이윤이 남는다. 〈보기〉를 살펴보면 생산량이 Q_2 일 때 평균비용은 시장 가격인 P_0 보다 아래에 있으므로 이윤이 남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윤이 남지 않을 것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 ③ 가격이 P_0 로 유지되면, 생산량을 Q_1 으로 줄여도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이 모두 줄어들기 때문에 ~~이윤에는 변함이 없겠군~~.
➡ 〈보기〉에서 가격이 P_0 로 유지될 때, 생산량을 Q_1 으로 줄이면 한계비용은 한계수입(P_0)보다 줄어들게 된다. 즉 생산량을 줄이기 전인,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여 이윤이 극대화되었을 때보다 이윤은 줄어들게 된다.
- ④ 시장 수요의 감소로 가격이 P_1 이 되면, ~~생산량을 Q_1 으로 줄여야 평균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카므로 손실을 0으로 만들 수 있었겠군~~.
➡ ⑥-3에 따르면 상품의 시장 가격이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보다 낮을 때 손실이 발생한다. 〈보기〉에서 가격이 P_1 이 되면, 가격이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 미치지 못하므로 손실이 발생한다. 생산량을 Q_1 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P_1 은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보다 낮으므로 손실은 0보다 클 것이다.

문제 하이라이트

71쪽

(1) 일치 (2) × (3) × (4) × (5) × (6) 생산량 (7) ○

선지 + ⑥ ○ ⑦ × ⑧ ○

선지 +

- ⑥ <보기>에서 가격이 P_2 가 될 경우, 생산량을 Q_2 로 늘리면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여 이윤이 극대화될 것이다.
- ⑦ <보기>에서 가격이 P_1 이 될 경우, 생산량을 Q_1 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⑥-3의 내용으로 볼 때, 가격(P_1)이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 미치지 못하므로 생산량에 관계없이 손실이 발생한다.
- ⑧ ④-1에 따르면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할 때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된다. <보기>에서 생산량을 Q_1 으로 줄이면 한계수입(P_0)과 한계비용이 일치하지 않아 이윤이 줄어든다. 한편 한계수입은 변동이 없으므로, 한계수입이 평균비용곡선보다 위에 있어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06 사법의 계약과 효력

72~74쪽

1 ③ 2 ② 3 ① 4 ③

① 1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할까? 2이 경우, 민법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진다. 3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4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 법률 규정과 계약 내용이 어긋날 때 발생하는 문제

② 1사법(私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 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2계약의 구체적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3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4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임의 법규'라고 한다. 5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 법규이므로,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6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 사법의 계약 자유의 원칙 적용과 임의 법규의 개념

③ 1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2우선,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 3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단속 법규'라고 한다. 4공인 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 법규에 해당한다. 5따라서 ①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 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 계약의 경우 공인 중개사에게 벌금은 부과되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6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給付)을 할 의무가 인정되어, 공인 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고객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 사법의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제한되는 경우 ①: 단속 법규

④ 1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2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강행 법규'라고 한다. 3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4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익은 '부당 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5즉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6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의 의료 기관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강행 법규이다. 7따라서 ①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 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8다만 계약에 따라 이미 동업 자금을 건넸다면 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 사법의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제한되는 경우 ②: 강행 법규

⑤ 1그러나 강행 법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급부의 내용이 위조지폐 제작처럼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 강행 법규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부정되는 경우

⑥ 1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2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3이로 인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 국가가 개인 간 계약에 개입하는 이유와 비례 원칙의 적용

1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③ 단속 법규로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할 때에는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⑥-1~2에 따르면 '비례 원칙'은 국가가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여 그 자유를 제한할 때,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의 '단속 법규' 또한 개

인 간의 계약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가 단속 법규로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할 시 비례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임의 법규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과 이에 어긋난 계약 내용 가운데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 ②-3~4에서 '임의 법규'는 계약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며, 법률의 내용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임의 법규가 단속 법규에 비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
→ '임의 법규'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되는 반면(②-3~4), '단속 법규'는 계약 내용이 법률 규정에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다(③-1~3). 따라서 '임의 법규'가 '단속 법규'에 비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단속 법규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 강행 법규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 ⑥-1~2에 따르면 국가의 개인 간 계약 개입 시 계약의 자유를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이로 볼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단속 법규'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임에도 계약의 효력까지 인정하지 않는 '강행 법규'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 ⑤ 강행 법규를 위반한 계약일 때 급부의 내용에 따라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 ⑤-1~2에서 강행 법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면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윗글을 참고할 때, [A]에 제시된 물음에 대한 답으로 맞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지고,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 ㄴ.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건물주는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
- ㄷ.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 ㄹ.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건물주는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해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

정답인 이유

② ㄱ, ㄷ

→ ②의 내용으로 볼 때, [A]의 방충망 수선에 대한 것은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임의 법규에 해당한다. ②-3, 5에 따르면 임의 법규의 경우 사법의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정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법률 규정에 따라 건물주가,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진다. 또한 이는 임의 법규에 해당하므로,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나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없다.

오답 피하기

- ㄴ.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건물주는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
→ 건물주는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ㄹ.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건물주는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해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
→ 건물주는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해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3 정보 간의 관계 파악하기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① 법적 불이익을 받는 계약 당사자가 있다.
→ ㉠은 단속 법규의 적용을 받는 계약, ㉡은 강행 법규의 적용을 받는 계약이다. 단속 법규는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반면(③-2), 강행 법규는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④-1). 즉, ㉠과 ㉡의 계약 모두 법적 불이익을 받는 계약 당사자가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계약 당사자들의 급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 ㉠은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이므로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부를 할 의무가 인정된다(③-6). 한편 ㉡은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급부 의무가 부정된다(④-1).
- ③ 계약에 따라 넘어간 재산적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 ㉠은 급부 의무가 인정되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③-6). 한편 ㉡은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어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넘어간 재산적 이익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④-4~5).
- ④ 법률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 ㉠의 경우 벌금이 부과되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③-5). 한편 ㉡의 경우는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④-7).
- ⑤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없다.
→ ㉠과 ㉡은 모두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등에 적용되는 '사법'의 영역에 해당하며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②-1). 따라서 ㉠, ㉡ 모두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②-2).

4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농지를 빌리려는 A와 농지 주인인 B는 농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A는 B에게 농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1년간 농지를 사용하였다. 농지법을 위반한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법률을 위반하여 농지를 빌려 준 사람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둘째, 이 사건의 농지 임대차 계약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셋째, 농지를 빌려 준 사람은 받은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넷째, 농지를 빌린 사람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농지를 빌려 준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 : 강행 법규가 적용됨.

정답인 이유

③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 계약의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을 무효로 판결한 것이겠군.

➡ <보기>에서 대법원은 B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계약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A와 B의 계약에 강행 법규가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⑥-1~2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 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 간 계약에 개입하며, 비례 원칙에 따라 계약의 자유를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한다. 이를 고려할 때, <보기>의 대법원은 벌금만 부과하고 계약의 효력은 인정하는 단속 법규만으로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아 A와 B의 계약에 강행 법규를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A와 B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법(私法)의 적용을 받지 않았군.

➡ ②-1에 따르면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 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이다. <보기>의 A와 B의 임대차 계약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과 관련된 것이므로 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A와 B가 맺은 농지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 ④-1~2의 내용으로 볼 때, <보기>의 판결에서 B에게 법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④ A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B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 ⑤-1~2에 따르면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일 경우 강행 법규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보기>의 판결에서 대법원은 A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부당 이익으로 보아 이를 B에게 반환하라는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⑤ B가 A에게서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사용료가 부당 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 ④-4에서 강행 법규의 경우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넘긴 재산적 이익은 부당 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보기>에서 대법원이 B가 A에게서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사용료가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제 하이라이트

75쪽

(1) 개인 (2) × (3) × (4) ○ (5) 급부 (6) × (7) ×

선지 + ⑥ × ⑦ × ⑧ ○

선지 +

⑥ ④-1~2에서 강행 법규의 경우 법적 불이익이 부과되고 계약의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급부 의무가 부정된다고 하였다. <보기>의 판결은 강행 법규가 적용된 것으로, A가 B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농지를 사용한 것은 계약 당사자들이 이미 급부를 이행한 것일뿐, 급부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⑦ ④-1~2의 내용으로 볼 때, <보기>의 판결에서 B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은 A와 B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즉 'A와 B가 농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에 합의'한 것을 법적 불이익이 부과된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

⑧ ⑥-1~2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 간 계약 개입 시 '비례 원칙'에 따라 계약의 자유를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한다. <보기>의 판결은 국가가 '강행 법규'를 적용하여 개인 간의 계약을 중재한 것으로 비례 원칙이 적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필수 어휘 ZIP

76쪽

1 (1) 근간 (2) 이의 (3) 심리 2 (1) ㉠ (2) ㉡ (3) ㉢ 3 (1) 기인한 (2) 개입시키지 (3) 유치하기로 (4) 견제하며 4 ㉤ 5 (1) 우발성 (2) 임대료 (3) 공조 체제 (4) 미장센 6 (1) × (2) × (3) ○ (4) ○

01 상과 상변화

78~80쪽

1 ①

2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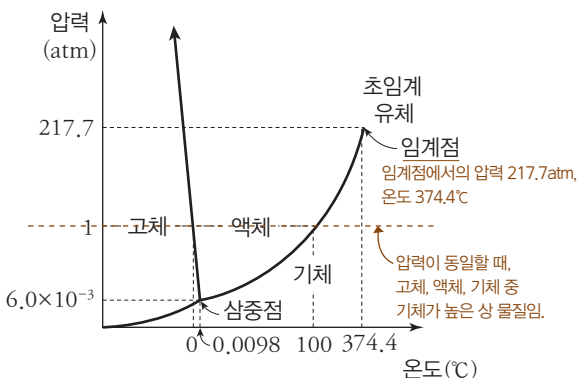
3 ④

4 ①

① ^{중심 화제} 물질은 여러 가지 다른 상(phase)으로 존재할 수 있다. ^{상의 개념} 물질의 상이란 화학적 조성은 물론 물리적 상태가 전체적으로 균질한 물질의 형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로 구분된다. ^{물질의 일반적인 상 세 가지} 고체는 일정한 부피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고체에서의 원자 결합 상태}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각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결합되어 서로 고정된 상태이다. ^{() : 액체에서의 분자 결합 상태} 액체는 일정한 부피를 가지나 모양이 일정하지는 않으며, 물질을 구성하는(분자 간 인력이 분자 위치를 고정할 만큼 강하지 못하여 분자가 액체 내부를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는 상태이다. ^{기체에서의 분자 결합 상태} 기체는 부피와 모양이 모두 일정하지 않으며,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 간 인력이 매우 작은 편으로 기체의 분자 간 평균적인 거리는 고체나 액체일 경우에 비해 매우 먼 상태이다.

② ^{상의 개념과 세 가지 상의 특성} 물질은 압력과 온도 조건의 변화에 따라 다른 상으로 변할 수 있다. ^{상변화의 개념} 화학적 조성의 변화는 수반되지 않으면서 물질의 상이 전환되는 현상을 상변화(phase change)라 하며, 압력은 동일하지만 온도가 더 높은 조건에서 존재하는 상일 때의 물질을 높은 상 물질이라고 한다. ^{상변화의 개념과 특징} 이러한 모든 상변화에서는 물질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

③ 상평형 그림(phase diagram)은 단한계에서 압력과 온도 조건의 변화에 따른 물질의 상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다. ^{상평형 그림에 대한 설명} 제시된 <그림>은 물의 상평형 그림으로, 압력과 온도 조건에 따른 물의 상을 보여 준다. ^{상평형 그림에서 선의 의미} 상평형 그림에서 상과 상 사이의 선들을 상 경계라고 하는데, 선의 각 점은 두 상이 평형을 이루는 압력과 온도 조건을 나타내며, ^{상평형 그림 속 선의 각 점이 가리키는 것} 상 경계는 두 상이 평형을 이루는 압력과 온도 조건의 집합이 된다. ^{고체, 액체의 평형} 상평형 그림에서 고체상과 액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을 융해 곡선, 기체상과 고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을 승화 곡선, 기체상과 액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을 증기 압력 곡선이라 한다. ^{기체, 액체의 평형} ^{상평형 그림의 선과 점의 의미}



<그림>

④ ^{상평형 그림의 증기 압력 곡선} 단한계에서 기체상과 액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 대해 설명해 보자. ^{() : 기체와 액체의 상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자 수 변화} 액체가 기체로 상이 전환되는 것은, 같은 온도에서도 액체의 분자가 각각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그중 높은 에너지를 갖는 분자가 증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액체에서의 분자 결합 상태} 액체의 분자들을 한데 묶어 두는 분자 간 인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액체의 표면에 있는 분자들은 각각 다른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그중 운동 에너지가 큰 분자들은 분자 간 인력을 극복하고 증발하여 기체 상태로 변한다. ^{() : 액체에서의 분자 결합 상태} 하지만 기체의 분자들 일부는 반대로 에너지를 잃고 응결되어 액체로 변한다. ^{() : 액체에서의 분자 결합 상태} 그리고 이러한 과정의 초기에는 액체의 표면을 떠나는 분자의 수가 돌아오는 수보다 훨씬 많으나, 기체의 분자 수 증가로 기체의 압력 또한 높아져 액체의 표면에서 응결되는 분자 수 또한 증가하게 된다. ^{() : 액체에서의 분자 결합 상태} 결국 분자들의 증발 또는 응결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한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 : 액체에서의 분자 결합 상태} 액체의 증발 속도와 기체의 응결 속도는 같아지게 되어 거시적으로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 ^{() : 액체에서의 분자 결합 상태}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의 압력과 온도 조 ^{() : 액체에서의 분자 결합 상태} 증기 압력 곡선의 각 점들은 기체상과 액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서의 압력과 온도를 나타낸다. ^{() : 액체에서의 분자 결합 상태} 건들이 상평형 그림의 증기 압력 곡선이 된다.

⑤ ^{기체상과 액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가 되는 과정과 증기 압력 곡선} 한편, 위 <그림>에서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 경계를 따라가면 두 선이 분기하는 점이 나타난다. ^{() : 액체에서의 분자 결합 상태} 이 점은 세 개의 상이 평형을 이루며 공존하는 상태로, ^{() : 액체에서의 분자 결합 상태} 삼중점(triple point)이라고 한다. 그리고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 경계를 따라가면 선이 끝나는 ^{() : 액체에서의 분자 결합 상태} 임계점을 만나는데, 이 때의 온도를 임계 온도, 압력을 임계 압력이라 한다. ^{() : 액체에서의 분자 결합 상태} 임계 온도는 아무리 압력을 높여도 기체가 액화되지 않는 온도이며, ^{() : 액체에서의 분자 결합 상태} 임계 압력은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액체가 증발되지 않는 압력으로, ^{() : 액체에서의 분자 결합 상태} 임계점에서 두 상은 액체도 기체도 아닌 초임계 유체를 형성한다. ^{() : 액체에서의 분자 결합 상태} 삼중점과 임계점의 개념

1 전개 방식 파악하기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① 물질의 상과 상변화 개념을 제시하고, 상평형 그림을 활용하여 물질의 상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② 이 글은 ①~②에서 물질의 상과 상변화의 개념을 제시하고, ③~⑤에서 상평형 그림을 활용하여 상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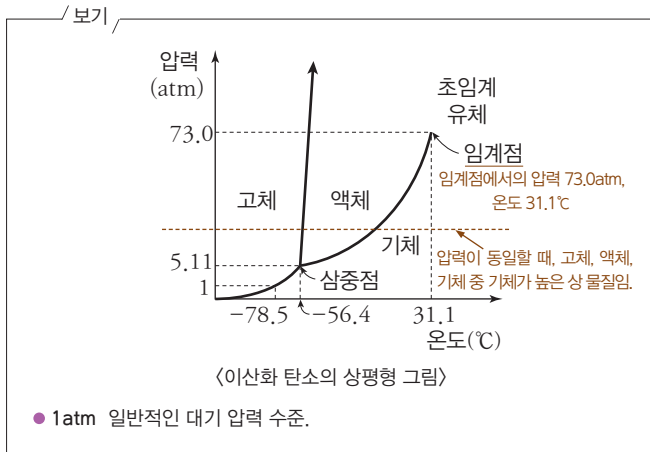
오답 피하기

- ② 물질의 상을 구분하고, 압력 변화에 따라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가 달라지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③ ①~②에서 물질의 상을 고체, 액체, 기체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화학적 조성의 변화는 수반되지 않으면서 압력과 온도 조건에 따라 물질의 상이 전환되는 상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②~②),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가 달라지는 원인을 분석한 것이 아니다.
 ③ 물질이 물리적 형태에 따라 나타내는 특성들을 제시하고, 다양한 물질의 예를 들어 각 특성들을 설명하고 있다.
 ④ ①~③에서 고체, 기체, 액체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다양한 물질의 예를 들지 않았다.

- ④ 물질의 상과 상변화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압력과 온도 변화에 따른 물질의 화학적 조성 변화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 ①~②에서 상과 상변화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 둘의 관련성을 언급한 부분은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이 글은 화학적 조성의 변화는 수반되지 않으면서 압력과 온도 조건에 따라 물질의 상이 전환되는 상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②-2), 물질의 화학적 조성 변화 원인을 분석한 것이 아니다.
- ⑤ 물질의 상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압력과 온도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물질의 화학적 변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 이 글은 상평형 그림을 통해 압력과 온도 조건에 따른 물질의 상을 설명하고 있을 뿐, 상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압력과 온도의 상관성을 분석하거나 물질의 물리적 변화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2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와 뒷글의 〈그림〉을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⑤ 물과 이산화 탄소는 어떤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도 고체에서 기체로의 상변화가 일어날 수 없겠군.
- ➡ ③-4에 따르면 상평형 그림에서 기체상과 고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을 ‘승화 곡선’이라 한다. 이 글의 〈그림〉과 〈보기〉에서는 모두 삼중점 이하의 온도와 압력에 승화 곡선이 나타나 있으므로, 물과 이산화 탄소 모두 삼중점 이하의 온도와 압력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고체에서 기체로의 상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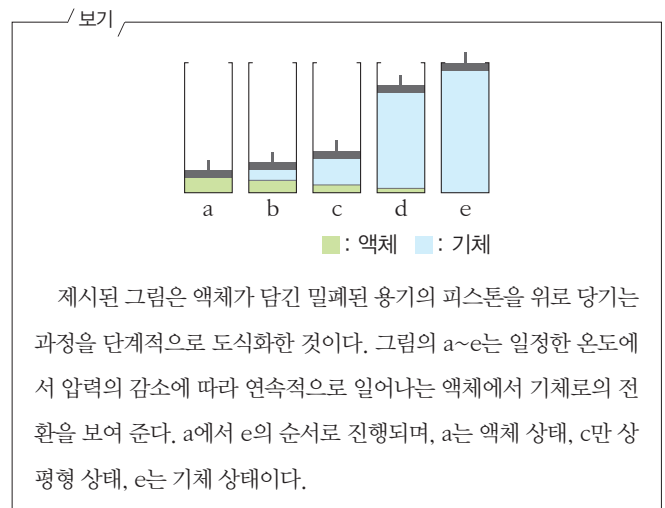
오답 피하기

- ① 이산화 탄소는 물에 비해 임계점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압력과 온도 조건에 있군.
- ➡ 〈보기〉에 나타난 임계점의 압력(73.0atm)과 온도(31.1°C)는 이 글의 〈그림〉에 나타난 임계점의 압력(217.7atm)과 온도(374.4°C)보다 낮다. 따라서 이산화 탄소가 물에 비해 임계점이 더 낮은 압력과 온도에 있다.

- ② 이산화 탄소는 물과 달리 일반적인 대기 압력 수준에서 액체로 존재할 수 없겠군.
- ➡ 이 글의 〈그림〉에서 물은 1atm일 때, 0°C와 100°C 사이에서 액체상으로 존재한다. 반면 〈보기〉에서 이산화 탄소는 1atm일 때, 고체상 또는 기체상이며, 어떤 온도에서든 액체상으로 존재할 수 없다.
- ③ 물과 이산화 탄소는 동일한 압력 조건에서 고체, 액체, 기체 중 기체가 높은 상 물질이겠군.
- ➡ ②-2에 따르면 ‘높은 상 물질’이란 압력은 동일하지만 온도가 더 높은 조건에서 존재하는 상일 때의 물질을 말한다. 이 글의 〈그림〉과 〈보기〉 모두 압력이 같을 때 고체, 액체, 기체 중 온도가 더 높은 조건에서 존재하는 물질은 기체이므로, 물과 이산화 탄소는 모두 기체가 높은 상 물질이다.
- ④ 물은 이산화 탄소와 달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고체와 액체 간 평형을 이루는 압력이 낮아지겠군.
- ➡ ③-4에 따르면 상평형 그림에서 고체상과 액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을 ‘융해 곡선’이라 한다. 이 글의 〈그림〉에서 융해 곡선을 보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압력이 낮아지는 반면, 〈보기〉의 융해 곡선에서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압력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물은 이산화 탄소와 달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고체와 액체 간 평형을 이루는 압력이 낮아진다.

3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④ c에서 e까지의 과정에서 액체의 분자와 기체의 분자는 모두 분자 간 인력이 커질 것이다.
- ➡ 〈보기〉 그림에서 c에서 e까지의 과정은 액체상과 기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기체가 되는 과정이다. ④-3에 따르면 액체는 분자 간 인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중 운동 에너지가 큰 분자들

은 분자 간 인력을 극복하고 증발하여 기체 상태로 변한다고 하였다. 또한 ❶~4~5의 내용으로 볼 때, 액체에 비해 기체 분자 간 인력은 매우 작은 편이므로 c에서 e까지의 과정에서 분자 간 인력은 점차 작아질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❶ a에서 e까지의 과정에서 액체의 분자 수는 감소하고 기체의 분자 수는 증가할 것이다.
 ➡ <보기>에 따르면 그림의 a~e는 액체에서 기체로 상이 전환되는 과정이다. 4~2~3에서 액체가 기체로 상이 전환되는 것은 액체 분자 중 일부가 증발하여 기체 상태로 변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보기> 그림의 a~e 과정에서 액체의 분자 수가 감소하고 기체의 분자 수는 증가할 것이다.
- ❷ b는 액체의 표면을 떠나는 분자의 수가 기체에서 액체로 돌아오는 분자의 수보다 많은 상태일 것이다.
 ➡ <보기> 그림에서 b는 액체가 기체로 상이 전환되는 초기 과정에 해당한다. 4~5에서 이러한 과정의 초기에는 액체의 표면을 떠나는 분자의 수가 돌아오는 수보다 훨씬 많다고 하였으므로 ②의 이해는 적절하다.
- ❸ c는 액체의 분자가 증발하는 속도와 기체의 분자가 응결하는 속도가 같은 상태일 것이다.
 ➡ <보기> 그림의 c는 액체상과 기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상평형 상태이다. 4~6에서 특정한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액체의 증발 속도와 기체의 응결 속도가 같아지게 되어 거시적으로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c의 상평형 상태에서는 액체 분자의 증발 속도와 기체 분자의 응결 속도가 같을 것이다.
- ❹ e는 a에 비해 분자 간 평균적인 거리가 먼 상태일 것이다.
 ➡ <보기> 그림의 e는 기체 상태, a는 액체 상태이다. 1~5에서 기체는 분자 간 평균 거리가 고체나 액체일 경우에 비해 매우 먼 상태라고 하였으므로 ⑤의 이해는 적절하다.

4 생략된 정보 추론하기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삼중점

정답인 이유

- ❶ 물질이 분자 수준에서는 상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거시적으로는 세 가지 상이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5~2에 따르면 '㉠(삼중점)'이란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상이 평형을 이루며 공존하는 상태이다. 4~6에서 액체가 기체로 상이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분자들의 증발 또는 응결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 온도와 압력에서 액체의 증발 속도와 기체의 응결 속도는 같아지게 되어 거시적으로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세 가지 상이 평형을 이루는 ㉠에서도 분자 수준에서 물질의 상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거시적으로는 세 가지 상이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❷ 물질이 일정한 부피와 모양을 유지하면서 화학적 조성과 물리적 형태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 2~2에 따르면 상변화에는 화학적 조성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나, 4~6의 내용으로 볼 때 ㉠에서는 분자 수준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므로 물리적 형태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에서 물질이 일정한 부피와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정한 부피와 모양을 유지하는 것은 고체에 해당하는 설명이다(1~3).
- ❸ 물질이 세 가지 상으로 구별되나 압력과 온도의 변화에도 특정한 상을 유지하려는 상태를 의미한다.
 ➡ 4~6에서 물질이 상변화 과정을 거칠 때 '특정 온도와 압력'에서 '거시적으로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은 세 가지 상이 평형을 이루는 특정 압력과 온도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에서 압력과 온도가 변화한다면 세 가지 상의 평형 상태는 깨지게 될 것이다. 또한 5~2에 따르면 삼중점에서는 세 가지 상이 평형을 이루며 공존하므로 '특정한 상을 유지하려는 상태'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 ❹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해지거나 물질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 5~2에 따르면 삼중점에서는 세 가지 상이 공존하는데, 이때 분자 간 인력이 강해진다면 세 가지 상의 평형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에서 물질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내용은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❺ 물질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며 지속적으로 압력과 온도가 상승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 ㉠에서 물질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내용은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은 세 가지 상이 평형을 이루며 공존하는 특정한 압력과 온도를 가리키므로, ㉠이 '지속적으로 압력과 온도가 상승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문제 하이라이트

81쪽

(1) 상변화 (2) ○ (3) 원인 (4) × (5) × (6) × (7) ×

선지+ ⑥ × ⑦ ○ ⑧ ×

선지+

- ⑥ 1~2~5에서 물질의 물리적 형태를 세 가지(고체, 액체, 기체)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특성이 활용되는 분야를 소개하고 있지 않다.
- ⑦ 이 글은 1~2에서 상과 상변화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 뒤 3에서 물의 상평형 그림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4에서 증기압력 곡선, 5에서 삼중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⑧ 이 글은 3~5에서 상평형 그림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물의 상평형 그림을 활용했을 뿐, 물의 상변화 과정에서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물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1 ⑤

2 ③

3 ⑤

4 ②

5 ④

① 약은 생체의 작용에 영향을 미쳐 생물학적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¹약은 생체에서 수용체와 결합하여 유익 작용 및 유해 작용을 나타내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²이 경우 약은 생체의 리간드와 유사한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가진 성분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성분으로 인해 약은 생체 내에서 리간드로 기능한다. ³여기서 리간드란 수용체와 결합하여 신경 자극이나 화학 반응과 같은 생물학적 반응을 촉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⁴생체 내에서 수용체와 친화성이 높은 리간드가 결합하면, 리간드와 결합한 수용체의 작용에 의해 생체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수용체에 의해 리간드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므로써 이후의 생물학적 반응이 유도되기도 한다. ⁵이러한 점에서 약은 특정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는 리간드를 인위적으로 생체에 증가시킴으로써 리간드와 결합한 수용체의 수가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이 되게 하여 효과를 낸다고 할 수 있다.

▶ 약이 생체 내에서 기능하는 방식

② 대체로 약은 병원체에 작용하거나 생체에 직접 작용하는 방식으로 생물학적 효과를 낸다. ¹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의 치료에 활용되는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 등은 전자의 방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²가령 박테리아에 의한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³설파제는, 인간과 박테리아가 모두 대사 과정에서 엽산이라는 물질을 필요로 하는데 엽산을 섭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간과 달리 박테리아는 엽산을 스스로 만들어야만 한다는 점을 이용한다. ⁴박테리아는 엽산을 만들기 위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데, 파라아미노벤조산(PABA)이 그 수용체와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엽산이 된다. ⁵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가 설파제를 복용하면 설파제는 체내에서 화학적 변화를 거쳐 PABA와 분자 구조가 매우 유사한 설파닐아마이드가 되어 PABA가 결합할 수용체와 먼저 결합한다. ⁶이로 인해 박테리아는 엽산을 만들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된다.

▶ 약이 병원체에 작용하는 방식 ①: 박테리아에 작용하는 항생제

③ 항바이러스제는, 스스로는 증식하지 못하고 다른 세포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의 치료에 활용되는 약 ¹병원체인 바이러스의 특성인 DNA 복제 과정을 거치며 증식하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활용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의 증식을 막는 방식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도 한다. ²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를 포함한 항바이러스제가 이러한 방식의 약에 해당한다. ³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와 유사하지만,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가 세포의 DNA나 RNA의 수용체와 결합하면 결과적으로 DNA 복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⁴또한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와는 쉽게 결합하지만 감염되지 않은 세포와는 잘 결합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⁵이 때문에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이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한다.

▶ 약이 병원체에 작용하는 방식 ②: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항바이러스제

④ 한편 신경작용제는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¹생체에 직접 작용하는 방식의 약 ²생체에 직접 작용(약의 작용 방식) 램의 정신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 효과를 내는 약이다. ³하나의 뉴런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는 뉴런 말단에 도달하여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하게 하고, 이러한 신경전달물질은 연결한 다른 뉴런에 존재하는 수용체에 화학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연결한 뉴런 간에 신호를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⁴우울증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은, 보통 후(後)연접 뉴런 수용체에서 기능을 다하고 전(前)연접 뉴런에 재흡수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뉴런 간 연결 틈새에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가 낮아지면 우울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⁵항우울제는 연결 틈새에서 이들 신경전달물질의 부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약효를 낸다. ⁶TCA 항우울제는 전연접 뉴런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신경전달물질의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SNRI 항우울제는 신경전달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하거나 후연접 뉴런의 수용체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연결 틈새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농도가 높아진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 약이 생체에 작용하는 방식: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에 관여하는 신경작용제

⑤ 대부분의 약들은 약효가 여러 가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면 이들 약의 일차적인 약효는 서로 다를지라도 이차적인 약효는 같을 수 있어, 공통되는 이차적인 약효가 한층 커질 수 있다. ²이와 같이 약들이 서로 도와 약효를 높이는 효과를 상승효과라고 한다. ³한편 약을 장기간 남용하게 되면 수용체의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기존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더 많은 약을 필요하게 되는 내성이 생길 수 있다.

▶ 약의 상승효과와 내성 문제

1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인 이유

⑤ 약은 생체의 대사 작용에 관여하는 물질을 제거함으로써 병원체를 직접적으로 죽게 할 수 있다.

②에서 대사 작용에 관여하는 약인 '설파제'의 작용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②~⑤에 따르면 설파제는 박테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물질인 엽산을 만들지 못하게 할 뿐, 엽산을 제거하거나 병원체인 박테리아를 직접적으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파악하기

① 약을 두 종류 이상 함께 복용하면 상승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② ⑤-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약은 생체의 신경 자극이나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① ①-3~4에서 약은 생체 내에서 리간드로 기능하는데, 리간드는 신경 자극이나 화학 반응과 같은 생물학적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약은 생체에서 수용체와 결합하여 유익 작용과 유해 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 ①-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약은 생체의 리간드와 유사한 물질을 포함하여 생체의 생물학적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

➡ ①-3~4에서 약은 생체의 리간드와 유사한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가진 성분을 포함하며, 리간드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생물학적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 세부 내용 파악하기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③ 약을 복용하면 리간드와 결합된 수용체의 수가 일정 시간 동안 복용 전보다 많은 정도가 유지된다.

➡ ①-6에서 약은 특정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는 리간드를 인위적으로 생체에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생체에서는 리간드와 결합한 수용체의 수가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약을 복용하기 전보다 복용 후에 리간드와 결합된 수용체의 수가 일정 시간 동안 많은 정도로 유지된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생체에서 리간드에 의해 수용체의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면 세포의 기능에 변화가 일어난다.
➡ ①-5에서 생체 내에서 수용체와 리간드가 결합한 경우 리간드와 결합한 '수용체의 작용에 의해' 생체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리간드의 구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생체에서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나면 수용체와 리간드는 동일한 화학적 분자 구조로 변화된다.
➡ ①-5에 따르면 생체에서는 리간드와 결합한 수용체의 작용에 의해 '리간드의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이후의 생물학적 반응이 유도'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이 생체의 리간드와 친화성이 높은 리간드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①-3~6에 따르면 약은 생체에서 리간드로 기능하며 생체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약효를 낸다. 이때 ①-5에서 리간드는 수용체와 친화성이 높다고 하였으므로, 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이 '생체의 수용체와' 친화성이 높은 리간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⑤ 수용체와 동일한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가진 물질을 포함한 약은 생체에서 생물학적 효과를 더 크게 일으킨다.
➡ ①-3에서 약은 '리간드와 유사한'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가진 성분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①-6에서 약이 특정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는 '리간드'를 인위적으로 생체에 증가시켜 약효를 낸다고 하였다.

3 정보 간의 관계 파악하기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⑤ ㉠과 ㉡ 모두 병원체와 생체가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질을 사용하여 병원체의 확산을 억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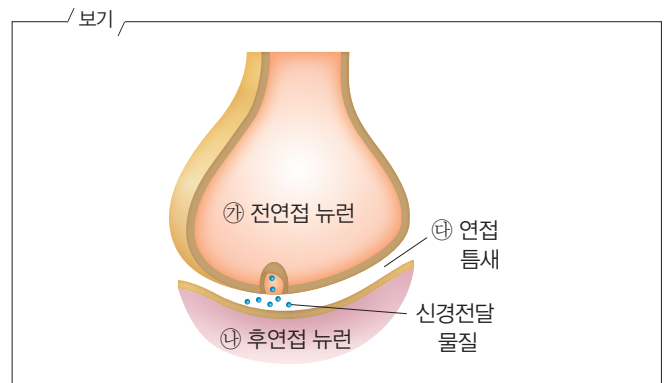
➡ ②-3~6에서 인간과 박테리아는 공통적으로 대사 과정에 '엽산'을 필요로 하며, ㉠(설파제)은 엽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서 설파닐아마이드가 되어 박테리아의 작용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한편 ③-3~5에서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를 포함한 항바이러스제)은 DNA 복제 과정에 필요한 '뉴클레오타이드'와 유사한 구조의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를 활용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 ㉡이 모두 병원체와 생체가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질(엽산, 뉴클레오타이드)을 사용하여 병원체의 확산을 억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은 생체 내에서 화학적 변화를 거친 후 약효를 발휘한다.
➡ ②-5에서 ㉠은 화학적 변화를 거친 후 설파닐아마이드가 되어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약효를 발휘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② ㉠은 병원체가 대사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물질의 생성을 방해하여 병원체의 사멸을 유도한다.
➡ ②-3~6에서 ㉠은 병원체(박테리아)가 대사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물질(엽산)의 생성을 방해하여 박테리아의 사멸을 유도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③ ㉡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의 복제 과정에 개입하여 DNA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한다.
➡ ③-3~5에서 ㉡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와 결합하여 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④ ㉠과 ㉡ 모두 병원체와 병원체에 감염될 수 있는 생체의 차이를 활용하여 생물학적 효과를 낸다.
➡ ②-3에서 ㉠의 경우, 병원체(박테리아)는 엽산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지만 생체는 엽산을 섭취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③-4에서 ㉡의 경우, 병원체(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와 쉽게 결합하지만 감염되지 않은 세포는 잘 결합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활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4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는 항우울제의 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그림이다.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② SNRI 항우울제는 ㉠에 지속적으로 흡수됨으로써 ㉠에서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낸다.
 → ㉣-㉤에 따르면 SNRI 항우울제는 ㉠에 지속적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신경전달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하거나 ㉠의 수용체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약효를 낸다.

오답 피하기

- ① 보통 ㉡에서 분비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은 ㉠에 작용한 후 다시 ㉡로 재흡수된다.
 → ㉣-㉢에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은 ㉠의 수용체에서 기능을 다하고 ㉡에 재흡수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③ 우울증의 치료를 위해 ㉠에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가 높아지도록 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 ㉣-㉢에 ㉠에서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가 낮아지면 우울증이 나타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에서 항우울제는 ㉠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부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신경전달물질의 농도가 높아진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④ ㉠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농도가 높은 상태로 장기간 유지되면 수용체의 민감도가 떨어지게 된다.
 → ㉤-㉢에서 약을 장기간 남용하게 되면 수용체의 민감도가 떨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항우울제를 장기간 복용하여 ㉠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농도가 높은 상태로 장기간 유지될 경우, 수용체의 민감도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본 것은 적절하다.
- ⑤ 항우울제는 ㉡나 ㉠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우울증이 발현되는 원인을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
 → ㉣-㉤-㉥에서 TCA 항우울제는 ㉡의 수용체와, SNRI 항우울제는 ㉠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우울증의 원인(㉠에서의 신경전달물질 농도 감소)을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5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1생체의 리간드인(히스타민은 알레르기과 염증의 발생, 위산 분비 등에 모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항히스타민약으로 개발된 메피라민은 알레르기과 염증에는 효과가 있지만 위산 분비 조절에는 거의 효과가 없었다.³이에 연구자들은 히스타민과 친화성을 갖는 두 종류 이상의 수용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위산 분비를 조절하는 새 항히스타민약을 개발하였다.
 새 항히스타민약 - c에 관여하는 수용체와 친화성이 높아서 잘 결합함.

정답인 이유

- ④ 메피라민과 새 항히스타민약은 모두 생체에서의 위산 분비 조절을 일차적인 약효로 가질 것이다.

→ <보기>-2에 따르면 메피라민은 위산 분비 조절에는 거의 효과가 없었다. <보기>-3의 내용으로 볼 때, 생체에서의 위산 분비 조절을 일차적인 약효로 갖는 것은 새 항히스타민약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새 항히스타민약을 개발한 연구자들은 히스타민이 알레르기과 염증 발생에 관여하는 수용체 및 위산 분비에 관여하는 수용체 모두와 친화성을 갖는다고 가정했을 것이다.
 → <보기>에 따르면 생체 내 리간드인 히스타민은 알레르기과 염증 발생, 위산 분비에 관여하는데 항히스타민약으로 개발된 메피라민은 알레르기과 염증에 효과가 있지만 위산 분비 조절에는 효과가 없었고, 이에 연구자들은 위산 분비를 조절하는 새 항히스타민약을 개발하였다. ①-5에서 생체 내에서 수용체와 친화성이 높은 리간드가 결합하면, 리간드와 결합한 수용체의 작용에 의해 생체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였으므로, <보기>의 연구자들은 히스타민이 알레르기과 염증 발생 및 위산 분비에 관여하는 수용체 모두와 친화성을 갖는다고 가정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 ② 메피라민은 위산 분비에 관여하는 수용체보다 알레르기과 염증 발생에 관여하는 수용체와 친화성이 높을 것이다.
 → <보기>-2에 따르면 메피라민은 알레르기과 염증 조절에는 효과가 있지만 위산 분비 조절에는 효과가 없었다. ①-5에서 생체 내에서 수용체와 친화성이 높은 리간드가 결합하면 리간드와 결합한 수용체의 작용에 의해 생체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 것을 볼 때, 메피라민은 위산 분비에 관여하는 수용체보다 알레르기과 염증 발생에 관여하는 수용체와 친화성이 높을 것이라 볼 수 있다.
- ③ 메피라민과 새 항히스타민약은 모두 히스타민과 유사한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가진 성분을 포함할 것이다.
 → ①-3에 따르면 약은 리간드와 유사한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가진 성분을 포함한다. 이로 볼 때, <보기>의 메피라민과 새 항히스타민약은 생체의 리간드인 히스타민이 관여하는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두 약이 모두 히스타민과 유사한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가진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새 항히스타민약은 메피라민보다 위산 분비에 관여하는 수용체와 더 높은 친화성을 가질 것이다.
 → ①-5에 생체 내에서 수용체와 친화성이 높은 리간드가 결합한다고 언급된 것을 볼 때, 약이 포함하는 물질이 생체 내의 특정 수용체와 친화성이 높을수록 그 수용체와 잘 결합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기>-2~3에 따르면 위산 분비 조절에 메피라민은 효과가 없었고, 새 항히스타민약은 효과가 있었으므로, 메피라민은 위산 분비 조절에 관여하는 수용체와 친화성이 높지 않고, 새 항히스타민약은 해당 수용체와 친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문제 하이라이트

85쪽

(1) ○ (2) × (3) 농도 (4) ○ (5) 내성 (6) ○ (7) ○

선택지 + ⑥ × ⑦ ○ ⑧ ○

- ⑥ ④-3에 따르면 ④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농도가 낮아지면 우울증이 나타난다. ⑦에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가 활발하게 일어날수록 ④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농도가 낮아질 것이므로 우울증이 발현될 가능성은 오히려 커질 것이다.
- ⑦ ④-5에 따르면 TCA 항우울제는 ⑦의 수용체와, SNRI 항우울제는 ④의 수용체와 결합한다.
- ⑧ ④-5에 따르면 TCA 항우울제는 ⑦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④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낸다.

03 호흡과 순환

86~88쪽

1 ① 2 ④ 3 ② 4 ④

- ① 폐의 혈액으로 들어온 산소는 심장을 거쳐 신체의 각 조직으로 전달되어 에너지 생성에 이용되고, 물질대사 결과 생긴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는 혈액을 통해 심장을 거쳐 폐로 전달되어 몸 밖으로 배출된다. 혈액과 폐포, 혈액과 조직 사이에서의 기체 교환은 분압 차에 따른 확산에 의해 일어나며, 기체는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된다. 한편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 중에 심장에서 나와 폐로 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동맥, 폐로 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한다.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 후 심장을 거쳐 각 조직으로 흐르는 혈액은 동맥혈, 조직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 후 폐로 흐르는 혈액은 정맥혈이다.
- ② 폐포 내 산소 분압은 100~110mmHg이고 그 주위의 모세 혈관 내 정맥혈의 산소 분압은 40mmHg이므로 폐포 내 산소가 폐포를 둘러싼 모세 혈관의 정맥혈로 확산된다. 이때 산소가 풍부한 혈액은 심장을 거쳐 신체의 각 조직으로 흘러가고, 각 조직의 모세 혈관을 흐르는 동맥혈의 산소 분압은 100mmHg, 조직 내 산소 분압은 평균 40mmHg이므로 동맥혈 내의 산소는 조직으로 확산된다. 산소를 방출한 혈액은 심장을 거쳐 폐로 흘러간다. 그런데 산소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작아 혈장에 용해된 상태로 운반되는 양은 폐에서 조직으로 운반되는 산소의 약 1.5%에 불과하고, 약 98.5%는 적혈구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 헤모글로빈 형태로 운반된다.
- ③ 산소 분압에 따른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를 나타내는 곡선을 산소 해리 곡선이라고 하는데, 산소 해리 곡선에서 가로축은 혈액 내의 산소 분압, 세로축은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를 나타낸다. 어떤 산소 분압에서(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한 정도인 산소 포화도와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분리된 정도인 산소 해리도를 더한 값은 100%이다.) 이 곡선은 완만한 S자형으로, 산소 분압이 낮아질 때 산소 헤모글로빈으로부터 해리되는 산소의 양은 산소 분압이 40~100mmHg 구간에서 산소 분압이 낮아질 때, 산소 분압이 40mmHg보다 낮은 구간에서 산소가 해리되는 양이 더 많다.

보다 0~40mmHg 구간에서 더 많다.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도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산소 친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산소 분압 외에도 혈액의 pH(수소 이온 농도 지수), 온도 등이 있다. 어떤 조직의 물질대사가 활발해지면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해 주변 모세 혈관 내 혈액의 pH가 낮아진다. 혈액의 pH가 낮아지면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도가 작아져서 산소의 해리가 촉진되어 주변 조직으로 산소가 방출된다. 즉 산소 분압이 같을 때 pH가 더 낮은 곳에서 산소 헤모글로빈으로부터 더 많은 산소가 방출된다. 또한 운동과 같은 신체 활동으로 인해 온도가 높아진 조직 주변 모세 혈관을 흐르는 혈액에서도 산소가 더 쉽게 해리되어 그 조직으로 운동 전보다 더 많은 산소가 방출된다.

- ④ 한편 각 조직의 물질대사 결과 생긴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도 혈액으로 확산되어 운반된다. 조직의 이산화탄소 분압은 평균 46mmHg이고, 동맥혈 내 이산화탄소 분압은 40mmHg이므로 조직 내 이산화탄소는 조직 주변 모세 혈관을 흐르는 혈액으로 확산된다. 조직에서 폐로 운반되는 이산화탄소의 약 7%는 혈장에 용해된 상태로, 약 23%는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카르바미노헤모글로빈 형태로 운반된다. 산소와 결합하지 않은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보다 쉽게 이산화탄소와 결합하여 카르바미노헤모글로빈을 형성하므로 정맥혈이 동맥혈보다도 헤모글로빈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운반에 유용하다.
- ⑤ 그리고 약 70%의 이산화탄소는 탄산수소 이온 형태로 운반된다. 조직에서 확산된 이산화탄소는 주로 적혈구 내에서 탄산 무수화 효소의 작용으로 물과 결합하여 탄산을 형성하고, 탄산은 수소 이온과 탄산수소 이온으로 이온화된다. 이때 수소 이온은 주로 헤모글로빈과 결합하고 탄산수소 이온은 혈장으로 확산되어 폐로 운반된다. 폐 주위의 모세 혈관에서는 이와 반대의 반응이 일어난다. 즉 탄산수소 이온은 적혈구로 이동하여 수소 이온과 재결합하여 탄산을 형성하고, 탄산은 탄산 무수화 효소의 작용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된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폐포 내로 확산되어 체외로 배출된다.

1 세부 내용 파악하기

읽기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정답인 이유

- ① 탄산 무수화 효소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결합하여 탄산을 형성하는 과정과 탄산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되는 과정에서 작용한다.
- ② ⑤에는 조직에서 확산된 이산화탄소가 탄산 무수화 효소의 작용으로 물과 결합하여 탄산을 형성하며(⑤-2), 폐포 주위의 모세 혈관에서는 탄산이 탄산 무수화 효소의 작용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된다(⑤-5)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①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진술이다.

오답 피하기

- ② 폐에서 조직으로 운반되는 산소와 조직에서 폐로 운반되는 이산화 탄소는 ~~각각 세 가지 방식으로~~ 운반된다.
- ②-4에 따르면 산소는 혈장에 용해된 상태와 산소 헤모글로빈의 형태로 운반된다. 한편 ④-3, ⑤-1에 따르면 이산화 탄소는 혈장에 용해된 상태와 카르바미노헤모글로빈의 형태 그리고 탄산수소 이온 형태로 운반된다. 즉, 산소는 두 가지, 이산화 탄소는 세 가지 방식으로 운반된다.
- ③ 산소와 결합하지 않은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보다 이산화 탄소와 결합하기 ~~어렵다~~.
- ④-4에 따르면 산소와 결합하지 않은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보다 쉽게 이산화 탄소와 결합한다.
- ④ 이산화 탄소와 물이 결합하여 탄산이 형성되는 반응은 주로 ~~혈관~~ ~~에서~~ 일어난다.
- ⑤-2에 따르면 이산화 탄소와 물이 결합하여 탄산이 형성되는 반응은 혈장이 아니라 적혈구 내에서 일어난다.
- ⑤ 평균적으로 조직 내의 산소 분압은 ~~46mmHg~~, 이산화 탄소 분압은 ~~40mmHg~~이다.
- 조직 내 산소 분압은 평균 40mmHg(②-2)이고, 이산화 탄소 분압은 평균 46mmHg(④-2)이다.

2 생략된 정보 추론하기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④ ㉠에서 이산화 탄소는 ~~대부분 카르바미노헤모글로빈의 형태로 운~~ 반된다.
- ④-3, ⑤-1에 따르면 ㉠에서 이산화 탄소의 약 7%는 혈장에 용해된 상태로, 약 23%는 카르바미노헤모글로빈 형태로, 약 70%는 탄산수소 이온 형태로 운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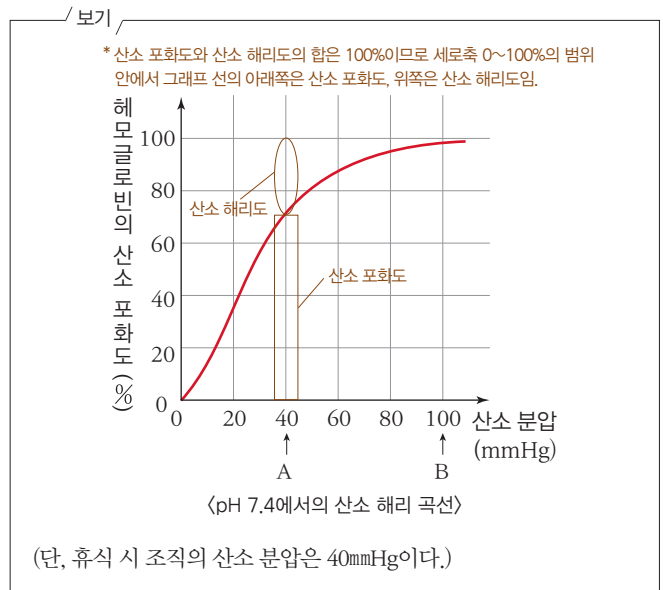
오답 피하기

- ① ㉡의 산소 분압은 조직을 지나면 낮아진다.
- ②-2에서 혈액이 조직을 지날 때 ㉡와 조직 내의 산소 분압 차로 ㉡ 내의 산소가 조직에 확산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 산소 분압은 조직을 지나면 낮아질 것이다.
- ② ㉡에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한 산소의 양이 혈장에 용해된 산소의 양보다 많다.
- ②에 따르면 산소는 ㉡를 통해 조직으로 운반된다. ②-4에서 산소의 98.5%가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운반되고, 1.5%가 혈장에 용해되어 운반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③ ㉢는 폐포를 지나면 이산화 탄소 분압이 낮아진다.
- ⑤-6에서 ㉢의 혈액을 통해 운반되어 온 이산화 탄소는 폐포 내로 확산되어 체외로 배출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 이산화 탄소 분압은 폐포를 지나면 낮아질 것이다.
- ⑤ ㉣는 조직에서 심장으로 가는 혈관과, 심장에서 폐로 가는 혈관에 흐른다.

→ ①-4에 ㉣는 조직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 후 폐로 흐르는 혈액임이 언급되어 있다. 이때 동맥혈이 폐 → 심장 → 조직을 거쳐 흐르는 것을 고려하면 ㉣ 또한 조직 → 심장 → 폐를 거쳐 흐른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②-3에 조직에서 산소를 방출한 혈액이 심장을 거쳐 폐로 흘러간다고 언급된 것을 볼 때, 이 혈액이 정맥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 조직에서 심장으로 가는 혈관과, 심장에서 폐로 가는 혈관에 흐른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3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② 조직의 온도가 휴식 시보다 상승하면 그 조직의 주변을 흐르는 혈액의 산소 포화도는 A일 때보다 ~~증가~~한다.
- ③-8에 따르면 온도가 높아질 경우 조직 주변 모세 혈관을 흐르는 혈액에서 산소가 더 쉽게 해리되어 온도가 낮을 때보다 그 조직으로 더 많은 산소가 방출된다. <보기>에서 휴식 시 조직의 산소 분압이 40mmHg이라고 한 것을 볼 때, 조직의 온도가 휴식 시보다 상승할 경우 혈액의 산소 포화도는 A(40mmHg)보다 감소할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산소 분압이 낮아질 때 A부터 B 구간에서 감소되는 산소 포화도보다 A 이하 구간에서 감소되는 산소 포화도가 더 크다.
- ③-3에 따르면 산소 분압이 낮아질 때 산소 헤모글로빈으로부터 해리되는 산소의 양은 산소 분압 40~100mmHg 구간보다 40mmHg 이하 구간에서 더 많다. <보기>에서도 A부터 B 구간보다 A 이하 구간에서 산소 포화도가 더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와 산소 해리도를 더한 값은 A와 B에서 동일하다.
- ③-2의 내용으로 볼 때, <보기>의 A와 B에서 산소 포화도와 산소 해리도를 더한 값은 100%로 동일하다.

- ④ B와 A에서의 산소 포화도 차이만큼의 산소가 휴식 시 조직으로 전달된다.
- ➡ ②-2에서 조직의 모세 혈관을 흐르는 동맥혈의 산소 분압은 100 mmHg이고, 조직의 산소 분압은 40mmHg이므로 동맥혈 내의 산소는 조직으로 확산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B와 A에서의 산소 포화도의 차이는, 그만큼의 혈액의 산소가 방출되어 조직으로 전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A에서의 산소 해리도는 B에서의 산소 해리도보다 더 크다.
- ➡ ③-2에 따르면 산소 포화도와 산소 해리도의 함은 100%로 일정하다. 이를 고려할 때 <보기>에서 A에서의 산소 포화도는 B에서의 산소 포화도보다 작으므로, A에서의 산소 해리도는 B에서의 산소 해리도보다 클 것이다.

4 반응의 적절성 판단하기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가. 1. 일산화 탄소 중독은 일산화 탄소의 지나친 흡입으로 어지럼증, 혼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2. 일산화 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려는 경향이 산소의 200배 이상이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는 헤모글로빈의 양을 감소시킨다. 3. 그리고 일산화 탄소는 조직에서 산소 헤모글로빈으로부터 산소의 방출을 억제한다.
- 나. 1. 과다 호흡 증후군은 동맥혈의 이산화 탄소 농도가 정상 범위 아래로 떨어져 호흡 곤란,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2. 봉지에 입을 대고 호흡을 하게 하는 응급 처치를 하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다. 호흡성 산증은 폐에서 기체 교환의 감소로 동맥혈의 이산화 탄소 분압이 증가하여 호흡 곤란,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답인 이유

- ④ 나: 봉지에 입을 대고 호흡을 하게 되면 평상시보다 더 적은 양의 이산화 탄소를 흡입하게 되겠군.
- ➡ ⑤-6에 따르면 이산화 탄소는 폐포 내로 확산되어 체외로 배출된다. 이를 고려할 때 봉지에 입을 대고 호흡하면 폐를 통해 배출된 이산화 탄소를 다시 흡입하므로 평상시보다 더 많은 양의 이산화 탄소를 흡입하게 될 것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가: 일산화 탄소를 지나치게 흡입하게 되면, 생성되는 산소 헤모글로빈의 양이 평상시보다 줄어들겠군.
- ➡ <보기> 가-2에서 일산화 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려는 경향이 산소의 200배 이상이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는 헤모글로빈의 양을 감소시킨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② 가: 일산화 탄소는 산소 헤모글로빈에서 산소가 잘 해리되지 않게 하겠군.
- ➡ <보기> 가-3에서 일산화 탄소는 조직에서 산소 헤모글로빈으로부터 산소의 방출을 억제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③ 나: 과다 호흡 증후군은 폐를 통한 이산화 탄소 배출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 발생하는 증상이겠군.
- ➡ <보기> 나-1에 따르면 과다 호흡 증후군은 동맥혈의 이산화 탄소 농도가 정상 범위 아래로 떨어지면 발생한다. 동맥혈의 이산화 탄소 농도가 정상 범위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폐포 내로 확산되어 체외로 배출되는 이산화 탄소(⑤-6)의 양이 너무 많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다: 호흡성 산증이 나타난 사람의 체내에는 이산화 탄소가 배출되지 못해 축적되어 있겠군.
- ➡ <보기> 다에 따르면 호흡성 산증은 폐에서 기체 교환의 감소로 동맥혈의 이산화 탄소 분압이 증가하여 발생한다. 즉 호흡성 산증은 폐에서 기체 교환이 감소함에 따라 이산화 탄소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일어나는 것으로, 호흡성 산증이 나타난 사람의 체내에는 이산화 탄소가 배출되지 못해 축적되어 있을 것이다.

문제 하이라이트

89쪽

(1) 산소 (2) ○ (3) 해리 (4) ○ (5) ○ (6) × (7) ○

선지+ ⑥ ○ ⑦ × ⑧ ×

선지+

- ⑥ ①-1에서 산소는 폐와 심장을 거쳐 각 조직으로 전달되어 에너지 생성에 이용된다고 하였다. <보기> 가-2의 내용으로 볼 때, 일산화 탄소 중독이 일어나면 조직에 산소가 잘 공급되지 못할 것이므로 물질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 ⑦ ①-4에 따르면 폐에서 조직으로 흐르는 혈액은 동맥혈이다. 과다 호흡 증후군은 동맥혈의 이산화 탄소 농도가 정상 범위 아래일 때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동맥혈의 이산화 탄소가 평상시보다 적을 것이다.
- ⑧ <보기> 다에 따르면 호흡성 산증은 혈액의 이산화 탄소 분압이 증가하여 나타나는 증상이다. 봉지에 입을 대고 호흡하면 평상시보다 더 많은 양의 이산화 탄소를 흡입하게 되어 혈액의 이산화 탄소 분압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봉지에 입을 대고 호흡하는 것은 '호흡성 산증'을 해결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① **터치스크린 패널**은 스크린의 특정 지점을 직접 접촉하면 그 위치를 파악하여 해당 위치에 설정된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를 말한다. **터치스크린 패널의 개념**
 ② 터치스크린 패널 중 **정전용량방식의 패널**은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물체를 스크린에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정전용량의 변화를 측정하여 접촉된 위치를 파악한다. **정전용량방식 터치스크린 패널의 원리**
 ③ 터치스크린 패널에 사용되는 정전용량방식에는 일반적으로 **표면정전방식**과 **투영정전방식**이 있다. ▶ 터치스크린 패널의 개념과 터치스크린 패널에 사용되는 정전용량방식의 분류

② ① **표면정전방식**은 패널의 네 모서리에 있는 각각의 감지회로가 동시에 정전용량의 변화를 감지하여 전도성 물체의 접촉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표면정전방식의 개념**
 ② 표면정전방식에서는 패널의 표면에 덮인 전도성 투명 필름이 전도성 물체의 접촉을 인식하는 센서 역할을 한다. **표면정전방식의 장점**
 ③ 센서에 전도성 물체가 접촉하게 되면 물체의 전하량과 패널의 전하량의 차이에 의해 전압이 변화하고, 이로 인해 형성된 전기장은 정전용량을 변화시킨다. **표면정전방식의 원리**
 ④ 네 모서리에 있는 감지회로는 정전용량의 변화된 정도를 측정하여 물체가 접촉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표면정전방식의 단점**
 ⑤ 표면정전방식은 투영정전방식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단가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 표면정전방식의 원리와 장단점
 ⑥ 하지만 접촉된 위치를 대략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어 정확도가 낮은 반면에 하나의 접촉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지점을 접촉했을 때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③ ① **투영정전방식**은 접촉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패널의 일정한 구역마다 배치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① 자기정전방식과 ② 상호정전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투영정전방식의 개념**
 ② 자기정전방식은 (패널에 전도성 물체가 접촉하면 물체의 전하량과 패널의 전하량의 차이에 의해 전압이 변화하고, 이때 형성된 전기장에 의해 증가하는 정전용량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자기정전방식의 원리**
 ③ 하지만 자기정전방식은 표면정전방식과 달리 하나의 층에 여러 개의 행과 열의 형태로 배치된 각각의 센서들을 활용한다. **자기정전방식의 센서 배치**
 ④ 센서가 특정 지점의 접촉을 인식하면 센서의 각 행과 열의 끝에 배치된 감지회로가 접촉 지점에서 일어난 정전용량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과 열의 교차점인 접촉 위치를 정교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자기정전방식의 특징**

④ ① 반면 **상호정전방식**은 가로축으로 배열된 센서인 구동 라인과 세로축으로 배열된 센서인 감지 라인이 두 개의 층을 이루고 있다. **투영정전방식 ②**
 ② 패널에 전도성 물체와의 접촉이 없을 때 구동 라인에서는 전압에 의해 전기장이 형성되며, 이 전기장은 모두 감지 라인으로 들어가 일정한 크기의 전기장을 유지하여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 사이에 상호 정전용량을 형성한다. **상호정전방식의 원리**
 ③ 하지만 (패널에 전도성 물체가 접촉하게 되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던 전기장의 일부가 접촉된 물체로 흡수된다. **상호정전방식의 센서 배치**
 ④ 전기장이 물체에 흡수되면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 사이에 형성된 상호 정전용량

이 감소하며 전기장의 크기 역시 줄어든다. **접촉 위치**
 ⑤ 이때 접촉이 정확하게 일어날수록 해당 지점에 전기장이 더 많이 줄어들게 된다. **상호정전방식의 특징**
 ⑥ 결국 패널에는 접촉 전과는 다른 전기장의 흐름이 나타나 상호 정전용량이 변화하고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의 교차점인 터치좌표쌍이 인식된다. **상호정전방식의 단점**
 ⑦ 이때 터치좌표쌍은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이 개별적으로 인식된 교차점에 하나의 패널에서는 여러 개의 터치좌표쌍이 만들어질 수 있다. **투영정전방식 ②: 상호정전방식에서의 전기장의 흐름과 터치좌표쌍의 생성**
 ⑧ 이후 (터치좌표쌍의 정보를 터치 컨트롤러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이미지로 처리하여 중앙처리장치(CPU)에 전달함으로써 해당 터치스크린 패널은 전도성 물체의 접촉 여부 및 접촉한 위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상호정전방식의 원리**
 ⑨ 이러한 상호정전방식은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의 교차점을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기에 측정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⑩ 두 지점을 접촉하는 멀티 터치가 가능하여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기기에 많이 활용되는 추세이다. **상호정전방식의 단점**
 ▶ 투영정전방식 ②: 상호정전방식의 원리와 장단점

1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인 이유

- ③ 표면정전방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크린에 전도성이 없는 투명 필름을 입혀야 한다.
 ➔ ②-2에 표면정전방식에서는 패널의 표면에 '전도성 투명 필름'을 입힌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③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 ① 터치스크린 패널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직관적 조작이 가능하다.
 ➔ ①-1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자기정전방식은 접촉점에 해당하는 행과 열의 교차점을 터치 지점으로 인식한다.
 ➔ ③-4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상호정전방식에서는 수집된 행과 열의 정보가 터치 컨트롤러에서 이미지로 처리된다.
 ➔ ⑤-1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투영정전방식은 표면정전방식보다 구조가 복잡하지만 더욱 정교한 좌표 인식이 가능하다.
 ➔ ②-5에 따르면 표면정전방식은 투영정전방식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다. 또한 ②-6, ③-4에 따르면 표면정전방식은 정확도가 낮은 반면 투영정전방식은 좌표를 정교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⑤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2 정보 간의 관계 파악하기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③ ㉠과 달리 ㉣은 하나의 접촉점을 인식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감지 회로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② ㉠은 패널의 네 모서리에 각각 감지회로가 있고(②-1), ㉡은 센서의 각 행과 열 끝에 감지회로가 배치되어 있다(③-4). 따라서 ㉠, ㉡ 모두 두 개 이상의 감지회로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은 모두 전도성 물체의 접촉에 따른 정전용량의 변화를 측정한다.
 ② ㉠~㉡은 모두 정전용량방식의 한 종류이다(①-3, ③-1). ①-2에서 정전용량방식의 패널은 전도성 물체를 스크린에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정전용량의 변화를 측정하여 접촉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라 하였으므로, ①의 이해는 적절하다.
 ③ ㉠~㉡은 모두 패널에 있는 센서를 이용하여 접촉 부분의 위치를 알아내는 방식이다.
 ④ ㉠은 패널의 전도성 투명 필름이 센서 역할을 하는데(②-2) 이를 통해 감지회로가 접촉 위치를 파악한다. 또한 ㉡은 패널의 일정한 구역마다 배치된 센서를 통해(③-1), ㉡은 패널에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배열된 센서를 통해 접촉 위치를 감지한다(④-1).
 ⑤ ㉠과 달리 ㉡은 센서층이 두 개의 층을 이루고 있다.
 ⑥ ㉡은 센서들이 하나의 층에 배치되어 있으며(③-3), ㉡은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배열된 센서들이 두 개의 층을 이루고 있다(④-1).
 ⑦ ㉠과 달리 ㉡은 접촉 부분에서 증가하는 정전용량을 감지하는 방식이다.
 ⑧ ㉡은 증가하는 정전용량을 측정하고(③-2), ㉡은 상호 정전용량의 감소를 인식한다(④-3~⑥).

3 생략된 정보 추론하기

㉠에 대한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①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의 교차점이 개별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② ④-7에 따르면 터치좌표쌍은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이 개별적으로 인식된 교차점으로, 하나의 패널에서는 여러 개의 터치좌표쌍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상호정전방식 패널의 두 지점을 접촉할 경우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이 개별적으로 인식되어 두 지점의 터치좌표쌍이 각각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의 이유를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의 교차점이 개별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본 것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③ 교차점의 위치를 빠르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⑤-2에 따르면 상호정전방식은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을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기에 측정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⑤ 중앙처리장치가 행과 열의 정보를 분할하기 때문이다.
 ⑥ ⑤-1에 따르면 중앙처리장치는 전도성 물체의 접촉 여부 및 접촉 위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중앙처리장치가 행과 열의 정보를 분할한다는 내용은 글에서 찾을 수 없다.

③ 센서의 행과 열 끝에 감지회로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④ ③-4의 내용으로 볼 때, 센서의 행과 열 끝에 감지회로가 배치되어 있는 것은 자기정전방식이다. ㉠은 상호정전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⑤ 하나의 패널에서 한 개의 터치좌표쌍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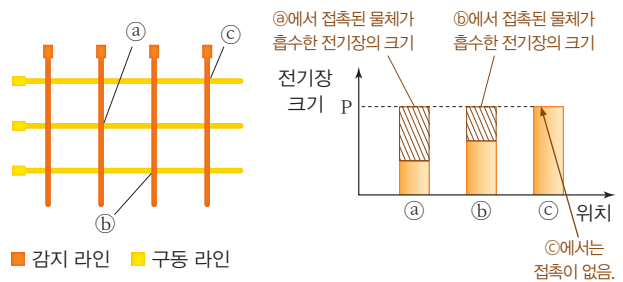
⑥ ④-7에 따르면 상호정전방식에서는 하나의 패널에서 여러 개의 터치좌표쌍이 만들어질 수 있다.

4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다음은 터치스크린 패널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설정된 자료이다. <자료 1>은 터치스크린 패널의 한 종류를 도식화한 것이고, <자료 2>는 <자료 1>의 ㉠~㉢ 지점에 형성된 전기장의 크기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자료 1>

<자료 2>

* 단, P는 전도성 물체의 접촉이 없는 상태의 전기장 크기이다.

정답인 이유

- ① ㉠과 ㉡에서는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 사이에서 형성된 상호 정전용량이 감소했겠군.
 ② ④-2~④에 따르면 상호정전방식 패널에 전도성 물체와의 접촉이 없을 때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 사이에 상호 정전용량이 형성되지만, 전도성 물체가 패널에 접촉하면 전기장 일부가 접촉한 물체로 흡수되어 상호정전용량이 감소한다. <보기>에서 전도성 물체의 접촉이 없을 때의 전기장 크기가 P라고 한 것을 고려할 때, <자료 2>에서 ㉠의 전기장 크기가 P보다 작으므로, ㉠ 지점에서 전도성 물체가 접촉하여 상호 정전용량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료 2>의 ㉢ 지점의 전기장 크기는 P이므로, ㉢에서는 전도성 물체의 접촉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서 상호 정전용량이 감소했을 것이라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③ ㉠에서 접촉된 물체가 흡수한 전기장의 크기는 ㉡에서 접촉된 물체가 흡수한 전기장의 크기보다 크겠군.
 ④ ④-3에 따르면 상호정전방식 패널에 전도성 물체가 접촉하게 되면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 사이에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던 전기장의

일부가 접촉된 물체로 흡수된다. <보기>에서 전도성 물체의 접촉이 없을 때 전기장 크기가 P라고 한 것을 고려할 때 <자료 2>의 ㉠보다 전기장의 크기가 더 작으므로, ㉠에 접촉된 물체가 흡수한 전기장의 크기가 ㉠에 접촉된 물체가 흡수한 전기장의 크기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전기장의 크기로 보아 ㉠보다 ㉠에서 더 정확한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5에 따르면 패널에 전도성 물체와의 접촉이 정확하게 일어날 수록 해당 지점의 전기장이 더 많이 줄어든다. <보기>의 <자료 2>에서 ㉠의 전기장의 크기가 ㉠의 전기장의 크기보다 작으므로, ㉠에서 더 정확한 접촉이 이루어져 전기장의 크기가 더 많이 줄어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에서는 구동 라인에서 발생한 전기장의 크기와 감지 라인으로 들어가는 전기장의 크기가 일치하겠군.

→ <보기>의 <자료 2>에서 ㉠의 전기장 크기는 P이므로, ㉠에서는 전도성 물체와의 접촉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2에 따르면 패널에 전도성 물체와의 접촉이 없을 때 구동 라인에서 발생한 전기장은 모두 감지 라인으로 들어가 일정한 크기의 자기장을 유지하므로, <보기>의 ㉠에서는 구동 라인에서 발생한 전기장의 크기와 감지 라인으로 들어가는 전기장의 크기가 일치한다.

④ ㉠과 달리 ㉠에서는 감지 라인으로 들어가야 할 전기장의 일부가 접촉된 물체로 흘러들어 갔겠군.

→ ④-3에 따르면 상호정전방식 패널에 전도성 물체가 접촉할 경우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던 전기장의 일부가 접촉된 물체로 흡수된다. <보기>의 <자료 2>에서 ㉠의 전기장 크기는 P이므로, ㉠에서는 전도성 물체와의 접촉이 없어 전기장이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료 2>에서 ㉠의 전기장의 크기가 P보다 작으므로, ㉠에서 전도성 물체가 접촉하여 전기장 일부가 그 물체로 흘러갔다고 볼 수 있다.

문제 하이라이트

93쪽

(1) × (2) × (3) 자기정전 (4) × (5) 개별적 (6) ○ (7) ×

선지 + ⑥ × ⑦ ○ ⑧ ×

선지 +

- ⑥ 표면정전방식에 대한 설명(②-1)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⑦ ④-6~7에서 상호정전방식은 패널의 가로축, 세로축으로 배열된 센서인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의 교차점에서 접촉을 인식하며, 하나의 패널에서 여러 개의 교차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⑧ ④-1에 따르면 상호정전방식 패널의 가로축이 구동 라인, 세로축이 감지 라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05 가상 공간 체험

94~96쪽

1 ⑤

2 ③

3 ①

4 ①

①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이라는 의미의 '메타(meta)'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이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2. 감각 전달 장치는 메타버스 속에서 사용자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보고 만지는 것으로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장치이다. 3. 사용자는 이를 통하여 가상 공간을 현실감 있게 체험하면서 메타버스에 몰입하게 된다.

② '시각을 전달하는 장치인 HMD는 사용자의 양쪽 눈에 가상 공간을 표현하는, 시차가 있는 영상을 전달한다.' 2. 전달된 영상을 뇌에서 조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공간과 물체의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3. 가상 공간에서 물체를 접촉하는 것처럼 사용자의 손에 감각 반응을 직접 전달하는 장치로는 가상 현실 장갑이 있다. 4. 가상 현실 장갑은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가 만지는 가상 물체의 크기, 형태, 온도 등을 사용자가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5. 이 외에도 가상 현실 장갑은 사용자의 손가락 및 팔의 움직임에 따라 아바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③ '한편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바타에게 전달하는 공간 이동 장치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몰입도 높은 메타버스 체험을 할 수 있다.' 2. 공간 이동 장치인 가상 현실 트레드밀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360도 방향으로 사용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닥의 움직임을 지원한다.

④ '가상 현실 트레드밀과 함께 사용되는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아바타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시스템으로, 동작 추적 센서, 관성 측정 센서, 압력 센서 등으로 구성된다.' 2. 동작 추적 센서는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하며, 관성 측정 센서는 사용자의 이동 속도 변화율 및 회전 속도를 측정한다. 3. 압력 센서는 서로 다른 물체 간에 작용하는 압력을 측정한다. 4. 만약 바닥에 압력 센서가 부착된 신발을 사용자가 신고 뛰면, 압력 센서는 지면과 발바닥 사이의 압력을 감지하여 사용자가 뛰는 힘을 파악할 수 있다. 5.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 사용자의 동작 정보를 컴퓨터에 전달하면, 컴퓨터는 사용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에 ㉠ 맞춰 트레드밀의 바닥을 제어한다. 6. 이와 같이 사용자의 이동 동작에 따라 트레드밀의 움직임이 변경되기도 하지만, 아바타가 존재하는 가상 공간의 환경 변화에 따라 트레드밀 바닥의 진행 속도 및 방향, 기울기 등이 변경되기도 한다. 7. 또한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트레드밀의 작동 변화에 따라 HMD에 표시되는 가상 공간의 장면이 변경되어 사용자는 더욱 현실감 높은 체험을 할 수 있다.

1 중심 내용 파악하기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인 이유

- ⑤ 가상 현실 장갑을 착용하면 사용자와 아바타는 상호 간에 감각 반응을 주고받을 수 있다.
- ➔ ②-3~4에 따르면 가상 현실 장갑은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가 만지는 가상 물체의 크기, 형태, 온도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이 글에서 가상 현실 장갑이 사용자의 감각 반응을 아바타에 전달하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통해 사용자와 아바타가 상호 간에 감각 반응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감각 전달 장치와 공간 이동 장치는 사용자가 메타버스에 몰입할 수 있게 한다.
- ➔ 감각 전달 장치는 메타버스 속에서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함으로써(①-2~3), 공간 이동 장치는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바타에게 전달함으로써(③-1) 사용자가 메타버스에 몰입하는 것을 돕는다.
- ② 공간 이동 장치는 현실 세계 사용자의 움직임을 메타버스의 아바타에게 전달한다.
- ➔ ③-1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HMD는 사용자가 시각을 통해 메타버스의 공간과 물체의 입체감을 느끼도록 한다.
- ➔ ②-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감각 전달 장치는 아바타가 느끼는 것으로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장치이다.
- ➔ ①-2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세부 내용 파악하기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③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가 경사로를 만나면 가상 현실 트레드밀 바닥의 기울기가 변경될 수 있다.
- ➔ ④-6에서 가상 공간의 환경 변화에 따라 트레드밀 바닥의 기울기가 변경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관성 측정 센서는 사용자의 이동 속도와 뛰는 힘을 측정할 수 있다.
- ➔ 사용자가 뛰는 힘을 측정하는 것은 압력 센서이다(④-4).
- ② HMD에 표시되는 가상 공간 장면의 변경에 따라 HMD는 가상 현실 트레드밀을 제어한다.
- ➔ '트레드밀의 작동 변화'에 따라 'HMD에 표시되는 가상 공간의 장면'이 변경된다(④-7).
- ④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아바타의 동작에 따라 사용자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화한다.
- ➔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아바타의 동작'이 동기화되는 것이다(④-1).

- ⑤ 아바타가 이동 방향을 바꾸면 가상 현실 트레드밀 바닥의 진행 방향이 변경되어 사용자의 이동 방향이 바뀌게 된다.

➔ ④-6에서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 감지한 사용자의 정보에 따라 트레드밀의 움직임이 변경되고, 아바타가 존재하는 가상 공간의 환경 변화에 트레드밀 바닥의 진행 속도 및 방향, 기울기 등이 변경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바타가 이동 방향을 바꿈에 따라 트레드밀 바닥의 진행 방향이 변경된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으며, 그 결과로 사용자의 이동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진술 또한 적절하지 않다.

3 단어의 의미 파악하기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정답인 이유

- ① 그 연주자는 피아노를 언니의 노래에 정확히 맞추어 쳤다.
- ➔ ㉠의 '맞추다'는 '어떤 기준이나 정도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①에서 '언니의 노래'가 어떤 기준이나 정도에 해당되므로, '맞추다'가 문맥상 ㉠와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 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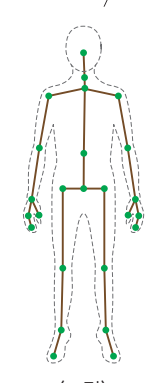
오답 피하기

- ② 아내는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의 색깔을 조화롭게 맞추었다.
- ➔ '서로 어긋남이 없이 조화를 이루다.'의 뜻으로 쓰였다.
- ③ 우리는 다음 주까지 손발을 맞추어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 ➔ '서로 어긋남이 없이 조화를 이루다.'의 뜻으로 쓰였다.
- ④ 그 동아리는 신입 회원을 한 명 더 뽑아 인원을 맞추었다.
- ➔ '일정한 수량이 되게 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 ⑤ 동생은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친구와 답을 맞추어 보았다.
- ➔ '둘 이상의 일정한 대상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살피다.'의 뜻으로 쓰였다.

4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동작 추적 센서의 하나인 **키넥트 센서**는 적외선 '모션 트래킹 시스템' 센서 중 하나(④-1~2) 선 카메라와 RGB 카메라 등으로 구성된다. 적외선 카메라는 광원에서 발산된 적외선이 피사체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수신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피사체의 입체 정보를 포함하는 저해상도 단색 이미지를 제공한다. 반면 RGB 카메라는 피사체의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를 제공한다. 키넥트 센서는 저해상도 입체 이미지를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에 투영하여 사용자가 검출되는 경우, <그림>과 같이 신체 부위에 대응되는 25개의 연결점을 선으로 이은 3D 골격 이미지를 제공한다.

<그림>

- ① 키넥트 센서는 가상 공간에 있는 물체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입체감을 구현할 수 있다.
- ➡ <보기>에 따르면 키넥트 센서는 동작 추적 센서의 하나에 해당한다. ④-2에서 동작 추적 센서는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키넥트 센서가 '가상 공간에 있는 물체들 간의 거리'를 측정한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② 키넥트 센서가 확보한, 사용자의 춤추는 동작 정보를 바탕으로 아바타의 춤추는 동작이 구현될 수 있다.
- ➡ 키넥트 센서는 동작 추적 센서이다. ④-1~2에 따르면 동작 추적 센서는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하여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아바타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므로 적절하다.
- ③ 키넥트 센서와 관성 측정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걷는 자세 및 이동 속도 변화율을 파악할 수 있다.
- ➡ ④-2의 내용으로 볼 때 키넥트 센서는 동작 추적 센서이므로 이를 통해 사용자의 걷는 자세를 파악할 수 있으며, 관성 측정 센서로 사용자의 이동 속도 변화율을 측정할 수 있다.
- ④ 연결점의 수와 위치의 제약 때문에 사용자의 골격 이미지로는 사용자의 얼굴 표정 변화를 아바타에게 전달할 수 없다.
- ➡ <보기>의 <그림>에서 얼굴에는 연결점이 1개 뿐이므로 얼굴 표정 변화는 파악할 수 없다.
- ⑤ 적외선 카메라의 입체 이미지와 RGB 카메라의 컬러 이미지 정보로부터 생성된 골격 이미지가 사용자의 동작 정보를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 ➡ <보기>에 따르면 적외선 카메라는 입체 이미지를, RGB 카메라는 컬러 이미지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키넥트 센서는 3D 골격 이미지를 제공한다. 키넥트 센서는 동작 추적 센서이므로, 적외선 카메라와 RGB 카메라의 정보로 생성한 이미지를 통해 사용자의 동작 정보를 파악한다는 이해는 적절하다(④-2).

문제 하이라이트

97쪽

(1) ○ (2) × (3) × (4) × (5) ×

선지+ ⑥ ○ ⑦ × ⑧ ×

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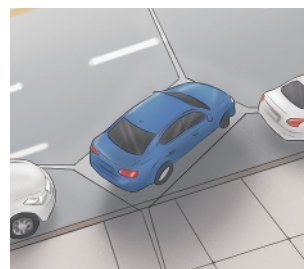
- ⑥ ④의 '맞추다'는 '어떤 기준이나 정도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⑥에서 '맞추다'는 문맥상 '약속한 시각'이라는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한다는 뜻으로 쓰였으므로, ③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⑦ 밑줄 친 '맞추다'는 '일정한 규격의 물건을 만들도록 미리 주문을 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 ⑧ 밑줄 친 '맞추다'는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자리에 맞게 대어 붙이다.'의 뜻으로 쓰였다.

06 어라운드 뷰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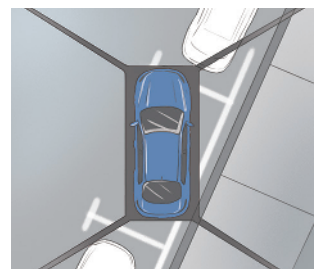
98~100쪽

1 ④ 2 ② 3 ① 4 ④

- ① 주차하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운전자를 돕는 장치들이 있다.²이 중 차량 전후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차량 주위 360°의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 차 안의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장치가 있다.³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자.
- ➡ 운전자에게 차량 주위 360°의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을 제공하는 장치
- ② 먼저 차량 주위 바닥에 바둑판 모양의 격자판을 펴 놓고 카메라로 촬영한다.²이 장치에서 사용하는 광각 카메라는 큰 시야각을 갖고 있어 사각지대가 줄지만 빛이 렌즈를 a 지날 때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 영상이 중심부는 볼록하고 중심부에서 멀수록 더 휘어지는 현상, 즉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이 발생한다.³이 왜곡에 영향을 주는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내부 변수라고 하며 왜곡 계수로 나타낸다.⁴이를 알 수 있다면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⁵한편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의 원인을 외부 변수라고 한다.⁶촬영된 영상과 실제 격자판을 비교하면 영상에서 격자판이 회전한 각도나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통해 카메라의 기울어진 각도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 ➡ 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 ①: 격자판을 놓고 촬영 후, 내부·외부 변수로 발생하는 왜곡을 보정함.
- ③ 왜곡 보정이 끝나면 영상의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세계의 점들을 추정하여 이로부터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²카메라가 3차원 실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하면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서는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 ➡ 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 ②: 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 원근 효과를 제거하는 시점 변환을 해야 함.
- ④ 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의 몇 개의 점과 그에 대응하는 실세계 격자판의 점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영상의 모든 점들과 격자판의 점들 간의 대응 관계를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²이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영상의 점들을 격자의 모양과 격자 간의 상대적인 크기가 실세계에서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으면 2차원 영상으로 나타난다.³이때 얻은 영상이 c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이 된다.⁴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각 방향의 영상을 합성하면 차량 주위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이 만들어진다.
- ➡ 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 ③: 시점 변환 후 각 방향의 영상을 합성함.



〈3차원 실세계의 모습〉



〈어라운드 뷰 모니터 상의 모습〉

1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정답인 이유

- ④ 영상이 중심부로부터 멀수록 크게 휘는 것은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보정할 수 있다.

➡ ②-2~4에 따르면 영상이 중심부로부터 멀수록 휘어지는,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은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보정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차량 주위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은 360°를 촬영하는 카메라 ~~하나~~를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 ①-2와 ④-4에 따르면, 카메라 하나가 아니라 차량 전후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합성하여 만든다.
- ② 외부 변수로 인한 왜곡은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알 수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 ②-3에 따르면 카메라 자체의 특징은 외부 변수가 아니라 내부 변수와 관련이 있다. 한편 ②-5의 내용으로 볼 때 외부 변수와 관련된 것은 카메라의 기울어짐이다.
- ③ 차량의 전후좌우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한 후 왜곡을 보정한다~~.
➡ ③-1과 ④-4에 따르면 영상의 왜곡을 보정하고 시점을 변환한 뒤,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한다.
- 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 있는 점들은 카메라 시점의 영상과는 달리 ~~3차원 좌표로~~ 표시된다.
➡ ④-2에 따르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은 2차원 영상으로 나타난다.

2 정보 간의 관계 파악하기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② ㉠에서는 ㉠과 마찬가지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격자판이 작아 보이겠군.
➡ 이 글에 따르면 ㉠은 렌즈 고유의 곡률 또는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왜곡이 생긴 영상, ㉢은 ㉠에서 발생한 왜곡을 보정한 영상이다. ③-1~2에서 '왜곡 보정이 끝나면'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나는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시점 변환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즉, ㉠과 ㉢은 모두 시점 변환 전의 영상이므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격자판이 작아 보일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에서 광각 카메라를 이용하여 확보한 시야각은 ㉢에서는 ~~작아~~졌군.
➡ ②의 내용으로 볼 때 ㉢은 ㉠에 나타난 왜곡을 보정한 영상일 뿐, 광각 카메라가 확보한 시야각은 변하지 않는다.

- ③ ㉠에서는 ㉠에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에 따른 렌즈의 곡률~~ 변화로 생긴 휘어짐이 보정되었겠군.

➡ ②-1~2에 따르면 ㉠의 영상이 휘어져 보이는 것은 렌즈와 격자판 사이에 따른 렌즈의 곡률 변화 때문이 아니라, '렌즈 고유의 곡률' 때문이다.

- ④ ㉢과 실제계 격자판을 비교하여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보정한 ㉢은 카메라의 기울어짐에 의한 왜곡을 바로잡은 것이겠군.

➡ ②-5~6에 따르면 ㉠에는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왜곡이 발생하며, ㉠과 실제계 격자판을 비교하여 격자판의 위치를 보정한 것이 ㉢이다. 즉, ④의 진술은 ㉢과 ㉢이 아니라 ㉠과 ㉢에 대한 설명이다.

- ⑤ ㉢에서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 때문에 격자판의 윗부분으로 갈수록 격자 크기가 더 작아 보이던 것이~~ ㉢에서 보정되었겠군.

➡ ②에 따르면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은 ㉠에서 나타나며, ㉢으로 변환할 때 이미 보정되어 있다. 한편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은 격자판의 윗부분으로 갈수록 크기가 더 작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중심부는 볼록하고 중심부에서 멀수록 더 휘어져 보이는 것이다.

3 단어의 의미 파악하기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정답인 이유

- ① 그때 동생이 탄 버스는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다.
➡ ㉡의 '지나다'는 '어디를 거처서 가거나 오거나 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①의 '지나다'는 문맥상 '(버스가) 교차로를 거처서 가거나 오거나 하다.'의 의미로, ㉡와 그 뜻이 가장 유사하다.

오답 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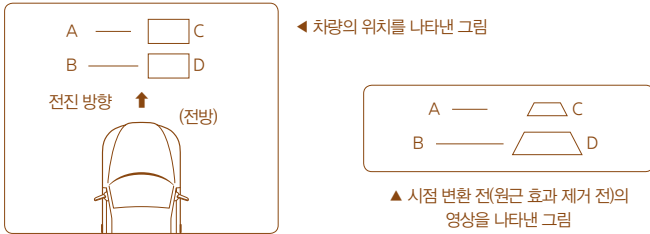
- ② 그것은 슬픈 감정을 지나서 아픔으로 남아 있다.
➡ '어떠한 상태나 정도를 넘어서다.'의 뜻으로 쓰였다.
- ③ 어느새 정오가 훌쩍 지나 식사할 시간이 되었다.
➡ '시간이 흘러 그 시기에서 벗어나다.'의 뜻으로 쓰였다.
- ④ 물의 온도가 어느점을 지나 계속 내려가고 있다.
➡ '어떤 시기나 한도를 넘다.'의 뜻으로 쓰였다.
- ⑤ 가장 힘든 고비를 지나고 나니 마음이 가뿐하다.
➡ '어떤 시기나 한도를 넘다.'의 뜻으로 쓰였다.

4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그림은 [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공된 영상에서 전방 부분만 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2)여 준 것이다. 차량 전방의 바닥에 그려진 네 개의 도형이 영상에서 각각 A, B, C, D로 나타나 있고, C와 D는 직사각형이고 크기는 같다. p와 q는 각각 영상 속 임의의 한 점이다.



㉠ <보기>의 그림은 운전자에게 제공된 영상이므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이다. 차량의 전방 부분을 나타내며 차량 전진 방향이 위쪽이므로, 위쪽 물체보다 아래쪽 물체가 차량에 더 가깝다. 따라서 시점을 변환하기 전의 영상에서는 원근 효과에 따라 위쪽 물체가 더 작게 보였을 것이다.

정답인 이유

- ④ B에 대한 A의 상대적 크기는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시점을 변환하기 전의 영상에서보다 더 커진 것이다.
- ㉠ <보기>의 그림에서 A의 길이는 이미 B보다 짧기 때문에,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에는 그보다도 더 짧아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시점 변환 후에는 A, B 길이의 상대적 크기 차이가 실제에 가까워진다. 이에 따라 B에 대한 A의 크기가 원근 효과를 제거하기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의 영상에서 C는 뒷면이 아랫면보다 큰 사다리꼴 모양이다.
- ㉠ ③에 따르면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의 영상에서는 크기가 같은 물체라도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난다. <보기> 그림에서 C의 뒷면이 차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의 영상에서는 뒷면이 아랫면보다 짧은 사다리꼴 모양일 것이다.
- ② 시점 변환 전의 영상에서 D는 C보다 더 작은 크기로 영상의 더 아래쪽에 위치한다.
- ㉠ 시점 변환 전의 영상은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의 영상이다. 이를 고려할 때, <보기> 그림에서 D가 차량과 더 가까우므로, 시점 변환 전의 영상에서는 D가 C보다 더 크게 보일 것이다.
- ③ A와 B는 p와 q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바닥에 그려진 도형을 크기가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은 것이다.
- ㉠ ④-1~2에서 왜곡이 보였던 영상에서 영상의 점들과 실제 격자판의 점들 간의 대응 관계를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으며, 이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영상의 점들을 격자의 모양과 격자 간의 상대적인 크기가 실제 세계에서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으면 2차원 영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보기> 그림에서 A와 B는 p와 q 간의 대응 관계가 아니라, '영상의 점들과 실제 격자판의 점들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한 것이며 이를 통해 영상의 점들을 격자의 모양과 격자 간의 '상대적인 크기가 실제 세계에서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은 것이다.
- ⑤ p가 A 위의 한 점이라면 A는 p에 대응하는 실제 세계의 점이다. 시점 변환을 통해 선으로 나타난 것이다.
- ㉠ <보기> 그림에서 A는 바닥에 그려진 도형이 영상의 시점 변환과 합성을 거쳐 선으로 보이는 것이고, p는 그 영상 속 임의의 한 점이다. 따라서 A가 'p에 대응하는 실제 세계의 점'이 시점 변환 후 선으로

나타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실제 세계의 점이 시점 변환 후 선으로 나타난다는 설명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문제 하이라이트

101쪽

(1) × (2) × (3) × (4) 원근 (5) ○ (6) 시점 변환 (7) ×

선지 + ⑥ × ⑦ × ⑧ ○

선지 +

- ⑥ ④-1~2에 따르면 영상의 시점을 변환할 때 영상의 점들과 격자판의 점들 간의 대응 관계를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이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영상의 점들을 격자의 모양과 격자 간의 상대적인 크기가 실제 세계에서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보기> 그림은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공된 영상으로, 시점 변환이 반영된 영상이다. 따라서 <보기> 그림은 실제 세계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반영된 것이므로, <보기> 그림처럼 실제 세계에서 A의 가로 길이보다 B의 가로 길이가 길 것이다.
- ⑦ ③-1~2에서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 영상에서는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 영상에서는 <보기> 그림의 A가 B보다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 ⑧ ③-1~2의 내용으로 볼 때, 시점 변환 전 영상에서 C는 D보다 작아 보일 것이다. 한편 <보기> 그림은 시점 변환이 반영된 영상으로, 이때 C와 D의 크기는 동일하다. 따라서 시점 변환 전 영상에서보다 시점 변환 후 영상에서 C에 대한 D의 상대적 크기가 작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필수 어휘 ZIP

102쪽

- 1 (1) 시차 (2) 인위적 (3) 리간드 2 (1) ㉠ (2) ㉠ (3) ㉠ 3 ㉠
- 4 (1) 관여한다 (2) 남용하면 (3) 연결하는 (4) 기술하고 5 (1) 수반되다 (2) 균질하다 (3) 사각지대 (4) 해리되다 6 (1) × (2) × (3) ○ (4) ○

01 투시 원근법의 구현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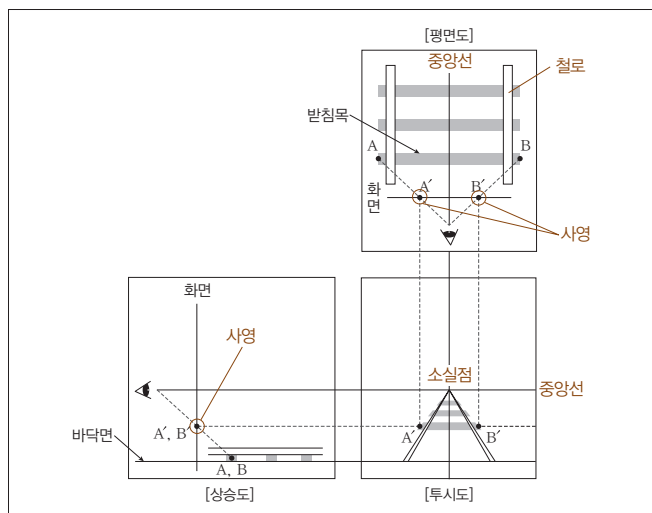
104~108쪽

1 ① 2 ③ 3 ③ 4 ② 5 ②

① 르네상스 이전의 회화에서는 일정한 비례나 법칙이 없이 가까이 있는 사물은 크게, 멀리 있는 사물은 작게 그리는 자연적 원근법을 사용하였다. ^{르네상스 이전 회화의 특징} 2 그런데 15세기 르네상스 회화에서는 눈에 보이는 장면을 정확하게 재현하려 했다. ^{르네상스 회화의 특징} 3 이를 위해 르네상스 화가들은 자연적 원근법과 달리 수학과 과학의 원리를 ^{적용한 투시 원근법으로 대상을 '일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쓰다.'} 표현하였다. ▶ 르네상스 회화에 사용된 투시 원근법의 특징

② 1435년 알베르티는 《회화론》에서 광학의 원리에 ^{근거를 두다.} 기초한 투시 원근법을 소개하였다. 2 화가가 상자를 바라보고 있고, 화가의 눈과 상자 사이에 유리판이 놓여 있다고 하자. 3 눈과 사물 위의 한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시선의 개념} 시선이라고 하고, 시선이 유리판과 만나는 점을 ^{사영의 개념} 사영이라고 한다. 4 상자의 각 점의 사영들을 모아 생기는 상이 화가의 눈에 비친 상자의 상이기 때문에 눈과 사물 사이의 유리판은 곧 화면이 된다. 5 알베르티는 ① 유리판에 들어온 사물의 상을 그대로 그린다면, 그림 속의 인물이나 물체 등이 실제 모습과 비례하게 된다고 보았다. ▶ 광학의 원리에 기초한 투시 원근법

③ 실제로 평행한 두 선을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에서는 두 선이 한 점에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다. 2 이 점을 ^{소실점의 개념} 소실점이라고 하는데, 투시 원근법은 소실점의 개수에 따라 한 점 투시 원근법, 두 점 투시 원근법, 세 점 투시 원근법으로 나뉜다. ^{투시 원근법의 분류} 3 아래 〈그림 1〉의 투시도는 철로를 ① 한 점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것으로, 투시도의 구현 원리는 평면도와 상승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 투시 원근법의 분류와 투시도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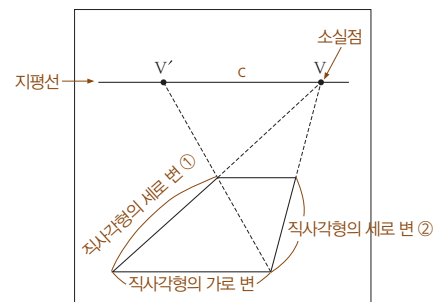
〈그림 1〉

④ 철로의 평면도는 화가의 눈, 화면, 철로를 위에서 내려다볼 때, 철로의 각 점이 화면에 어떻게 사영되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2 화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시선을 ^{중양선의 개념} 중양선이라고 하는데, ① 이 중양선이 철로와 평행하다고 하자. 3 또 눈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반침목의 맨 왼쪽 점 A를 연결하는 시선이 화면과 만나는 점을 A', 맨 오른쪽 점 B를 연결하는 시선이 화면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4 그렇게 되면 선분 AB의 상은 선분 A'B'가 된다. 5 이런 식으로 다른 반침목들도 그리다 보면 반침목이 화면에서 멀어질수록 상의 길이가 작아지며, 양쪽 선로를 따라 점들이 멀어질수록 화면의 상들은 ② 하나의 점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다음으로 상승도를 보자. 7 상승도는 화가의 눈, 화면, 철로를 옆에서 본 그림이다. 8 철로가 놓인 바닥면을 기준으로 볼 때 ③ 중양선은 바닥면과 평행하다고 하자. 9 눈에서 가장 가까운 반침목의 양 끝점 A와 B는 바닥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 있기 때문에 상승도에서 A'와 B'는 하나의 점으로 화면에 표시된다. 10 다른 반침목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다. ▶ 투시 원근법의 구현 원리 ①: 평면도, 상승도를 그리는 방법

⑤ 철로의 평면도와 상승도를 종합하면 투시도를 ③ 완성할 수 있다. 2 투시도를 그릴 화면 위쪽에 평면도를, 화면 왼쪽에 상승도를 놓는다. 3 그리고 평면도의 중양선을 아래로 연장하고, 상승도의 중양선을 오른쪽으로 연장하면 투시도의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 4 투시도에서 점 A'의 위치는 평면도의 점 A'로부터의 수직선과 상승도의 점 A'로부터의 수평선이 만나는 점이다. 5 이런 식으로 다른 점들도 투시도에 표시할 수 있고, 이 점들을 모으면 철로의 상을 얻을 수 있다. ▶ 투시 원근법의 구현 원리 ②: 투시도를 완성하는 방법

⑥ 1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을 화가가 본 것과 유사하게 관람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관람 거리를 ① 유지해야 한다. 2 관람 거리는 관 람자와 그림 사이의 거리로,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의 ^{최적의 관람 거리의 개념} 최적의 관람 거리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실제 장면을 보고 있는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에 해당한다. 3 〈그림 2〉는 가로 길이가 C이고, 세로 길이가 D인 직사각형을 한 점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것으로, 이 그림의 최적의 관람 거리를 추적해 보자. 4 가로 변은 화면과 평행하고 세로 변은 화면과 수직으로 놓인 직사각형을 그린 그림에서 직 사각형의 세로 변을 연장하면 한 점에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점을 V라 하자. 5 이때 점 V는 그림의 소실점이다. 6 점 V에서 직사 각형의 가로 변과 평행한 선을 긋고 이 선을 ^{지평선의 개념} 지평선이라고 하자. 7 그 런 다음에 직사각형의 한 대각선을 연장했을 때 지평선과 만나는 점을 V'라 하자. 8 점 V와 V' 사이의 거리를 c,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면 $C:D=c:d$ 가 성립하여 ^{가로의 길이:세로의 길이 =} 최적의 관람 거리를 구할 수 있다. 9 V와 V' 사이의 거리: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 ▶ 최적의 관람 거리를 구하는 방법



〈그림 2〉

⑦¹한편 르네상스 시대에 원근법을 연구했던 프란체스카는 원근법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²시선과 중앙선이 이루는 각이 60도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사물을 투시 원근법으로 그릴 경우, 화면에 실제 사물과 유사하게 사물의 상이 구현된다. ³하지만 이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사물을 보고 그린 그림에서는 상이 왜곡된다는 것이다. ⁴이런 이유로 후대 미술가 중에는 투시 원근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지닌 이들이 등장했다. ⁵하지만 투시 원근법은 여전히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려는 이들에게는 유용한 방법이다. ⁶최근에는 중강 현실의 구현에 투시 원근법이 활용되고 있다.

▶ 프란체스카가 지적한 투시 원근법의 한계

1 전개 방식 파악하기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① 투시 원근법이 변화해 온 과정을 통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이 글은 투시 원근법의 구현 원리와 특징을 설명하고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투시 원근법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② 구체적인 예를 들어 투시 원근법의 구현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④, ⑤에서 철로를 한 점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투시도를 예로 들어 투시 원근법의 구현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③ 투시 원근법에 대한 특정 인물의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⑦-①~③에서 프란체스카가 투시 원근법의 한계를 지적했음을 밝히고 있다.
- ④ 관련된 주요 용어의 개념을 활용하여 투시 원근법을 설명하고 있다.
→ ‘시선’, ‘사영’(②-③), ‘소실점’(③-①~②), ‘중앙선’(④-②) 등 투시 원근법과 관련된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투시 원근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⑤ 자연적 원근법과의 차이점을 들어 투시 원근법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 ①에서 자연적 원근법이 일정한 비례나 법칙이 없이 가까이 있는 사물은 크게, 멀리 있는 사물은 작게 그린 것과 달리, 투시 원근법은 수학과 과학의 원리를 적용하여 눈에 보이는 장면을 정확하게 재현하려 했다는 특징을 밝히고 있다.

2 세부 내용 파악하기 |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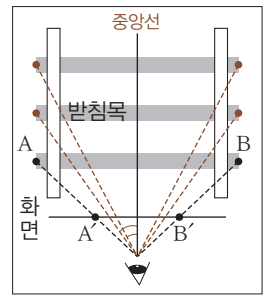
윗글의 <그림1>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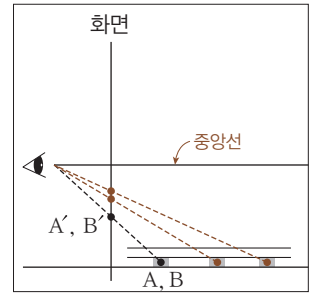
- ③ [상승도]에서 반침목들이 화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반침목 양 끝점의 사영은 중앙선에서 멀어진다.
→ ④-⑤의 내용으로 볼 때, [상승도]에서 반침목들이 화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반침목 양 끝점의 사영이 중앙선과 가까워진다.

오답 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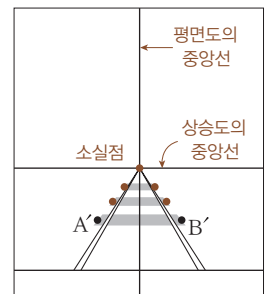
- ① [평면도]에서 반침목들이 화면으로 부터 멀어질수록 반침목의 끝점을 잇는 시선과 중앙선 사이의 각이 작아진다.
→ [평면도]에서 화면과 가장 가까이 있는 반침목의 양 끝점 A와 B보다 뒤에 있는 반침목의 끝점을 잇는 시선과 중앙선 사이의 각이 더 작아진다(④-⑤).
- ② [상승도]에서 한 개의 반침목의 양 끝점은 화면에 동일한 점으로 표시된다.
→ ④-⑨에서 반침목의 양 끝점 A와 B는 바닥으로부터 같은 높이에 있기 때문에 상승도에서 A'와 B'는 하나의 점으로 화면에 표시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투시도]에서 멀리 보이는 반침목일 수록 그 상이 소실점에 가까워진다.
- ⑤ [투시도]에서 소실점은 평면도의 중앙선과 상승도의 중앙선을 연장하였을 때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 [투시도]에서 멀리 보이는 반침목은 그 상이 평면도의 중앙선과 상승도의 중앙선이 만나는 지점, 즉 소실점에 가까워진다(④-⑤, ⑤-①~③).



[평면도]



[상승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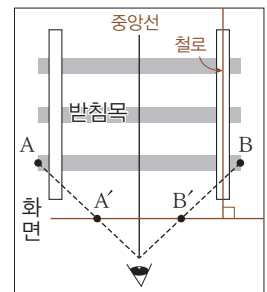
[투시도]

3 세부 내용 파악하기

⑦~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③ ㉠: 철로가 화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뻗어 있다는 것이다.
→ ④-②에서 화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시선인 중앙선이 철로와 평행하고 하였으므로, ㉠은 철로가 화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뻗어 있다는 것이다.



[평면도]

오답 피하기

- ① ㉡: 사물의 각 점의 사영들을 모아서 그린다는 것이다.
→ ②-④에서 상자의 각 점의 사영들을 모아 생기는 상이 화가의 눈에 비친 상자의 상이라고 하였으므로, ㉡은 사물의 각 점의 사영들을 모아서 그린다는 의미이다.

② ㉠: 소실점을 하나만 설정하여 그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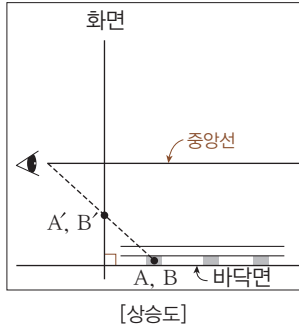
➡ ③-2에서 투시 원근법은 소실점의 개수에 따라 한 점 투시 원근법, 두 점 투시 원근법, 세 점 투시 원근법으로 나뉜다고 하였다. 즉 한 점 투시 원근법은 소실점을 하나로 설정하여 그린 것이다.

④ ㉡: 중앙선과 화면이 만나는 점에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 ④-5에 따르면 평면도에서 받침목이 화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상의 길이가 작아지면서 화면의 상들은 하나의 점(중앙선과 화면이 만나는 점)에 가까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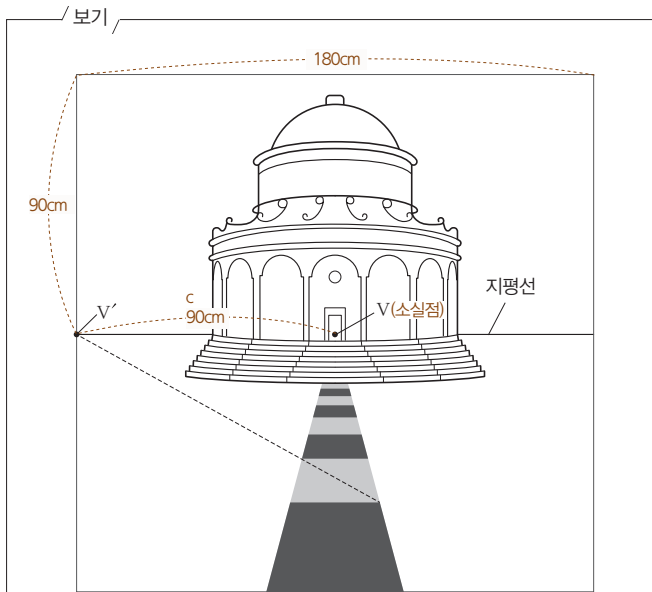
⑤ ㉢: 바닥면이 화면과 수직이 된다는 것이다.

➡ 화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시선이 중앙선이므로(④-2), 중앙선이 바닥면과 평행하다는 것은 바닥면이 화면과 수직이 된다는 것이다.



4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¹한 점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위 그림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80cm이다. ²그림에서 건물의 계단 앞까지 이어져 있는 타일들은 실제로는 같은 크기의 직사각형이다. ³실제 타일은 가로 변이 화면과 평행하고 세로 변이 화면과 수직이다. ⁴그림 속 타일들의 세로 변을 연장하면 건물 중앙 입구의 한 점(V)에서 모인다. ⁵이 점은 그림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⁶이 그림의 점(V)에서 그린 지평선은 그림의 가로 테두리와 평행하며, 지평선과 그림 속 타일의 대각선을 연장한 선은 그림의 세로 테두리에서 한 점(V')으로 만난다.

➡ <보기>에서 그림의 V는 그림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V'는 그림의 세로 테두리의 중앙에 위치하므로, V와 V' 사이의 거리(c)는 90cm이다.

정답인 이유

② 정사각형인 타일을 보고 이 그림을 그렸다면, 화가가 본 것과 유사하게 관람하기 위해서는 관람 거리를 90cm로 유지해야겠군.

➡ ⑥-2에서 실제 장면을 보고 있는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가 최적의 관람 거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⑥-8에 따르면 최적의 관람 거리는 'C(가로의 길이):D(세로의 길이)=c(V와 V' 사이의 거리):d(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에서 d를 구하면 된다. 만약 실제 타일이 정사각형이라면 'C:D'는 '1:1'이고 c는 90cm이므로, 최적의 관람 거리(d)는 90cm임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실제 장면을 보고 있는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가 120cm였다면, 화가가 보고 그린 실제 타일은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길겠군.

➡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 즉, 최적의 관람 거리가 120cm라면 'C:D=90cm:120cm'이므로, 화가가 보고 그린 실제 타일의 가로와 세로 길이의 비는 3:4가 된다. 따라서 타일의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짧다.

③ 정사각형인 타일을 보고 이 그림을 그렸다면, 화면의 중앙에 가까이 그려져 있는 타일일수록 V와 V'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져야겠군.

➡ <보기>-4~6에 따르면 그림 속 타일들의 세로 변을 연장하면 건물 중앙 입구의 한 점(V)에서 모이고, 그림 속 타일의 대각선을 연장한 선은 지평선의 한 점(V')에서 만난다. 따라서 <보기> 그림에서 타일의 위치와 상관 없이 V와 V' 사이의 거리는 달라지지 않는다.

④ 가로의 길이가 100cm, 세로의 길이가 50cm인 직사각형의 타일을 보고 이 그림을 그렸다면, 최적의 관람 거리는 180cm겠군.

➡ 이 경우 '100cm:50cm=90cm:d'가 성립하므로, d는 45cm가 된다.

⑤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긴 직사각형의 타일을 보고 이 그림을 그렸다면, V'는 화면의 밖에 위치하겠군.

➡ <보기>-6에서 그림 속 타일의 대각선을 연장한 선과 지평선이 한 점(V')에서 만난다고 하였으므로, 실제 타일의 크기와 상관없이 V'의 위치는 달라지지 않는다.

5 단어의 의미 파악하기

㉠~㉢의 문맥적 의미와 유사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② ㉢: 독립 선언문을 기초한 사람이 바로 그분이다.

➡ ㉢은 '근거를 두다.'의 뜻으로 쓰였다. 그러나 ②에서 '기초하다'는 '글의 초안을 잡다.'의 뜻으로 쓰였다.

오답 피하기

① ㉠: 이 공장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량을 늘렸다.

➡ ㉠과 ①에서 '적용하다'는 모두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쓰다.'의 뜻으로 쓰였다.

- ③ ㉔: 다음 주까지 보고서를 완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㉔ ㉔와 ㉔에서 '완성하다'는 모두 '완전히 다 이루다.'의 뜻으로 쓰였다.
- ④ ㉔: 사고 예방을 위해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㉔ ㉔와 ㉔에서 '유지하다'는 모두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 ⑤ ㉔: 조선 시대의 마을을 재현한 민속촌을 만들었다.
 ㉔ ㉔와 ㉔에서 '재현하다'는 모두 '다시 나타나다.'의 뜻으로 쓰였다.

문제 하이라이트

109쪽

(1) 사영 (2) ○ (3) 개수 (4) ○ (5) 수직 (6) × (7) ○ (8) ○

선지+ ⑥ ○ ⑦ ○ ⑧ ×

선지+

- ⑥ ㉔-4~5에 따르면 유리판에 생기는 상자의 상이 화가의 눈에 비친 상자의 상이기 때문에, 유리판에 들어온 사물의 상을 그대로 그린다는 것은 곧 사물의 실제 모습과 비례하여 그린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⑦ ㉔-1~2에 따르면 한 점 투시 원근법은 평행한 두 선이 한 점에서 모이는 점인 소실점의 개수를 한 개로 설정하여 그린 것이다.
- ⑧ 이 글에 제시된 <그림 1>의 [상승도]를 참고하면 바닥면과 화면은 수직이다. 따라서 중앙선이 바닥면과 평행하다는 것은 중앙선 또한 화면과 수직이라는 뜻이다.

02 쿤의 과학혁명 가설

110~114쪽

1 ④ 2 ④ 3 ② 4 ⑤ 5 ⑤ 6 ③

- ① 패러다임이란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를 뜻하는 말로 과학철학자인 토머스 쿤이 새롭게 제시하여 널리 쓰이는 개념이다. 쿤은 패러다임 속에서 진행되는 연구 활동을 정상 과학이라고 하였으며, 기존의 패러다임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을 변칙 사례라고 하였다. 쿤은 정상 과학이 변칙 사례를 설명해 내기도 하나 중요한 변칙 사례가 미해결 상태로 남으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급격한 대체 과정, 즉 과학혁명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러나 쿤은 옛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 중 어떤 패러다임이 더 우월한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 쿤이 제시한 패러다임과 과학혁명의 개념

- ② 18세기 말 라부아지에가 새로운 연소 이론을 확립하기 전까지의 패러다임은 플로지스톤이라는 개념으로 연소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리스어로 '불꽃'을 뜻하는 플로지스톤은 18세기 초 베허와 슈탈이 제안한 개념으로, 가연성 물질이나 금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물질이다. 베허와 슈탈은 중이, 숯, 황처럼 잘 타는 물질에 플로지스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소는 물질에 포함되어 있던 플로지스톤이 방출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플로지스톤 개념으로 물질의 굳기, 광택, 색의 변화를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플로지스톤을 잃은 물질은 쉽게 부스러지며 탁하고 어둡게 된다고 보았다.
- 연소 현상뿐만 아니라 금속이 녹는 현상, 음식이 소화되는 생화학 작용 등 다양한 현상이 플로지스톤 이론을 통해 이해될 수 있었다.
- ▶ 연소 현상에 관한 플로지스톤 패러다임 ①: 베허와 슈탈의 주장
- ③ 18세기 중반 캐번디시는 자신이 순수한 플로지스톤을 추출하는데 성공했다고 믿었다. 캐번디시는 금속을 산에 녹일 때 발생하는 기체가 매우 잘 타는 성질을 띠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 기체를 가연성 공기라고 명명하였다. 녹은 금속을 산에 녹일 때는 이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기체는 금속에 있던 플로지스톤이 빠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후 캐번디시는 이 가연성 공기를 태울 때 물이 형성되는 현상을 관찰하기도 하였다.
- ▶ 연소 현상에 관한 플로지스톤 패러다임 ②: 캐번디시의 주장
- ④ 18세기 후반 프리스틀리는 캐번디시가 발견한 가연성 공기를 활용하여 금속회를 금속으로 환원하는 실험을 시행하였다. 먼저 프리스틀리는 물을 채운 넓적한 그릇에 빈 유리그릇을 얹어 놓고 그 안에 가연성 공기를 채웠다. 그리고 그 안에 금속회를 넣고 렌즈로 햇빛을 모아 가열하였다. 프리스틀리는 금속회가 플로지스톤을 흡수하여 금속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예측대로 금속회는 금속이 되었다.
- ▶ 프리스틀리의 주장 ①
- 또한 유리그릇 안쪽의 수위가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유리그릇 안에 있던 플로지스톤이 소모된 증거라고 보았다. 금속에서 나온 기체가 가연성이라는 점, 그 기체를 활용하여 금속회를 금속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모두 플로지스톤 패러다임 안에서 설명된 것이다.
- ▶ 연소 현상에 관한 플로지스톤 패러다임 ③: 프리스틀리의 주장
- ⑤ 18세기 라부아지에에 금속이 녹을 때 질량이 변화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플로지스톤 이론에 의문을 가졌다. 라부아지에에 연소 현상에서도 그러한 질량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정밀하게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동원하여 실험을 시행하였다. 라부아지에에 밀폐된 유리병 안에서 인과 황을 가열한 후에 가열 전과 비교하여 인과 황의 질량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때 질량이 증가한 양은 유리병 속 기체의 질량이 감소한 양과 같음을 확인하였다. 라부아지에에 연소 반응에서 발생하거나 소모되는 기체를 모아 정확히 질량을 측정하면 반응 전후의 총 질량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연소는 플로지스톤을 잃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 ▶ 플로지스톤 이론에 의문을 품은 라부아지에의 주장
- ⑥ 가연성 공기를 태울 때 물이 형성된다는 캐번디시의 관찰 결과를 토대로 라부아지에에 프리스틀리의 실험을 자신의 이론으로 재해석하였다. 프리스틀리의 실험에서 나타난 현상은 플로지스톤과 금속회

가 결합한 것이 아니라 금속회에 있던 산소가 유리그릇으로 방출된 것이며, 이 산소는 유리그릇을 채우고 있던 가연성 공기와 결합하여 물이 되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라부아지에의 주장} 3프리스틀리의 기존 실험은 물 위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형성된 물을 관찰하기 어려웠으나 같은 실험을 물이 아닌 수은 위에서 다시 시행하자 수은 위에 소량의 물이 형성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7 이후 플로지스톤 학파는 기존 패러다임 안에서 이론을 일부 수정하여 라부아지에의 이론을 반박하기도 하였으나 정확한 질량 측정을 기반으로 한 라부아지에의 핵심적인 문제 제기는 끝내 명확하게 설명해 내지 못했다. ^{프리스틀리의 실험을 재해석한 라부아지에의 주장} 결국 플로지스톤이라는 개념과 그것으로 연소 현상을 이해하려는 패러다임은 ^{현상이나 물체의 자취 따위가 없어진다.} 사라지고, 연소를 산소와의 결합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 잡게 되었다. ^{패러다임의 변화 ①} 또한 물질의 성질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에서, ^{패러다임의 변화 ②} 정밀한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실험 과정을 정량화하는 것으로 화학 연구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원래 있던 것이 없어지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거나 대신하게 되다.}

8 1 문은 과학사의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 과학적 진보는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혁명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연소 현상에 관한 패러다임의 교체(과학혁명)} 2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패러다임이라는 인식의 틀 안에서 퍼즐을 맞추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뿐 새로운 과학 지식을 만들어 내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 3 더 나아가 쿤은, 하나의 이론 체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의 개념, 법칙, 가정을 포함한 패러다임 전체를 믿는 행위이므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옛것과 비교하여 어떤 패러다임이 더 우월한 것인지 평가할 논리적 기준은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 ^{쿤의 과학혁명 가설의 의미} 4 쿤의 과학혁명 가설은 과학의 발전을 새롭게 바라보는 통찰력 있는 관점으로서 많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기존 패러다임으로 설명되지 않는 변칙 사례에 주목하게 하였고, 고정된 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 정상 과학을 반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쿤의 주장 ②}

▶ 쿤의 과학혁명 가설과 그 의의

1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④ 라부아지에는 금속을 산에 녹일 때 나온 기체가 가연성을 띤다는 캐번디시의 실험 결과를 반박하였다.
 ➔ 6-1에 따르면 라부아지에는 가연성 공기를 태울 때 물이 형성된다는 캐번디시의 관찰 결과를 토대로 프리스틀리의 실험을 자신의 이론으로 재해석하였을 뿐, 금속을 산에 녹일 때 나온 기체가 가연성을 띤다는 캐번디시의 실험 결과를 반박하지는 않았다.

오답 피하기

- ① 라부아지에는 연소 실험 전후에 물질의 질량을 정밀하게 측정하였다.
 ➔ 5-2~3에 따르면 라부아지에는 질량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동원하여, 밀폐된 유리병 안에서 인과 황의 가열 전후의 질량을 측정하였다.

- ② 베허와 슈탈은 종이가 플로지스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잘 타는 것이라고 보았다.

➔ 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플로지스톤 패러다임에서는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을 플로지스톤이 빠져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 2-3에서 연소는 물질에 포함되어 있던 플로지스톤이 방출되는 과정이라 하였고, 2-5에서 연소 현상뿐만 아니라 음식이 소화되는 생화학 작용도 플로지스톤 이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 ⑤ 쿤의 과학혁명 가설은 기존의 이론적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반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 8-4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생략된 정보 추론하기

캐번디시가 ㉠과 같이 판단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④ 이 기체는 잘 타는 성질을 갖고 있고 녹슬지 않은 금속에서만 나온 가연성 공기 것이기 때문에

➔ 2-2~3에서 플로지스톤은 ‘가연성 물질이나 금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물질’이며, 종이, 숯, 황처럼 잘 타는 물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하였다. 3-2~3에 따르면 캐번디시는 금속을 산에 녹일 때 발생하는 가연성 공기가 플로지스톤처럼 매우 잘 타는 성질을 띠고 있고, 녹슨 금속(2-5를 참고할 때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갔다고 여겨진 금속)을 산에 녹일 때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하여, 가연성 공기는 금속에 있던 플로지스톤이 빠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이 기체는 잘 타는 성질을 갖고 있고 타면서 물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 3-4에 따르면 캐번디시가 잘 타는 성질을 띤 가연성 공기를 태울 때 물이 형성되는 현상을 관찰하기는 했지만, 이는 ㉠처럼 생각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 즉 캐번디시가 이를 근거로 가연성 공기가 금속에 있던 플로지스톤이 빠져 나온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 ② 이 기체는 금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금속이 녹슬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 3-2에 따르면 가연성 공기는 금속을 산에 녹이는 과정에서 나온 기체이다.
- ③ 이 기체는 산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금속을 산에 녹일 때 나온 것이기 때문에
 ➔ 3-2~3에 따르면 캐번디시는 가연성 공기가 ‘금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플로지스톤이 금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 플로지스톤 이론과 관련 있다(2-2).

- ⑤ 이 기체는 녹슨 금속을 산에 녹일 때는 나오지 않고 가열할 때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 ➔ ③-3에서 녹슨 금속을 산에 녹일 때는 가연성 공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였을 뿐, 녹슨 금속을 가열한 것은 아니다. 또한 녹슨 금속을 가열할 때만 가연성 공기가 발생한다는 내용은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3 생략된 정보 추론하기

윗글을 참고할 때 라부아지에가 갖게 된 의문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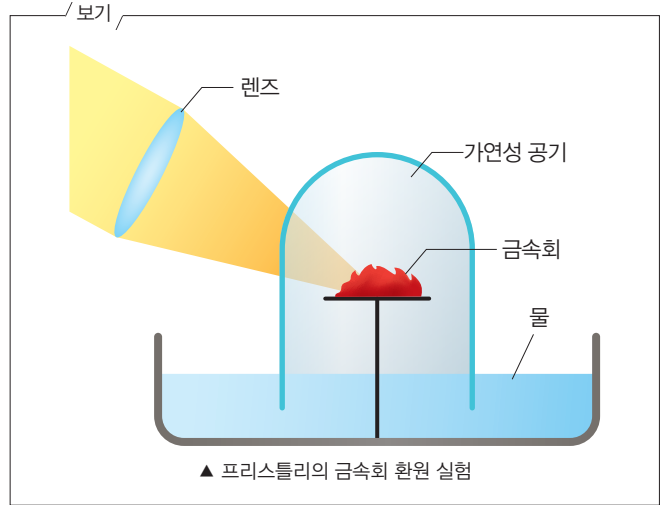
- ② 금속이 플로지스톤을 잃어 녹슨 것이라면 녹슬기 전보다 질량이 줄어들어야 하지 않을까?
- ➔ ②~④에 따르면 플로지스톤 이론에서는 금속이 녹스는 현상을 금속에 있던 플로지스톤이 빠져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 이론대로라면 금속이 녹슬면 빠져 나간 플로지스톤의 질량만큼 금속의 질량이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라부아지에는 금속이 녹슬 때 질량이 변화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밀폐된 유리병 안에서 인과 황을 가열한 후에 가열 전과 비교하면 인과 황의 질량이 늘어난다는 사실과 질량이 증가한 양은 유리병 속 기체의 질량이 감소한 양과 같음을 확인하였다.
- 이를 고려할 때 라부아지에는 플로지스톤 이론에 따르면 줄어들어야 했을 녹슨 금속의 질량이 오히려 감소한 기체의 질량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플로지스톤 이론의 주장에 의문을 갖게 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라부아지에가 갖게 된 의문의 내용으로는 ②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금속이 플로지스톤을 잃어 녹슨 것이라면 녹슬기 전보다 질량이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 ③ 금속이 플로지스톤을 잃어 녹슨 것이라도 녹슬기 전후의 질량은 동일하여야 하지 않을까?
- ➔ 플로지스톤 이론에서는 금속이 녹스는 현상을 금속에 있던 플로지스톤이 빠져 나가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이 이론에 따라 원래 금속에 있던 플로지스톤이 빠져 나간다면 그 질량만큼 금속의 질량이 줄어들어야 한다. 그런데 라부아지에의 실험 결과 오히려 질량이 늘어났으므로, 금속이 녹슬기 전보다 질량이 늘거나 변화가 없다는 것은 라부아지에가 가졌을 의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④ 금속이 플로지스톤을 잃어 녹슨 것이라면 녹슬기 전보다 질량이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 ⑤ 금속이 플로지스톤을 잃어 녹슨 것이라도 녹슬기 전후의 질량은 동일하여야 하지 않을까?
- ➔ 플로지스톤 이론에서는 금속이 녹스는 현상을 금속에 있던 플로지스톤이 빠져 나가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⑤는 플로지스톤 이론과 맞지 않으며 라부아지에가 가졌을 의문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4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⑤ 라부아지에는 수은 위에서 실험을 시행하면 물 위에서 실험했을 때와는 달라 새로운 물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았다.
- ➔ ⑥-3에 따르면 라부아지에는 프리스틀리의 실험이 물 위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형성된 물을 관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라부아지에는 수은 위에서 같은 실험을 다시 시행하여 새로운 물이 형성되는 현상을 더 쉽게 관찰하고자 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프리스틀리는 가열 전의 금속회는 플로지스톤이 결합된 상태라고 보았다.
- ➔ ④-3~4에 따르면 프리스틀리는 금속회를 햇빛에 가열하면 금속회가 플로지스톤을 흡수하여 금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가열 전의 금속회가 플로지스톤이 결합된 상태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 ② 프리스틀리는 실험 과정 중 가연성 공기가 소모되어 수위가 상승한다고 이해하였다.
- ➔ ④-5에 따르면 프리스틀리는 금속회가 금속이 되는 과정에서 유리그릇 안쪽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가연성 공기(플로지스톤)가 소모된 증거라고 보았다.
- ③ 프리스틀리는 가연성 공기를 활용하여 금속회를 금속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 ④-1, 4에 따르면 프리스틀리는 가연성 공기를 활용하여 금속회를 금속으로 환원하는 실험을 시행하면서 금속회가 가연성 공기(플로지스톤)를 흡수하여 금속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 ④ 라부아지에는 금속회를 가열하면 가연성 공기와는 다른 기체인 산소가 방출된다고 보았다.
- ➔ ⑥-2에 따르면 라부아지에는 프리스틀리의 실험에서 가연성 공기(플로지스톤)와 금속회가 결합한 것이 아니라 금속회에 있던 산소가 유리그릇으로 방출된 것이라고 재해석하였다.

5 단어의 의미 파악하기

문맥상 ㉠~㉣와 바뀌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 수용(受容)한다는

➡ ㉤의 '받아들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비판 따위를 찬성하여 따르다. 또는 옳다고 인정하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은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다.'를 뜻하는 '수용하다'로 바뀌 쓸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 조망(眺望)하였다

➡ ㉠의 '보다'는 '생각하거나 평가하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조망하다'는 '먼 곳을 바라보다.', '전체적으로 바라거나 앞일을 내다보다.'를 뜻한다.

㉡ ㉡: 소유(所有)하고

➡ ㉡의 '따'는 '어떤 성질을 가지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소유하다'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에 더 가깝다.

㉢ ㉢: 생략(省略)되고

➡ ㉢의 '사라지다'는 '현상이나 물체의 자취 따위가 없어지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생략되다'는 '전체에서 일부가 줄거나 빠지다.'를 뜻한다.

㉣ ㉣: 전도(顛倒)되었다

➡ ㉣의 '바뀌다'는 '원래 있던 것이 없어지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거나 대신하게 되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전도되다'는 '차례, 위치, 이치, 가치관 따위가 뒤바뀌어 원래와 달리 거꾸로 되다.'를 뜻한다.

6 글의 내용 및 관점 비판하기

〈보기〉의 관점에서 위글의 토머스 쿤의 주장을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의 패러다임보다 더 나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과학이 진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과학은 객관적인 관찰과 자료 분석, 논리적인 접근으로 유도된 지식의 총합이며 과학적 진보는 누적적인 것이 아니라 혁명적인 것이라는 쿤의 관점과 대비됨(㉠-1). 이런 지식의 누적이 바로 과학적 진보이다. 뉴턴의 역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해명하므로 뉴턴의 역학이 더 진보되었다고 우리는 믿어 왔다. 그리고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열광한 것도 뉴턴 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해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보기〉의 관점: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의 패러다임보다 더 진보됨.

정답인 이유

㉢ 플로지스톤 패러다임에서는 미해결 상태로 남았던 변칙 사례가 라부아지에의 이론으로 해명되었다는 점에서 패러다임 간의 우월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에 따르면 쿤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기존의 패러다임 사이의 우월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달리 〈보기〉의 관점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의 패러다임보다 더 우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보기〉의 관점에서 볼 때, 플로지스톤 패러다임에서 미해결 상태로 남았던 변칙 사례가 라부아지에의 이론으로 해명되었으므로, 라부아지에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의 플로지스톤 패러다임보다 더 우월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오답 피하기

㉠ 라부아지에는 변칙 사례를 발견하고 이를 정상 과학으로 해명하려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정상 과학은 새로운 과학 지식을 만들어 낸다고 볼 수 있다.

➡ ㉠~㉣에 따르면 라부아지에는 플로지스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변칙 사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고, 기존의 패러다임 내 정상 과학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라부아지에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 잡게 되었다.

㉡ 가연성 공기와 관련한 캐번디시의 실험은 정상 과학의 범주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의 패러다임보다 더 진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에 따르면 캐번디시의 실험은 기존의 플로지스톤 패러다임 내 정상 과학의 범주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보기〉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 플로지스톤 패러다임은 상태 변화의 원인, 라부아지에의 이론은 물질의 질량 변화에 각각 주목한 것일 뿐이므로 과학적 진보는 혁명적이라고 볼 수 없다.

➡ 과학적 진보는 혁명적이라는 쿤의 주장(㉠-1)과 달리, 〈보기〉의 관점은 과학적 진보가 지식의 누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쿤의 주장을 비판할 수는 있으나, 플로지스톤 패러다임과 라부아지에의 이론이 각각 다른 측면에 주목했다는 사실을 비판의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라부아지에 역시 프리스틀리의 실험 결과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하나의 이론 체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패러다임 전체를 믿는 행위라 볼 수 없다.

➡ ㉤은 과학적 진보, 패러다임 간의 우월성에 관한 관점이 제시된 〈보기〉 내용의 핵심에서 벗어난 진술이다.

문제 하이라이트

115쪽

(1) × (2) × (3) 우월 (4) ○ (5) × (6) 진보 (7) ×

선지 + ⑥ × ⑦ × ⑧ ○

선지 +

⑥, ⑦ 과학적 진보가 혁명적이며, 패러다임의 우월성을 가릴 수 없다고 본 것은 쿤이다.

⑧ 라부아지에는 정확한 질량 측정을 기반으로 한 관찰을 통해 기존 이론의 변칙 사례를 설명하였으며, 그 결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 잡게 되었다. 〈보기〉의 관점에서는 이를 객관적인 관찰로 유도된 지식의 총합, 즉 지식의 누적이라 볼 것이므로 라부아지에의 사례를 근거로 들어 과학적 진보를 혁명적이라고 보는 쿤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

가 ① ① 정립-반정립-종합. ②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③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④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⑥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 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가) 지니야 한다.)

② ①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②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③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① 가리킨다. ④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⑥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⑦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⑧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 변증법적 체계 안에서 미학을 다룬 헤겔의 이론 ①: 이념 인식 형식에 따라 구분되는 절대정신의 세 형태

③ ①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②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③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④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⑤ 이에 따라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 변증법적 체계 안에서 미학을 다룬 헤겔의 이론 ②: 형식 간 차이로 발생하는 절대정신의 세 형태 간 단계적 등급

나 ① ①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②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③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 변증법에서의 '종합'의 개념

② ①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②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타하는 것

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③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④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⑤ 지성의 형식을 직관-표상-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⑥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①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⑦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 헤겔의 이론에 대한 비판: 실질적 내용을 보면 변증법적 종합이 이루어지지 않음.

③ ①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②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③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④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⑤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 헤겔의 이론에 대한 비판 ②: 예술은 철학의 주관성이 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으로서,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음.

1 전개 방식 파악하기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①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② (가)는 변증법의 체계 안에서 미학을 다루고자 한 헤겔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②-1~2). (가)에서 헤겔은 절대정신의 한 형태인 예술, 종교, 철학은 인식 형식 간의 차이로 단계적 등급이 매겨지며, 그 중 예술은 초보 단계의 절대정신이라 보았다(③-4~5). 한편 (나)는 변증법에서의 '종합'의 의미(①)를 중심으로 헤겔의 변증법을 비판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예술을 '철학 이후' 단계의 절대정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라고 하였다(③-1~2). 즉, (가)와 (나)는 모두 변증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파악하기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③ (가)와 (나)에 변증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나타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다른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지 않다. ④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⑤ (나)가 헤겔의 변증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대적

한계를 지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지 않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 (나)는 변증법적 체계 안에서 미학을 다른 헤겔 이론의 한계를 비판하고 있을 뿐, 헤겔의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유형화하고 있지 않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적용하여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가)와 (나)에 변증법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은 나타나지 않으며 또한 이를 적용하여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2 세부 내용 파악하기

(가)에서 알 수 있는 헤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③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 (가)의 ②-2~5에 따르면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로 예술·종교·철학이 있으며, 이는 절대적 진리(이념)를 인식하는 형식(직관·표상·사유)에 따라 구분된다. 이때 인식하는 대상은 절대적 진리(이념)이며, 절대정신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 진리를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에 해당한다(②-3). 즉,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예술·종교·철학)가 지성의 세 가지 형식(직관·표상·사유)을 통해 인식하는 대상이 '절대적 진리'인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③-2~3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절대적 진리를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한다고 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 (가)의 ③-2에 따르면 헤겔은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를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여겼다.
- ②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 (가)의 ①-5에 따르면 헤겔은 변증법을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라고 여겼다.
- ④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 (가)의 ①-6에서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와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이 변증법적이며, 이념과 현실이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예술·종교·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 (가)의 ②-4에서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다.

3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가)에 따라 직관·표상·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④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가)의 ②-6에서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대상을 통해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사유'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직관'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직관'에 해당하며,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표상'에 해당한다.
- ②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은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은 모두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표상'에 해당한다.
- ③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직관'에 해당하며,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 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4 중심 내용 파악하기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과 ㉡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정립-반정립-종합
 ㉡: 예술-종교-철학

정답인 이유

- ③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 (나)의 ㉡-5에서 글쓴이는 헤겔이 절대정신을 ㉠과 같이 편성한 것이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이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변증법은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가) ㉠-4). 그런데 (나)의 글쓴이는 헤겔이 편성한 ㉠과 관련하여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드러나므로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나) ㉡-6). 즉, ㉠의 논리적 구조와는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점차 지워진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③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과 ㉡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 (나)의 글쓴이는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내서도 안 되고'라고 하며 ㉠의 첫 번째 범주와 두 번째 범주가 대립한다고 보았다(나) ㉠-2). 또한 헤겔이 절대정신을 ㉠과 같이 편성한 전략을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이라고 하였으므로(나) ㉡-5), (나)의 글쓴이는 ㉠과 ㉡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② ㉠과 ㉡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 (나)의 글쓴이는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인 ㉠에서의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하였으며(나) ㉠-3), (가)에서 헤겔이 절대정신을 ㉠과 같이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나) ㉡-5~6). 즉, (나)의 글쓴이는 ㉠과 ㉡ 모두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④ ㉠과 달리 ㉡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 (나)의 글쓴이는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인 ㉠에서의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하였으나(나) ㉠-3), 헤겔이 편성한 ㉠에서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나) ㉡-5~6). 즉 (나)의 글쓴이는 ㉠과 달리 ㉡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⑤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 (가)의 ㉠-4에 따르면 '수렴적 상향성'이란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변증법의 구조적 특징을 말한다. (나)의 글쓴이가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인 ㉠에서의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한 데에서 ㉠의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나) ㉠-3). 그러나 (나)의 글쓴이는 헤겔이 편성한 ㉠과 관련하여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범주 간 이행에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나) ㉡-5~6). 즉 (나)의 글쓴이는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5 글의 내용 및 관점 비판하기 | 생각된 정보 추론하기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헤겔 :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철학-사유와 관련된(가) ㉢-5).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초보 단계, 예술과 관련된(가) ㉢-4).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나)의 글쓴이 :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는 말이 됩니다.

- ㉠ (나)에서 글쓴이는 헤겔이 변증법적 체계 안에서 미학을 다룬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불일치에 관한 아쉬움을 표현하였음(나) ㉢-5).

정답인 이유

- ②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 헤겔 미학의 이론적 설명에 따르면 예술은 초보 단계,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며(가) ㉢-4), (나)의 글쓴이는 헤겔의 미학 이론에서 예술은 직관의 외면성에, 철학은 사유의 내면성에 대응한다고 보았다(나) ㉡-6~7). 그런데 <보기>에서 헤겔은 괴테와 실러가 인생의 완숙기에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 말에는 예술이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 될 수 있으며, 사유의 내면성과 관련되는 지성적 통찰을 보여 줄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나타난다. 이로 볼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다. (나)의 글쓴이는 예술이 '철학 이후' 단계의 절대정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후보라고 하며 헤겔이 변증법적 체계 안에서 미학을 다룬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불일치에 관한 아쉬움을 드러내었다(나) ㉢-2~5). 따라서 ㉡와 같이 헤겔의 미학 이론과 현실의 문학 작품에 대한 평가가 불일치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크 범주들을 종합한다
 ㉠ (나)의 ㉠-2에서 글쓴이는 종합의 범주가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면 안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 내용은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벗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 (가)의 ①-1에 따르면 변증법은 '정립-반정립-종합'의 순으로 구성된다. 헤겔이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으로 편성한 것을 볼 때, 헤겔의 이론에서 '예술'은 정립의 단계에 위치한다. 따라서 (나)의 글쓴이가 헤겔의 이론에서의 예술의 위치를 '반정립 단계'라고 이해하여 말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 ➡ (나)의 글쓴이는 헤겔이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것에 대하여,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나) ②-6). 이어 (나)의 글쓴이는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나) ③-1). 이로 볼 때,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는 내용은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벗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 ➡ (가)의 ②-3에 따르면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를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또한 ②-4~5에서 절대정신의 형태는 '인식 형식'에 따라 '예술·종교·철학'으로 구분되며 그중 예술은 '직관'의 형식에 대응함을 알 수 있다. 즉, '직관'이란 절대적 진리를 인식하는 형식이다. (나)의 글쓴이는 헤겔의 이론에서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철학 이후로 자리할 수 있는 후보를 '예술'로 상정하고 있는데((나) ③-1~2), 이를 통해 (나)의 글쓴이가 '예술'을 '절대정신'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은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벗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6 단어의 의미 파악하기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③ ㉢: 귀결(歸結)되어도
- ➡ ㉢의 '끝나다'는 '일이 다 이루어지다.'라는 의미이다. '귀결되다'는 '어떤 결말이나 결과에 이르게 되다.'라는 뜻으로,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 소지(所持)하여야
- ➡ ㉠의 '지니다'는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라는 의미이다. '소지하다'는 '물건을 지니고 있다.'라는 뜻으로,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② ㉡: 포착(捕捉)한다
- ➡ ㉡의 '가리키다'는 '어떤 대상을 특별히 집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내다.'라는 의미이다. '포착하다'는 '꼭 붙잡다.', '요점이나 요령을 얻다.', '어떤 기회나 정세를 알아차리다.'라는 뜻으로,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④ ㉣: 간주(看做)하면
- ➡ ㉣의 '보다'는 '대상의 내용이나 상태를 알기 위하여 살피다.'라는 의미이다. '간주하다'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기다.'라는 뜻으로,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⑤ ㉤: 결성(結成)되지
- ➡ ㉤의 '이루어지다'는 '어떤 대상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나 결과가 생기거나 만들어지다.'라는 의미이다. '결성되다'는 '조직이나 단체 따위가 짜여 만들어지다.'라는 뜻으로,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문제 하이라이트

121쪽

(1) 종합 (2) ○ (3) × (4) 변증법 (5) × (6) × (7) ×

선지+ ⑥ × ⑦ × ⑧ ×

선지+

- ⑥ (가)와 (나) 모두 변증법의 기원은 확인할 수 없으며, 예술의 역사적 가치 또한 탐구하고 있지 않다.
- ⑦ (나)는 변증법적 체계 안에서 미학을 다룬 헤겔의 이론을 비판하고 있을 뿐, 변증법이 다른 연구를 통해 보완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있지 않다.
- ⑧ 변증법에 기반한 헤겔의 미학 이론의 허점과 한계를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글은 (가)가 아니라 (나)이다.

1 ②

2 ③

3 ②

4 ①

5 ③

6 ⑤

가 ① 1 광고는 시장의 형태 중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그 효과가 크다. 2 독점적 경쟁 시장은,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며 판매하는 시장이다. 3 각 판매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고를 이용한다. 4 판매자에게 그러한 차별적 인지와 선호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원하는 구매자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1 일반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3 대체로 구매자는 상품의 물량이 많을 때 상품 가격 결정 시 판매자가 고려해야 할 요소다. 4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공급량을 감소시키므로써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5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의 가격 결정 방법이다. 6 판매자도 이러한 지위 덕분에 상품에 차별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 보다 다소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7 그러나 그 결과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더라도, 그 이윤이 지속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8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그 결과 기존 판매자가 공급하던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여 이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3 1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차별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2 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광고의 방법 ① 상품의 차별성을 알리는 광고의 방법 ②로 보이는 광고만으로도 상품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다. 3 판매자가 경쟁력에 자신 없는 상품에 많은 광고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매자의 추측을 유도하는 것이 이 광고 방법의 목적이다. 4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하는데, (구매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되었다고 느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감소한다. 5 이처럼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갖는 충성도가 높아지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강화된다. 6 판매자는 이렇게 광고가 ①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노린다. 7 독점적 경쟁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판매자도 상품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광고를 빈번하게 이용한다.

나 ① 1 광고는 광고주인 판매자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기획되지만, 그러한 광고가 광고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2 우선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3 이러한 효과는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한다. 4 특히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꾼다면, 판매자는 경쟁 상품의 가격을 더욱 고려하게 되어 가격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5 또한 경쟁은 신규 판매자가 광고

를 통해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 간 경쟁이 촉진되는 경우 ② 진된다. 6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각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고, 구매자는 더 다양한 상품을 높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7 광고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 간 경쟁 촉진

2 1 광고가 특정한 상품에 대한 독점적 경쟁 시장을 넘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2 개별 광고가 구매자의 내면에 잠재된 필요나 욕구를 환기하여 대상 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합쳐지면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3 경제에 광고가 없는 상황을 가정할 때와 비교하면(광고는 쓰던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강화하고, 신상품이 인기를 누리는 유행 주기를 단축하여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촉진된 소비는 생산 활동을 자극한다. 4 상품의 생산에는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가 들어가므로, 생산 활동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한다. 5 고용 및 투자의 증가는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6 경제 전반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를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한계 소비 성향은 양(+)의 값이어서, 경제 전반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7 광고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 경제 전반의 선순환

3 1 하지만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2 소비뿐만 아니라 소비로 촉진된 생산 활동에서도 환경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3 환경 오염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기에 충분한 비용을 판매자나 구매자가 지불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환경 오염은 심할 수밖에 없다. 4 광고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 환경 오염 발생

1 전개 방식 파악하기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② (가)는 광고가 판매자에게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얻으려는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 (가)의 ①~④에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가 판매자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또한 (가)의 ⑤~⑥에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경쟁 제한 효과를 얻으려 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오답 이해하기

① (가)는 광고의 개념을 정의하고 광고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소개하고 있다.

➔ (가)에서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발휘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광고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가)에 광고의 개념은 언급되지 않았다.

③ (나)는 광고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각각의 견해가 안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 (나)는 ①에서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견해를, ②에서 광고가 경제가 선순환되게 한다는 견해를 제

시하고 있다. 한편, ③에서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에 따른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는 비판적 견해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광고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그러나 (나)에 각각의 견해가 안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 ④ (나)는 광고가 구매자에게 수용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구매자가 광고를 수용할 때의 유의점을 나열하고 있다.

➡ (나)에서 광고가 구매자에게 수용되는 과정이나 구매자가 광고를 수용할 때의 유의점은 확인할 수 없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구매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광고와 관련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가)의 ③-4~5에서 상품의 차별성과 상품에 대한 구매자의 선호, 충성도가 구매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임을 알 수 있으며, (나)의 ①-3~4에서도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이 그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와 (나)에서 광고와 관련된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2 중심 내용 파악하기

독점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③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상품 공급량에 따라 어느 정도 인지를 판매자가 감안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

➡ (가)의 ②-1~3에 따르면, 대체로 구매자는 상품의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므로 판매자는 상품을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인 독점적 지위를 누리더라도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즉, 판매자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더라도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상품 공급량에 따라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독점적 경쟁 시장에 신규 판매자가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지 않는다.

➡ (가)의 ③-7에서 독점적 경쟁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판매자도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광고를 빈번하게 이용한다고 하였다. 즉, 판매자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독점적 경쟁 시장에 신규 판매자의 진입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 ② 판매자가 공급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가)의 ②-1에 따르면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이며, ②-3에서 판매자는 공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판매자는 공급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 ④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다소 비싼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하지만 이윤을 지속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 (가)의 ②-4에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판매자는 상품에 차별성이 없는 경우를 가질 때보다 다소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

향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②-5~6에서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 이윤이 지속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⑤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 자신의 상품을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하게 하면 강화된다.

➡ (가)의 ①-3~4에 따르면, 판매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고를 이용하며, 구매자에게 유도한 차별적 인지와 선호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3 세부 내용 파악하기

(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인 이유

- ② 광고가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일으키는 정도는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질 때 작아진다.

➡ (나)의 ②-3~6에 따르면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욕구 강화 → 소비 촉진 → 생산 활동 자극 → 고용이나 투자 증가 → 구매자의 소득 증가 → 소비 증가'의 과정으로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일으킨다. (나)의 ②-6에서 '한계 소비 성향'이란 경제 전반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라고 하였으므로,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질 때 광고가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일으키는 정도 또한 커지게 된다.

오답 피하기

- ① 광고에 의해 유행 주기가 단축되어 소비가 촉진될 수 있다.

➡ (나)의 ②-3에서 광고는 쓰던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강화하고, 신상품이 인기를 누리는 유행 주기를 단축하여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③ 광고가 생산 활동을 자극하면,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다.

➡ (나)의 ②-3~5에서 광고로 촉진된 소비가 생산 활동을 자극함에 따라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④ 광고가 생산 활동을 증가시키면,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 이용이 증가한다.

➡ (나)의 ②-3~4에서 광고로 촉진된 소비가 생산 활동을 자극하면 생산 활동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나)의 ②-4에 따르면 상품의 생산에는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가 들어가므로, 생산 활동이 증가하면 생산 요소 또한 증가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⑤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경제 전반에 광고가 없는 상황에 비해 환경 오염을 심화할 수 있다.

➡ (나) ③-1~2에서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소비뿐만 아니라 소비로 촉진된 생산 활동에서도 환경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광고가 없는 상황에 비해 환경 오염을 심화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4 생략된 정보 추론하기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① ㉠은 상품에 대한 구매자의 충성도가 높아질 때 일어나고, ㉡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질 때 일어난다.
 ➔ (가)의 ③-5~6에서 특정 상품에 갖는 구매자의 충성도가 높아지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어 ㉠(경쟁을 제한)이 일어난다고 하였으므로, ㉠이 상품에 대한 구매자의 충성도가 높아질 때 일어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한편 (나)의 ①-2~3에 따르면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경쟁을 촉진)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가)의 ③-4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말한다.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요량을 바꾼다는 뜻이다. 따라서 ㉡(경쟁을 촉진)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질 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의 결과로 판매자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기 어렵게 되고, ㉡의 결과로 구매자는 ~~더 낮은 가격~~을 감수하게 된다.
 ➔ ㉠은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갖는 충성도가 높아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었을 때 일어난다. (가)의 ②-4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판매자는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의 결과로 판매자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수월해질 것이다. 한편 (나)의 ①-6에서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구매자는 더 다양한 상품을 높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 결과로 구매자는 더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은 ~~시장 전체의 판매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은 ~~신규 판매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이다.
 ➔ ㉠이 발생하면 기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어 판매자가 단기적으로 이윤을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가)의 ②-6에 따르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한다. 즉 시장 전체의 판매자 수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나)의 ①-5에 따르면 경쟁은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촉진된다. 따라서 ㉡이 신규 판매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
- ④ ㉠은 ~~기존 판매자의 광고가 차별성을 알리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고, ㉡은 신규 판매자의 광고가 의도대로 성공한 결과로 나타난다.
 ➔ (가)의 ③의 내용으로 볼 때, ㉠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차별성을 부각하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감소하고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강화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기존 판매자의 광고가 차별성을 알리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결과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나)의 ①-5에 따르면 경쟁은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면 더욱 촉진된다. 따라서 ㉡이 신규 판매자의 광고가 의도대로 성공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⑤ ㉠은 광고로 인해 가격에 대한 구매자의 민감도가 악화될 때 발생하고, ㉡은 ~~광고로 인해 판매자가 경쟁 상품의 가격을 고려할 필요~~

가 감소될 때 발생한다.

➔ (가)의 ③-4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말한다. 이때 구매자의 민감도가 악화된다는 것은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의 변화도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즉, 이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가)의 ③-4~6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감소하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어 ㉠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으므로, ㉠이 가격에 대한 구매자의 민감도가 악화될 때 발생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한편 (나)의 ①-4에 따르면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요량을 바꿀 때 판매자는 경쟁 상품의 가격을 더욱 고려하기 때문에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따라서 ㉡이 판매자가 경쟁 상품의 가격을 고려할 필요가 감소될 때 발생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5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다음은 한 기업의 광고 기획 초안이다. 밑줄을 참고하여 초안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기업의 광고 기획 초안]

- 대상: 새로 출시하는 여드름 억제 비누
- 기획 근거: 다수의 비누 판매 기업이 다양한 여드름 억제 비누를 판매 중이며, 우리 기업은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려는 상황이다. ^{독점적 경쟁 시장} ^{신규로 시장에 진입} 우리 기업의 신제품은 새로운 성분이 함유되어 기존의 어떤 비누보다 여드름 억제 효과가 탁월하며, 국내에서 전량 생산할 계획이다.
 현재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사인 '을' 기업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기존 판매자} 여드름 억제 비누로 이윤을 보고 있으며, 큰 비용을 들여 인기 드라마에 상품을 여러 차례 노출하는 전략으로 광고 중이다. 반면 우리 기업은 이번 광고로 상품에 대한 정보 검색을 많이 하는 소비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차별성 강조} 집단을 공략하고자 제품 정보를 강조하되, 광고 비용은 최소화하려 한다.
- 광고 개요: 새로운 성분의 여드름 억제 효과를 강조하고, 일반인 광고 모델들이 우리 제품의 여드름 억제 효과를 체험한 것을 진술하는 모습을 담은 TV 광고

정답인 이유

- ③ 이 광고로 '갑' 기업이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게 된다면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 내의 판매자 간 경쟁은 장기적으로 악화될 수 있겠어.
 ➔ (가)의 ②-6에 따르면,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한다. 또한 (나)의 ①-6에 따르면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각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면서 구매자는 더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즉 '갑' 기업이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게 된다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장기적으로 신규 판매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경쟁 또한 장기적으로 촉진될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이 광고가 '갑' 기업의 의도대로 성공한다면 '을' 기업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될 수 있겠어.
- ➡ (나)의 ①-5~6에서 신규 판매자의 시장 진입으로 더 많은 판매자가 경쟁하게 되면 각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광고가 '갑' 기업의 의도대로 성공하여 소비 집단이 '갑' 기업의 상품을 구매한다면 기존 판매자인 '을' 기업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될 것이다.
- ② 이 광고로 '갑' 기업의 여드름 억제 비누 생산이 확대된다면 이 비누를 생산하는 공장의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할 수 있겠어.
- ➡ (나)의 ②-3~4에서 광고로 촉진된 소비는 생산 활동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고용이나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갑' 기업의 상품 생산이 확대된다면 공장의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 ④ 이 광고로 '갑' 기업은 많은 비용을 들이는 방법보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차별성을 알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어.
- ➡ (가)의 ③-1~2에 따르면, 광고를 통해 상품의 차별성을 알리는 방법으로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과 비용을 많이 들인 것처럼 보이는 광고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제시된 상황에서 '갑' 기업은 제품 정보를 강조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려는 광고를 기획하고 있으므로, 많은 비용을 들이는 방법보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차별성을 알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이 광고가 '갑' 기업의 신제품을 포함하여 여드름 억제 비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높인다면 '갑' 기업은 자사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없겠어.
- ➡ (가)의 ③-4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화하는 정도를 말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의 변화가 크다는 것, 즉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요량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나)의 ①-6에 따르면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각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고 구매자는 더 다양한 상품을 높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제시된 상황에서 '갑' 기업이 광고를 통해 상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높인다는 것은 구매자가 상품 가격에 더욱 민감해진다는 것을 뜻하므로, (나)의 ①-4에 따라 판매자들은 경쟁 상품의 가격을 고려하여 가격 경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갑' 기업은 자사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없을 것이다.

6 단어의 의미 파악하기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인 이유

- ⑤ 투입(投入)되므로
- ➡ ㉠의 '들어가다'는 '어떤 일에 돈, 노력, 물자 따위가 쓰이다.'의 의미이다. '투입되다'는 '사람이나 물자, 자본 따위가 필요한 곳에 놓여지다.'의 뜻이므로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반입(搬入)되므로
- ➡ '반입되다'는 '운반되어 들어오다'의 의미이다.

- ② 삽입(插入)되므로

➡ '삽입되다'는 '틈이나 구멍 사이에 다른 물체가 넣어지다.', '글 따위에 다른 내용이 넣어지다.'의 의미이다.

- ③ 영입(迎入)되므로

➡ '영입되다'는 '(사람이) 회사나 조직의 일원으로 맞아들여지다.'의 의미이다.

- ④ 주입(注入)되므로

➡ '주입되다'는 '흘러 들어가도록 부어져 넣어지다.', '기억과 암기가 주로 되어 지식이 넣어지다.'의 의미이다.

문제 하이라이트

126쪽

(1) ○ (2) 생산 활동 (3) ○ (4) × (5) 차별성 (6) ○ (7) ○

선지 + ⑥ × ⑦ ○ ⑧ ×

선지 +

- ⑥ (나)의 ①-5~6에서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신상품을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면 경쟁은 촉진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에 따라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각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된다고 하였으므로 '갑'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⑦ (가)의 ③-1~2에 따르면 광고를 통해 상품의 차별성을 알리는 방법으로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과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광고를 활용하는 것이 있다. 만약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택한 '갑' 기업의 광고가 상품의 차별성을 알리지 못한다면, '갑' 기업은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광고를 기획하여 상품의 차별성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 ⑧ (나)의 ①-4에 따르면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꾸면 판매자는 경쟁 상품의 가격을 더욱 고려하게 되어 가격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나)의 ①-6에서 그 결과 구매자는 더 다양한 상품을 높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각 판매자들이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필수 어휘 ZIP

127쪽

- 1 (1) ㉠ (2) ㉡ (3) ㉢ 2 ③ 3 (1) 방출된다 (2) 빈번하게 (3) 거명되었다 (4) 제기 4 (1) 사영되다 (2) 변칙 (3) 연소 (4) 유기적 5 ④ 6 (1) × (2) × (3) ○ (4) ○

그림·사진 자료 출처

• BOOK 2

- 42쪽 기하학적 구조_©antishock/shutterstock
48쪽 코수스,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_©밥풀떼기/wikipedia
94쪽 HMD_©Getty Images Korea